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12
2012 December Vol.252



OPERA IN CONCERT

La Luce

우리에게 찬란한 빛을...

Sumi Jo Beautiful Challenge

조수미 콘서트

2012.12.20 | 목 |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발매예정음반 <La Luce>의 수록곡들과 품격있는 클래식 레퍼토리로 이뤄진 **조수미의 아름다운 도전**

2012

제야음악회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NEW YEAR'S EVE CONCERT

사회 지성훈

2012. 12. 31 월 오후 10: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 휘 이 동 호

바이올린 양 경 아

하모니카 전 제 덕

피아노 임 효 선

소프라노 한 예 진

테너 김 지 호

재즈 콰텟 러브 레터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 MBC

문의 607-3111~3 부산시향, 607-3100 홍보마케팅부

입장권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BS 부산은행 전지점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2012.

12.27 (목)

8:00 PM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G.F. HANDEL'S ORATORIO MESSIAH



지휘 이철수



Sop. 한경성



Alt. 구은정



Ten. 박광하



Bass 유형광



Org. 임경희



부산시립합창단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입장료 2,000원 (균일)

주최 |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UKO United Korean Orchestra

한국음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문화재단

부산원음방송

BS 팝부산

Homeplus 장림점

사하인터넷뉴스 www.saha1news.co.kr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팝부산·부산은행 전 지점 나눔티켓

관람 | 초등학교 이상 가능 / 문의 : 051)220-5805

※ 스텝 : 무대감독 전광수, 음향감독 이광섭, 조명감독 오종영

본 공연은 2012년 부산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시행됩니다.

이것이
사랑이
되었습니다

2001년 초연 이래 11년간 2,500회
80만 관객을 동원한 화제작!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A Dwarf who loved Snow White



2012. 12. 18(화)~30(일)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평일 오후 19시30분 / 토,일,25일 ▶ 3시, 6시 / 12월 24일 ▶ 5시, 8시
12월 19일 대선 ▶ 3시공연(26일 수요일 공연 쉼)



해운대문화회관
QR코드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ere,ndae** 해운대문화회관 후원 문화나눔 부권위원회
주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연아트** WooLee Art Show PLAY 제작 YOUTHEATER

입장료 R석 1층 30,000원 A석 2층 20,000원 예매처 BS BS팝부산 인터파크 티켓링크 문의 749-7651

원작 서광현 극작/연출 박률 음악 김태근 안무 조성주 무대디자인 도현진 의상디자인 김은영 기술/조명감독 정태진 음향감독 최봉석

2012

소년음악회

PROGRAM

- ▶ 창과 관현악 - 부산초연
 - 합합하는 각설이 / 편곡: 김만석 / 창: 남상일
 - 노총각 거시기가 / 작창: 남상일 / 작사: 김은경 / 편곡: 김만석 / 창: 남상일
-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하는 캐롤 모음곡
 - 연 날리기, 윷놀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루돌프 사슴코, 울면안돼, 페리즈라비다
- ▶ 성악창작곡 [서연가]
 - 작, 편곡: 이지영 / 소리: 박성희
- ▶ 사물놀이를 위한 국악관현악 [신모듬] / 작곡: 박범훈
 - 팽과리: 황영권, 장구: 김덕수, 징: 문상준, 북: 김민상

지휘 김철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지휘자)



· 협연



장구 김덕수
[(사) 사물놀이 한울림 예술감독]



소리 남상일
[국립창극단 단원]



소리 박성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전상철]

2012년 12월 27(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티켓 정보 _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주최 _ 부산광역시 | 주관 _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후원 _ BBS 부산불교방송

예매 _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전화예매는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만 가능)

공연문의 _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051) 607-3123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051) 607-3100

셔틀버스 운행 (무료) · 출발지: 대연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 08 커버스토리 | 부산시립교향악단 오페라 인 콘서트 '박쥐'
- 10 프리뷰
- 18 반갑습니다 | 영혼을 울리는 한국 최고의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
- 20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대화와 예술' 극단 고탄다단(五反田團)의 마에다 시로(前田司郎) _ 이홍이
- 24 클래식, 문학을 만나다 ② | 교향곡 '大地의 노래' (중) _ 이동신
- 26 불멸의 거장 - 시대를 앞서간 천재 백남준 ③ | 백남준의 미국 시대 _ 안소현
- 28 그림, 풍류를 만나다 ② | 남산한담도(南山閑談圖) 숲길 가다 늙은이 만나니 _ 변광석
- 30 그곳에 가면 | 배우터도 되고 놀이터도 되는 열린 문화공간 '주례문화O터'
- 32 우리는 문화가족 | 한국크로마하프예술협회
- 34 리뷰 |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 기념음악회 _ 박진홍
영화의 관객과 문화를 만드는 모퉁이극장 _ 김희진
- 36 테마가 있는 여행 | 위대한 예술가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문화예술의 고장 통영
- 39 CULTURE LIFE
- 62 나의 애청음반 | 겨울나무 _ 조영석
- 64 부산문화회관 소식
- 65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2년 12월호 통권 252호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대연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2(야간) / Fax. 051-607-3109

발행인 | 최동환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2년 11월 25일

인쇄처 | 디자인글꼴 Tel. 051)636-1210 www.ggad.co.kr



창단 50주년 기념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OPERA IN CONCERT **박쥐**

창단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획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12월 7일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Opera in Concert 세번째 시리즈 '박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Opera in Concert'는 기존 오페라의 무대세트 등 고가의 연극적 장치를 배제시키고 최소한의 소품과 의상으로 청중들에게 최고의 오페라 음악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무대로 2009년 푸치니의 '토스카'를 연주,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2009년 토스카, 2011년 라보엠에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이는 'Opera

in Concert 박쥐(독일어: Die Fledermaus)'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작곡한 3막의 희극 오페레타로 재미있는 스토리와 슈트라우스의 음악적 특징인 왈츠와 폴카가 풍부하게 묻어나는 신나고 활기가 넘치는 작품이다. 19세기 후반, 당시의 유럽을 신나고 활기차게 묘사한 '박쥐'는 아이젠슈타인 남작과 남편의 재력에 탐이나 결혼한 아내 로잘린데, 연예계 진출의 야망에 사로잡힌 하녀 아델레 등이 서로 거짓말을 하고 오를로프스키 공작의 파티에 참석하며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렸다.

세계의 오페라 극장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1



● 사진은 2011년 오페라 인 콘서트 '라보엠'

일 화려한 춤과 음악, 유머 넘치는 대사들로 한 해의 근심과 고통을 털어 버리기 위해 오페레타 '박쥐'를 특히 많이 무대에 올리기도 한다. 제1막은 아이젠슈타인 남작의 방, 제2막은 오를로프스키 공작의 무도회장, 제3막은 감옥에 있는 사무실을 무대로 최고의 성악가들이 2시간 동안 즐거운 오페라 여행을 펼친다. 이번 무대를 위해 중국 수도사범대학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난카이대학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종신 지휘자로 활동 중인 진 강이 조연출로, 밀라노 스칼라 극장 아카데미 합창단 피아니스트, 현대음악 앙상블 피아노와 첼발로 주자, 국립오페라단 수석 피아니스트를 역임한 손소향이 오페라 코치로 참가하여 오페라 인 콘서트의 완성도를 높여준다.

중국 음악계에서 '재능있는 젊은 지휘자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연습시키는데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정확한 이해와 정통한 지휘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진강은 토스카, 라보엠, 나비부인, 피델리오,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등 여러 오페라의 리허설에서 리 신차오의 부지휘자로 활동한 바 있다.

2012년 'Opera in Concert 박쥐'를 보는 또 하나의 재미는 부산의 정서가 녹아있는 부산판 박쥐이다. 아내 로잘린데를 비롯해 대부분의 배역들을 부산의 성악가들로 캐스팅, 친숙한 부산의 텍스트로 연기한다.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페스카라 음악원 최고 점수로 Diploma 및 조교과정 Diploma를 획득한 소프라노 오미선이 아이

젠슈타인의 아내 로잘린데로, 부산대학교와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칸타빌레남성앙상블, 부산성악아카데미, 독일가곡연구회 회원으로 있는 테너 이은민이 아이젠슈타인 남작으로 출연한다. 독일 뮌헨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오페라과를 최연소로 수석졸업하고 독일 자르브뤼켄 국립극장 오페라단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부산출신의 소프라노 강민성이 로잘린데의 하녀 아델레로,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베켄바흐 국제콩쿠르 성악부문 1위 등을 수상한 바리톤 김종화가 남작의 친구 팔케박사로 열연한다. 또 바리톤 김관현이 형무소 소장 프랑크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김관현은 독일 쾰른국립음대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독일 아헨과 뒤셀도르프 국립오페라극장 전속 솔리스트로 있으면서 200회 이상 오페라 공연을 가진 바 있다.

그 외 국립 오페라 합창단 수석을 역임하고 I-Solisti Seoul 단원, 현대성악앙상블 단원, La Luce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테너 최상배가 로잘린데의 연인 알프레트로, 메조소프라노 강희영이 러시아 대귀족 백만장자 오를로프스키 공작으로, 테너 이효석이 남작의 변호사 블린트로, 소프라노 강태경이 아델레의 여동생 이다로, 2011년 부산연극제 우수연기상을 수상한 배우 배진만이 프로슈로 오페라 무대에 오르고 부산오페라합창단 단원들이 파티 참석자들, 공작의 하인들로 참가,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일시 12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A석 10,000원 · B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소프라노 오미선

테너 이은민

소프라노 강민성

바리톤 김종화

바리톤 김관현

Preview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



연출 김순영

● 2012년 신임예술감독 문석봉을 영입,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던 부산시립극단이 2012년 활동을 마무리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로 부산 연극애호가들과 만난다.

일본 작가 쓰쓰미 야스유키(堤 泰之)의 작품을 극단 미연 대표 김순영이 번역, 각색한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는 화장터 풍경을 배경으로 한 휴먼드라마이다. 2008년 오정국의 연출로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를 한 차례 무대에 올린 바 있는 부산시립극단은 이 작품으로 2008년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에 참가해 많은 박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무대는 번역, 각색자인 극단 미연 대표 김순영이 직접 연출을 맡아 우리의 감성을 일깨워준다.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의 배경은 화장터이다. 벚꽃이 만발한 어느 봄날의 화장터에 흰 수의를 입은 두 남자가 각자 소파에 앉아 꽃잎이 부서지는 바깥 세상의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급작스런 사고로 죽음을

맞이한 김진우와 기영식. 자신들의 육신이 태워지기를 기다리며 못내 아쉬운 듯 이승에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눈다. 이것 또한 인연이 되어 두 사람은 아득하고 긴 여행이 될지도 모르는 저승길의 길동무가 되기로

한다. 김진우와 기영식의 유족들은 고인의 관이 가마 속으로 들어가자 슬픔에 잠긴다.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는 그동안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갈림길, 산자와 죽은 자의 유희를 통해 따뜻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동양적 사고(상상력)와 가치관으로 관객들에게 친밀감과 극적 흥미를 더해준 바 있다.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극단 단원들 외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극단 미연의 배우로 서울연극제 연기상을 수상한 박호석, 남승화가 객원출연, 작품의 활력을 전해준다.

주요 배역으로는 이돈희가 김진우로, 황창기가 기영식으로, 주은실이 김진우의 어머니 이점순, 이현주가 김진우의 처 박정미로, 염지선이 기영식의 애인 강미희로 열연하고 극단 미연의 박호석이 기영식의 딸 기선자로, 남승화가 김진숙의 남편 마동일로 열연한다.

부산시립극단 단원



일시 12월 11일-13일 화-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균일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극단(607-3151)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5회 정기연주회 및 부산시립합창단 제144회 정기연주회

2012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지휘 리 신차오



소프라노 박은주



메조소프라노 왕 홍아오



테너 슈에 하오인



베이스 양희준

테너 슈에 하오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베이스 양희준 등 정상급 성악가가 솔로리스트로 출연, 2012년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 중국 출생의 메조소프라노

● 2012년 창단 50주년, 창단 40주년을 다양한 활동을 펼친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이 2012년 활동을 마무리하는 '2012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로 청중들과 만난다.

2012년 송년음악회의 레퍼토리는 송년프로그램의 대명사로 전 세계에서 연주되고 있는 베토벤의 제9번 교향곡 '합창'. 베토벤이 청력을 완전히 잃고 청각장애인이 되었을 무렵 작곡한 교향곡 '합창'은 인간이 가진 모든 희노애락에 대한 깊은 공감과 해석, 베토벤의 철학과 인생관 등이 담긴 베토벤 최고의 역작이다.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의 지휘, 부산시립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과 울산시립합창단의 합창과 함께 세계적인 소프라노 박은주와 중국 출신의 메조소프라노 왕 홍아오, 테

라노 왕 홍아오는 2004년 대만국제성악콩쿠르 1위와 청중상, 2008년 중국국제성악콩쿠르 3위를 차지하고 모차르트 '티토황제의 자비'에서 '안니오', 베르디 '라트라비아타'의 '플로라', 비제 '카르멘'의 '메르세데스', 로시니 '신데렐라'의 '안젤리나'와 '세비야의 이발사'의 '로시나' 등 다양한 오페라 무대 활동을 펼쳐왔다. 테너 슈에 하오인은 제4회 중국인민외국곡부르기 TV경연대회와 젊은 보컬가수선발 TV경연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며 중국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러시아, 핀란드, 캐나다, 동남아시아 등을 주관하는 중국외무부의 후원 하에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슈에 하오인은 그동안 안토니오 파파노, 미코 프랑크, 베르나르트 하이팅크, 마우리치오 베니니, 마크 엘더, 니콜라 루이스티 등 저명한 지휘자들과 함께 공연했다.

일시 12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A석 10,000원 · B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소프라노 조수미 *La Luce*



● 1986년, 이태리 트리에스테의 베르디 극장에서 오페라 <리골렛토>의 '질다' 역으로 국제 무대에 데뷔한 이래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산문화회관 초청으로 12월 20일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2011년 제11회 카자흐스탄 동계아시안게임의 개회식에서 'Angels pass away'를 연주하며 인연을 맺은 러시아 명 작곡가 이고르 크루토이(Igor Krutoy)가 조수미를 위해 헌정한 13곡들을 모은 앨범 'La Luce'의 전 세계 동시 출판을 기념한 이번 무대는 러시아의 깊은 서정과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내재한 한 편의 환상 동화를 연상케 하는 비밀스러운 분위기로 꾸며진다.

러시아 출신의 작곡가 이고르 크루토이는 어린시절 선물받은 아코디온에서 영감을 얻어 음악공부를 시작, Kirovograd music college를 거쳐 Nikolaev State Pedagogical Institute at conductor에서 합창지휘를 전공했다. 영화음악, TV시리즈 프로듀서, 작곡가로서 많은 활동을 해온 크루토이는 특히 러시아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바리톤 드미트리 흐보로스토프스키와의 음반 작업, 영화 <눈의 여왕>의 OST 등을 작곡하며 더욱 명성을 얻었다. 작곡가 이고르 크루토이는 세계적인 가수 라라 파비안, 바리톤 드미트리 흐보로스토프스키, 조수미 등과 함께 음반을 작업, 발매를 앞두고 있다.

이번 무대는 소프라노 조수미를 비롯해 방성호가 지휘하는 50인조의 웨스턴심포니오케스트라, 광명시립합창단,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팬텀'으로 사랑받은 뮤지컬 배우 윤영석이 특별출연하고 대형 스크린과 SHOW LED Curtain을 이용한 이미지 구성, 다양한 색상을 결합한 조명과 무대장치로 예술적이고 섬세한 감성의 무대를 열어준다.

'라 루체(La Luce)' 공연은 소프라노 조수미의 지난 25년간의 국제무대 경험을 스토리로 풀어내는 작업으로 진행된다.

추계예술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서울시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한 윤영석은 오페라 무대가 아닌 뮤지컬 무대에 도전,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팬텀', '라 트라비아타'의 '알프레도', '와이키

일시 12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30,000원 · S석 110,000만원
A석 80,000만원 · B석 60,000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1. 지휘 방성호
2. 웨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3. 윤영석
4. 광명시립합창단

■ 프로그램

세속 칸타타 <카르미나 부라나> 중
'오, 운명의 여신이어'
천사는 떠나가고(Angels pass away)
달의 아들(Hijo de la Luna)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밤의 노래'
달까지 날아 갈게요(Fly me to the moon)
오페레타 <메리 위도우> 중
'그대를 사랑해'
발레 <숲속의 잠자는 미녀> 중 '왈츠'
오페라 <팔스타프> 중 '산들바람이 부는 숲 속으로' 등 수곡

※이 프로그램은 주최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키 브라더스'의 '강성우', '명성황후'의 '고종' 으로 출연하며 뮤지컬 가수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윤영석은 제8회 한국뮤지컬대상 남우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독창회는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온 웨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수준높은 연주실력과 음악적 감수성으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지휘는 웨스턴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수원시립교향악단 부수석, 수원유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지휘자 방성호가 맡아 '라 루체(La Luce)'로 밝고 따뜻한 감성을 관객에게 전한다.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 II - Yesterday

연인과 함께하는 특별한 이브의 밤 7080 콘서트



김세환



남궁옥분



추가열



이치현

●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 II -Yesterday로 아이돌 문화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7080세대들에게 콘서트 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해 온 부산문화회관에서 2012년 크리스마스 이브, 7080 세대들에게 추억과 낭만을 선사하는 '7080 콘서트' 무대를 연다.

이번 콘서트는 1972년 제8회 TBC 방송가요대상 신인상을 시작으로, 제10회 TBC 방송가요대상 최우수 남자가수상, MBC 10대 가수상 및 TBC 7대 가수상, 연예대상 등을 수상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세시봉의 막내 가수 김세환을 비롯해 1970~80년대 대한민국의 포크송을 널리 대중화 시킨 남궁옥분, 심금을 울리는 미성의 목소리로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추가열, 오빠부대를 몰고 다니는 이치현이 출연, 따뜻하고 아름다운 추억의 무대를 선사한다.

환갑을 훨씬 넘긴 나이에도 음악에 대한 열정과 풍부한 감성으로 대중들과 만나고 있는 김세환은 이번 무대에서 '사랑하는 마음보다' '길가에 앉아서' '좋은 걸 어떻게' 등 주옥같은 그의 히트곡을 들려 줄 예정이다.

1979년 '보고픈 내친구'로 데뷔한 남궁옥분은 1981년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로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 1982년 MBC 10대 가수상, 1982~83년 KBS방송가요대상 10대 가수상을 수상한 남궁옥분은 이번 무대에서 그의 히트곡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를 비롯해 '꿈을 먹는 젊은이' '에헤라 친구야' '재회' 등과 캐롤곡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 II -Yesterday의 첫 주인공으로 부산문화회관 공연을 가진 바 있는 추가열은 2002년 1집 앨범 '나 같은건 없는 건가요'로 데뷔, 그동안 5장의 정규 앨범을 발매하며 미사리의 전설로 굴림해왔다. 2010년 제16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남자 포크상을 수상한 추가열은 SM기획 프로듀서로, 동신대 실용음악과 교수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부산무대에서는 그의 대표곡 '나 같은건 없는 건가요', '행복해요' 등 주옥같은 그의 히트곡들을 들려준다.

이치현은 그의 밴드인 벗님들과 함께 부산을 찾는다. 1980년대 3인조 그룹 '벗님들'로 활동을 시작한 이치현은 '당신만이' '그대' '다 가기전에' '추억의 밤' 등을 히트시키며 본격적인 콘서트 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부산 무대에서는 '집시여인'을 비롯해 '당신만이' '다 가기전에' '사랑의 슬픔' 등으로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일시 12월 24일 오후 8: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7)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65회 정기연주회

2012 송년음악회



지휘 김철호



장구 김덕수



소리 남상일



소리 박성희

● 2012년 한 해를 보내는 길목, 우리소리 우리가락으로 한해를 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2012년 송년음악회가 12월 2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특히 외래문화 홍수 속에서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의 문화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음악의 참 예술성을 느낄 수 있는 창과 국악관현악, 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 성악창작곡 등으로 구성된 다이나믹하고 생동감 넘치는 명인, 명창의 무대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이번 무대를 위해 사물놀이 김덕수 명인, 국립창극단 소리꾼 남상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소리꾼 박성희,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국악계의 젊은 스타소리꾼 남상일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을 졸업하고 광주 남도예술제 전국판소리경연대회 장원, 경주 신라문화제 전국국악경연대회 최우수상, KBS국악대경연 대상 등을 수상했다. 2003년 한

국예술종합학교 졸업과 동시에 국립창극단 최연소 단원으로 입단한 남상일은 이번 부산 무대에서 '힙합하는 각설이'와 '노총각거시기가'를 부산 초연한다. '장타령'의 현대적인 이름인 '힙합하는 각설이'는 시골장에서 각설이패들이 구걸을 하며 부르는 민요의 일종으로 '각설이 타령' 또는 '품바타령'이라고도 한다. 전라도 시골에 사는 노총각이 색시감도 구하고 일자리도 구하고자 상경해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아니리, 소리의 전통 판소리 방식으로 풀어내는 '노총각 거시기가'는 남상일이 직접 작창한 판소리로 김만석이 국악관현악과 어우러지도록 편곡, 전국적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송년음악회의 대미를 장식할 김덕수 명인은 부친의 인도로 어려서부터 장고를 다루기 시작, 1959년 불과 일곱 살의 어린나이에 전국농악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장고의 신동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978년 '공간사랑'에서 김용배·이광수·최종실과 함께 팽과리·징·장구·북만으로 연주회를 개최하며 처음으로 '사물놀이'를 선보였던 김덕수는 1993년 한울림예술단을 창단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전통을 변용하여 다양한 장르와의 퓨전 공연을 시도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원초적인 생명력과 움직임을 표출하는 사물놀이의 다채로운 장단변화를 국악관현악의 풍성한 가락과 결합시킨 박범훈 곡 '신모듬'으로 부산 국악애호가들에게 흥겨운 무대를 열어준다. 김덕수 명인 외 한울림예술단 단원 김민상(북), 황영권(팽과리), 문상준(징, 팽과리)이 출연한다.

일시 12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3)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2012 부산문화회관 제야음악회



지휘 이동호

● 특별한 제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변함없는 인기를 얻고 있는 '2012 제야음악회'가 12월 31일 오후 10: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제주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이동호의 지휘,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 피아니스트 임효선, 소프라노 한예진, 테너 김지호의 협연, 지성훈의 사회로 특별한 제야무대를 선사한다.

이번에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봉을 잡는 지휘자 이동호는 1988년부터 약 9년간 마산시립교향악단 제3대 상임지휘자, 1992년부터 6년간 경남오페라단 초대지휘자를 역임했다. KBS교향악단, 서울시향, 코리안심포니, 강남심포니, 충남교향악단, 수원시향, 인천시향, 대전시향, 성남시향, 대구시향, 부산시향, 광주시향 등 국내 주요 교향악단과 폴란드 키엘체 필하모닉, 불가리아 바르나 필하모닉, 러시아 필하모닉, 루마니아 블랙시 필하모닉, 독일 슈만 심포니, 헝가리 사바리아 심포니, 불가리아 소피아 심포니, 체코 프라하 심포니, 체코 오스트라바 필하모닉 등 세계 유수의 교향악단을 객원 지휘한 이동호는 스메타나 연작교향시 '나의 조국' 전 6곡 국내 초연(2004)을 시작으로 브루크너 교향곡 전 11곡 국내 교향악단 최초 완주 및 실황음반 등재 완료(2004~2007), 시벨리우스 교향곡 전 7곡 국내 교향악단 최초 완주(2008~2009)를 거쳐 현재 말러 교향곡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는 서울예고를

거쳐 맨해튼 음대, 메릴랜드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귀국,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UBS Verbier Festival Orchestra 단원으로 James Levine, Charles Dutoit와 아시아, 유럽 투어 등을 하며 오케스트라와 실내악 활동 또한 왕성하게 하며 음악적인 폭을 넓힌 양경아는 예술의전당 주최 유망신예 초청 독주회, 부산문화방송 주최 우수신인연주자 초청독주회 등 다양한 초청무대를 가지기도 했다.

영혼을 흔드는 한국 최고의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은 2004년 말 첫 연주음반을 낸 뒤 '하모니카 붐'을 일으키며 한국 대중음악계에 혜성처럼 떠올랐다. 그의 데뷔음반은 언론과 평단으로부터 한국 대중음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와 함께 '하모니카의 재발견' '영혼의 연주' '올해의 앨범' 등의 극찬을 받았으며, 2005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재즈 & 크로스오버' 부문을 수상했다. 2012년 5월 국내 하모니카 연주자로서는 처음으로 60인조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단독 콘서트를 펼쳐 언론의 집중적 조명을 받은 바 있는 전제덕은 스승도, 악보도 없이 오로지 청음에만 의지해 피나는 노력으로 '하모니카 마스터' 자리에 올랐다. 유명 가수들이 가장 함께 작업하고 싶은 뮤지션으로도 알려진 전제덕은 그동안 박진영, 이승철, 이수영, 조성모, 김범수, 다이나믹 듀오, 박정아, 동방신기, 조규찬, 이적 등 많은 스타들의 앨범에 참가하며 아름다운 하모니카 선율로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왔다.

일시 12월 31일 월요일 오후 10: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제야음악회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 피아니스트 임효선은 2007년 세계 3대 음악 콩쿠르의 하나인 '퀸 엘리자베스 피아노 콩쿠르'에서 5위로 입상하여 세계무대에 임효선을 각인시켰다. '깊이 있고 지적이면서도 열정을 갖춘 피아니스트'로 평가받고 있는 임효선은 2003년 비오티 국제 콩쿠르에서 2, 3위 없는 1위와 특별상, 청중상을 동시에 수상했으며, 2005년에는 4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베토벤 비엔나 국제 콩쿠르 입상, 베토벤 피아노 소타나 Op.111로 후기 소나타 특별상, 로스앤젤레스의 KIMF 국제 콩쿠르, 오벌린 국제 콩쿠르, 주니어 쇼팽 콩쿠르 등에서 1위, 힐튼헤드 콩쿠르 특별상을 수상했다. 임효선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커티스음대의 총장 게리 그라프만의 수제자로 발탁되어 페스토라치 프라이즈를 수상했고, 2004년 커티스음대를 졸업하고 유럽으로 건너가 이탈리아 이몰라 음악원에서 석사,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에서 최우수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쳤다. 현재 아글레 무지카 매니지먼트의 소속으로, 스페인 리세우 콘서바토리 초빙교수와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제야음악회를 통해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 소프라노 한예진은 이탈리아 Milano G. Verdi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이탈리아 Marsala 국제 콩쿠르 우승, Merano 국제 콩쿠르 우승 및 심사위원장 특별상, 음악평론상, Belcanto 콩쿠르 우승, Padova 국제 콩쿠르 우승 등 세계 유수 콩쿠르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친숙한 테너 김지호는 쿠바국립오페단 초청 오페라 '팔리아치' (하바나 대극장), 제1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아이다', 경주 예술의 전당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주역, 국립오페단 50주년 기념 창작 오페라 갈라 '호동왕자' 등으로 열연하는 등 다양한 무대 활동을 펼쳐왔다.

2012년 제야음악회 레퍼토리는 엘가 '위풍당당행진곡'을 시작으로 양경아의 비에나프스키 '전설', 전제덕이 들려주는 '브라질풍의 바흐 제5번 중 아리아(칸틸레나)', 영화 '셀부르의 우산' 중 '당신을 기다릴게요' 등 감미로운 하모니카 선율, 임효선의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소프라노 한예진, 테너 김지호가 들려주는 오페라 아리아.

화려한 출연진들의 특별한 음악 선물 외 제야음악회가 자랑하는 재즈퀸텟 '러브레터'가 들려주는 휴식시간 로비콘서트와 와인과 함께 하는 다과회, 새해 소망엽서쓰기는 올해에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하모니카 전제덕



바이올린 양경아



피아노 임효선



소프라노 한예진

테너 김지호

반갑습니다



영혼을 울리는
한국 최고의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

영혼을 울리는 한국 최고의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이 2012년 제야음악회를 위해 부산을 찾는다. 2004년 말 첫 연주음반을 출발한 전제덕은 국내에 '하모니카 붐'을 일으키며 한국 대중음악계에 혜성처럼 떠올랐다. 당시 그의 데뷔음반은 언론과 평단으로부터 한국 대중음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와 함께 '하모니카의 재발견' '영혼의 연주', '올해의 앨범' 등의 극찬을 받으며, 2005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부문을 수상했다.

“영혼을 울리는 연주자라는 극찬이 정말 부담스러워요. 제 연주를 듣는 분, 공연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음악을 전해드리고 싶은 제 마음이 전해져서 그런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생후 보름만에 찾아온 원인 모를 열병으로 시력을 잃은 전제덕은 7살이 되던 해 시각장애자 특수학교인 인천 혜광학교에 입학해 초중고 과정을 마쳤다. 혜광학교 교내 브라스밴드에서 북을 연주하면서 음악과 처음 만난 전제덕은 중학교 1학년때 학교 재정문제로 브라스밴드가 해체되면서 사물놀이에 입문해 장구채를 잡았다. 고등학교 1학년때 ‘세계 사물놀이겨루기 한마당’에 출전하여 놀라운 연주로 예정에도 없는 특별상을 받았으며, 이후 ‘다스름’이란 팀으로 대상을 수상하고 MVP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제덕은 10여년간 장구를 치면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쳤지만 장구로 표현하지 못한 멜로디에 대한 갈증을 느꼈다. 그러다 우연히 라디오방송에서 들은 Toots thielemans(투스 틸레망)의 연주를 듣고 ‘하모니카’에 매료되어, 독학으로 하모니카 주법을 터득, 우리나라 최고의 연주자가 되었다.

“처음 들었던 하모니카 소리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 전율이 일었다 할까요. 처음에는 그 소리가 하모니카 인지도 몰랐습니다. 색소폰일까, 정말 신기해서 물었죠. 학교 앞 문방구에서 흔히 쉽게 만나던 하모니카가 가진 무한한 매력을 그때 처음 발견한 것이죠.”

입술이 부르트며 한 달에 하모니카 하나를 못 쓰게 할 정도로 연습했고, CD 하나를 1,000번 이상씩 들어 CD가 망가지기까지 했다는 전제덕의 일화는 잘 알려져있다. 타고난 음악적 재능과 피나는 노력으로 현재 국내 유일의 재즈하모니카 연주자로, 세계적인 재즈하모니카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제덕은 재즈 연주자들 사이에서 오래전에 이미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조성모, 박상민, 조규찬, 이적, BMK, 김정민 등 많은 대중가수들도 세션으로 그를 초청해 음반 작업을 했고 영화 ‘퐁개’ ‘튜브’ 등 많은 OST 음반에도 참가했다. 대중들에게는 그의 음악과 인생을 주제로 한 KT TV광고 ‘꿈을 이루는 인터넷’ 모델로 출연해 전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전제덕이 2008년에 발표한 스페셜 앨범 ‘Another Story-한국사람’은 주옥같은 한국 가요의 명곡들을 전제덕 특유의 재즈적 감성으로 재해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12년 5월에는 국내 하모니카 연주자로는 처음으로 60인조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단독 콘서트를 펼쳐 언론의 집중적 조명을 받았다. 부산시민들에게는 2007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축하 연주자로 무대에 오른 전제덕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니코네가 참석했던 행사라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연주 시작 후 비가 와서 아쉬웠지만 좋은 분위기, 열정적인 부산시민들을 만났던 기억이 선합니다.”

전제덕은 이번 2012 제야음악회에서는 빌라-로보스 ‘브라질풍의 바흐 제5번’ 중 ‘아리아’와 영화 ‘셀부르의 우산’ 중 ‘당신을 기다릴게요’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2012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희망을 담은 무대인만큼 편안하고 감미로운 하모니카 선율을 선사하고 싶다는 그는 다이내믹한 부산의 기운을 한껏 받아 2013년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대화와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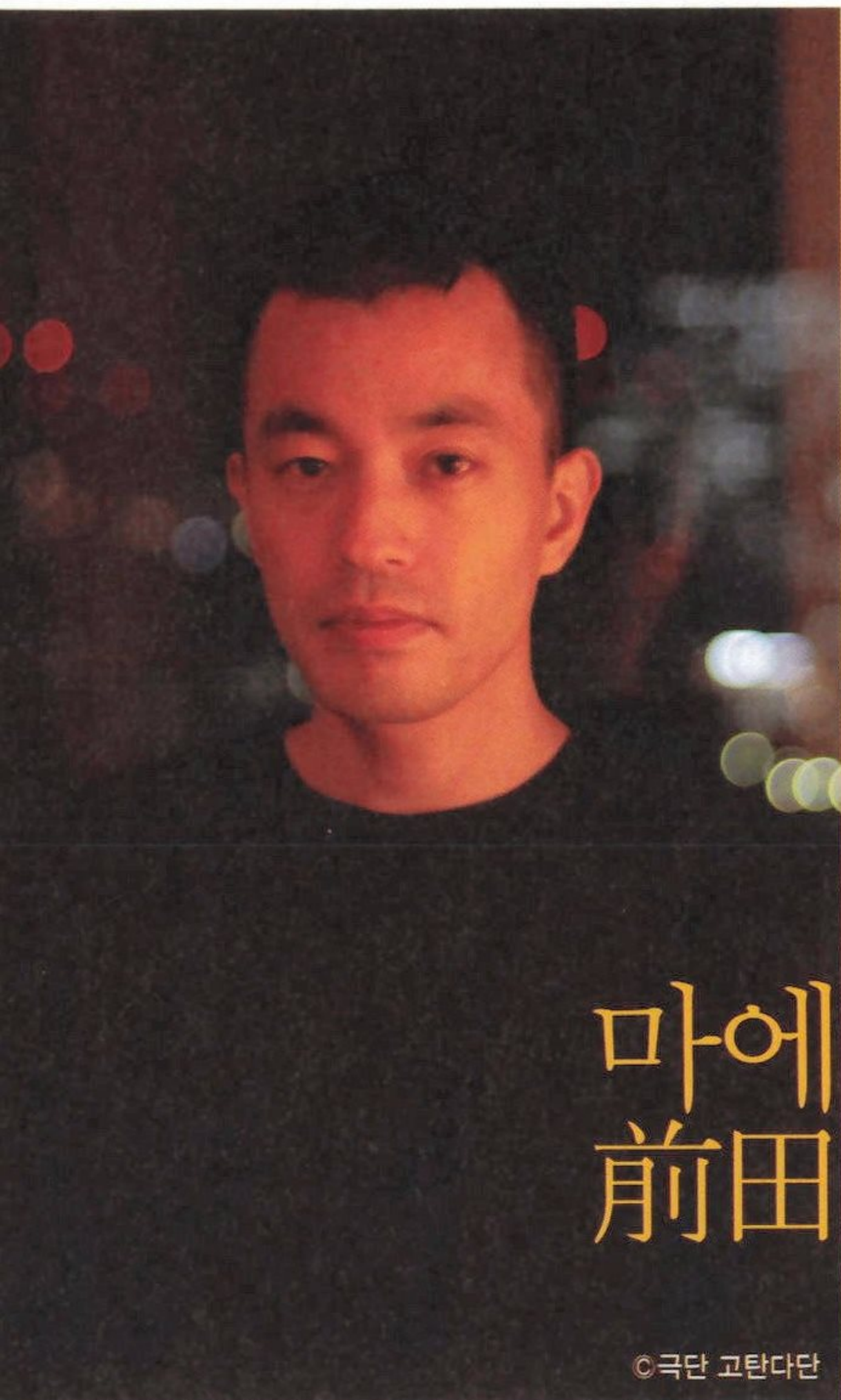
극단 고탄다단(五反田団)의 마에다 시로(前田司郎)

이홍이_오차노미즈 여자대학 박사과정, 희곡번역가



작가이자 연출가, 그리고 배우이기도 한 마에다 시로가 현재 유럽투어 중이다. 본인이 대표로 있는 극단 고탄다 단과 함께 <수테루 타비(Suteru Tabi)>를 공연하고 있는 것이다. 마에다 시로 작·연출, 또 출연까지 하는 이 작품의 여정은, 지난 10월 23일~24일 도쿄 고탄다에 위치한 소극장 '아틀리에 헬리콥터'에서 출발해, 10월 31일~11월 1일 스위스 루체른의 음악무용연극센터(Music Tanz Theatre Sudpol), 11월 3일~4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국립극장, 11월 8일~10일 프랑스 파리 가을축제(le Festival d'automne) 참가로 파리일본문화회관(Maison de la culture du Japon à Paris), 11월 14일 역시 파리의 퐁피두 센터로 이어졌다.





사실 이 작품의 해외공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벨기에에서 이미 공연되었고, 이 때 프랑스인 연출가 겸 배우 장 드 팡쥬(Jean de Pange)가 이 연극을 본 것을 계기로 마에다 시로와 장 드 팡쥬, 이 두 사람의 인연이 깊어져 지난 2011년에 합작작품 <언더스탠더블?(Understandable?)>을 제작했다. <언더스탠더블?>은 올해 9월 26일~30일 도쿄의 아틀리에 헬리콥터에서 또 한 차례 공연되었고, <수테루 타비>의 유럽투어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11월 15일~20일 프랑스 메스(Metz)지방에 있는 페아트르 뒤 솔시(Théâtre du Saulcy), 그리고 11월 21일에는 메스 형무소 공연을 거쳐, 11월 26일~27일 룩셈부르크의 국립극장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 작품은 단순히 두 사람 간의 합작이 아닌, 마에다 시로의 극단 고탄다단과 장 드 팡쥬의 극단 아스트로프(ASTROV)의 공동제작 작품으로 두 극단에서 각각 세 명의 배우가 참가해 총 여섯 명이 일어, 영어, 프랑스어를 사용해 원초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작품이다. 말이 서로 통하지 않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단순한 이야기를 기본 뼈대로, 이 작품은 커뮤니케이션이라

는 커다란 테마를 다루며 그 연장선으로 자막도 제공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다.

이젠 더 이상 두 개 이상의 언어가 쏟아지는 무대를 보는 일도, 유럽의 주요 연극제에서 아시아극단을 만나는 일도 놀랍지 않지만, 유럽 무대에서 무명에 가까운 일본작가의 작품이 거의 한 달 간 투어공연을 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양의 낯선 전통적 이미지나 자국의 희곡을 재해석한 작품들에 관심을 보였던 유럽이, 이제는 동시대 젊은 작가들에게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에다 시로는 1977년생으로 1997년 극단 고탄다단을 결성해, 일본에서는 소위 제로 세대, 즉 2000년대에 두각을 나타내며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한 젊은 작가에 속한다. <살아있는 자는 없는 건가?(生きてるものはいないのか)>(2008년)로 제52회 기시다 희곡상을, 소설 <여름 물의 인어(夏の水の半魚人)>(2009년)로 제22회 미시마 유키오 상을, NHK드라마 <쇼핑(お買い物)>으로 제46회 갤럭시 시상 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장르를 뛰어넘는 작가로 인정받고 있어서일까? 비슷한 세대 어떤 작가들보다도 그의 작품에서는 등장인물들 간의 치밀한 대화가 돋보인다.

이를 테면 <수테루 타비(すてるたび)>, 이 작품의 의미는 '버리는 여행'으로 그는 의도적으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한자를 쓰지 않고 음(소리)만을 나타내는 히라가나를 작품 제목으로 나열했다. 사실 이러한 표기법은 그의 다른 작품 속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한자를 함께 쓰는 일본어의 특징을 활용해, 그는 일상에서 우리가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할 때와 무심코 말을 내뱉을 때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의 제목처럼 <수테루 타비>는 공간도 시간도 인물의 설정도 모호하다. 무대장치라고는 작은 방에 의자 네 개가 전부인 데다가, 등장하는 배우도 네 명 뿐인데 그들에게는 이름조차 없다. 열어서는 안 되는 아버지의 상자, 아빠 몰래 키우던 강아지, 강아지의 죽음, 그리고 긴 기차 여행이 네 사람과 네 의자에 의해 그려진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 네 사람이 가지고 다녔던 것이 아버지의 시체가 담긴 관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관을 바다로 멀리 떠나보내려 해도 파도를 타고 계속 되돌아오는 데에서 이야기가 끝이 난다. 줄거리조차 정리할 수 없을 만큼 애매하고 비약이 난무하는 네 사람의 대화들은, 끝에 가서야 이것이 시공을 초월해가며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종의 치유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그의 다른 작품들, 예를 들어 <양배추류(キャベツの類)>, <오야스마나사이(おやすまなさい)>, <위대한 생활의 모험(偉大なる生活の冒険)>, <가난뱅이(びんぼう君)> 등은 모두 하나같이 기발한 소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위와 같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양배추류>는 머릿속에 벌레가 기억을 갉아먹고 있다고 하는 여자와 기억을 모두 양배추에 빼앗긴 남자가 등장한다. 두 사람은 부부로, 어딘지 알 수 없는 공간에서 자신들의 아이들을 만나 무의미하거나 희망적인 대화를 나누지만, 결국 두 사람은 영영 만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만다. <오야스마나사이>는 2인극으로, 제목의 의미는 잠을 자기 전 하는 인사말 '오야스미나사이'를 조금 바꿔 만든, 작가의 신조어다. 작은 방 이불 속에 있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잠을 자고 싶어하고 또 한 사람은 잠을 안 잤으면 해 끊임없이 떠든다는 내용이다. 또 <위대한 생활의 모험>은 대학을 졸업해 백수로 지내며 여자 친구 집에서 게임만 하며 살고 있는 서른 즈음의 남자가, 여자친구, 이웃, 그리고 얼마 전에 죽은 여동생과 나누는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역시 시공을 초월하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주인공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삶을 보여준다. 끝으로 <가난뱅이>는 집이 너무 가난해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좁은 방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숙제를 핑계로 집으로 데려온 같은 반 친구가 놀고 웃고 떠들면서 가난과 비극을 마치 판타지처럼 보여주는 작품이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을 늘어놓는 것 같기도 하지만, 곰곰이 보고 나면 연극의 기본은 역시 대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유럽이 그의 연극에서 흥미를 느낀 부분은, 다이렉트한 구석 하나 없으면서 소통하는 일본인의 대화법이 아닐까? 일본의 젊은 작가, 젊은 연출가들이 국내에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 가운데, 조곤조곤 세상을 향해 중얼거리고 있는 마에다 시로의 이야기도 언젠가 우리 무대에 서게 되길 기대해본다.

• 연극 '언더스탠더블?' 한 장면 ©극단 고탄다단



교향곡 ‘大地의 노래’ (중)

이동신_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대지의 노래’는 교향곡일까, 가곡일까? 6악장 중에서 중간 악장들만 보면 가곡집이라고 불러도 무리는 없다. 성악성부는 확실한 멜로디를 이루고 있으며, 2악장이나 5악장은 유절가곡이다. 그러나 1악장과 6악장은 가곡이라고 부르기 어려운데, 이는 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관현악에 대한 배려가 시에 대한 배려와 거의 동등하다. 이 두 악장에 삽입된 오케스트라 간주는 길고 독립적이며 소나타 형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소나타 형식을 갖춘 큰 규모의 첫 악장과 끝 악장이 있고, 느린 악장(2악장)과 스케르초(3악장)까지 있으니 교향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굳이 이 곡을 교향곡이라고 인정하기 위해 이런 전통적인 교향곡의 틀에 이 곡을 끼워 맞추는 필요는 없다. 이전에 작곡된 여덟 개의 교향곡을 보면 대부분 정형화된 교향곡의 틀을 의식하지 않았다. 물론 첫 악장에는 소나타 형식을 썼지만 그 뒤의 악장에 대해서는 교향곡이라는 형식에 구애 받지 않았다. 반대로 말러의 가곡집은 얼마나 교향곡과 흡사하던가. 그러니 말러의 교향곡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자유롭게 생각한다면 굳이 가곡집과 교향곡 사이에서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제 각 악장을 살펴보자.

1악장 현세의 고통을 토로한 술노래

“이미 술이 금잔에 부어졌지만, 마시기 전에 먼저 내가 그대에게 노래를 부르겠노라!
근심의 노래가 영혼 속에서 웃으면서 울려 퍼지리.
근심이 가까이 오면 영혼의 정원은 황폐해지고, 환희와 노래는 시들고 사라진다.
삶은 어둡고 죽음 또한 그러하다.
이 집의 주인이여! 그대의 지하실이 황금빛 술로 가득 차 있도다!
여기, 이 류트를 나는 내 것이라 부르리! 류트를 연주하며 술잔을 비우리.
이것들은 서로가 잘 어울리는도다. 적절히 가득찬 술잔은 지상의 부보다 더 가치있도다!
삶은 어둡고 죽음 또한 그러하다.
하늘은 영원히 푸르고, 땅은 오랫동안 인고하며 봄에는 꽃을 피우리.
그러나 인간이여 도대체 얼마나 살 것인가?
그대는 지상의 썩어져 가는 가치 없는 모두를 100년도 향유할 수 없나니!
저 아래를 보라! 무덤들을 비추는 달빛 속에 요괴 같은 형상이 웅크리고 앉아 있도다.
그것은 원숭이! 들어보라, 그의 울음소리가 삶의 달콤한 향기를 뚫고 지나가는 것을.
이제 술을 들어라! 이제 때가 왔도다. 친구들이여! 황금의 술잔을 깨끗하게 비우라!
삶은 어둡고 죽음 또한 그러하다.”

이 시는 이백(李白)에 의해 쓰인 작품으로 비극과 염세를 상징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말러는 이 악장을 소나타형식으로 구성했는데, 1절과 2절로 두 개의 주제를 가진 제시부를 만들고 3절은 발전부를 형성하며, 4절이 재현부를 이룬다. 재현부는 제시부의 주제 순서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고 제시부의 두 주제를 역순으로 배치하고 있다. 호른이 5음음계로 이루어진 팡파르를 힘차게 연주하는데 이는 이백의 호방함과 취기를 느끼게 한다. 실내악적이며 몽롱한 음색을 보여주는 전개부는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며 재현부는 다시 강하고 다이내믹한 모습을 보인다. 팡파르가 다시 울린 후 둔탁한 저음이 곡의 최후를 장식한다.



• 이태백

2악장 가을에 고독한 자

“가을 안개가 호수 위에 파랗게 일어나도다. 모든 풀들이 서리에 덮여 있으니,
사람들은 예술가가 아름다운 꽃 위에 옥가루를 뿌려 놓았다고 생각하도다.

꽃의 달콤한 향기는 사라지고 차가운 바람이 꽃줄기를 아래로 구부려 놓으니,
곤 시들은 연꽃의 황금 빛 잎사귀들이 물 위에 떠다니리.

나의 마음은 지쳤노라. 내 작은 등불은 탁탁 소리를 내며 꺼져가고, 나에게 잠을 재촉하도다.
나 그대에게 가노라, 사랑스런 휴식처여! 나에게 평안을 다오, 나는 위로가 필요하노니!

나는 고독 속에서 슬피 우노라. 내 마음 속의 가을은 너무 길게 계속되나니,
사랑의 태양이여, 더 이상 비추지 않으려는가, 내 쓰라린 눈물을 부드럽게 말려주지 않으려는가?”

이 시는 ‘겨울 나그네’ 처럼 쓸쓸함이 가득하며, 오보에 솔로로 시작되어 클라리넷, 오보에의 앙상블로 이어지는 음악 또한 말려가 남긴 음악 중에서도 가장 쓸쓸하게 마음을 파고든다. 관조적인 사운드가 한 폭의 동양화처럼 펼쳐진다. 4절의 ‘사랑의 태양’을 찬미하는 부분이 절정을 이루며 그동안 억제되었던 다이내믹은 포르티시모로 강해지고 목관과 하프는 정열적인 선율을 노래한다. 하지만 이 밝은 분위기는 곧 절망으로 바뀌고 쓸쓸히 사라지듯 음악은 끝이 난다.



• 말러

3악장 청춘에 대하여

“작은 연못 한 가운데에 초록빛과 하얀빛의 도자기로 만든 정자가 서 있도다.

호랑이의 등처럼 옥으로 만들어진 아치형의 다리가 정자로 이어져있도다.

작은 집 안에 친구들이 앉아 아름답게 차려입고, 술 마시면서, 잡담하고, 몇몇은 시를 짓고 있도다.

그들의 비단 소매는 뒤로 끌리고, 그들의 비단 두건은 목 뒤로 익살맞게 눌러져 있도다.

작은 연못의 고요한 수면 위로 모든 것들이 기이하게 비치도다.

정자 속의 모든 것이 거울에 비친 듯 거꾸로 서있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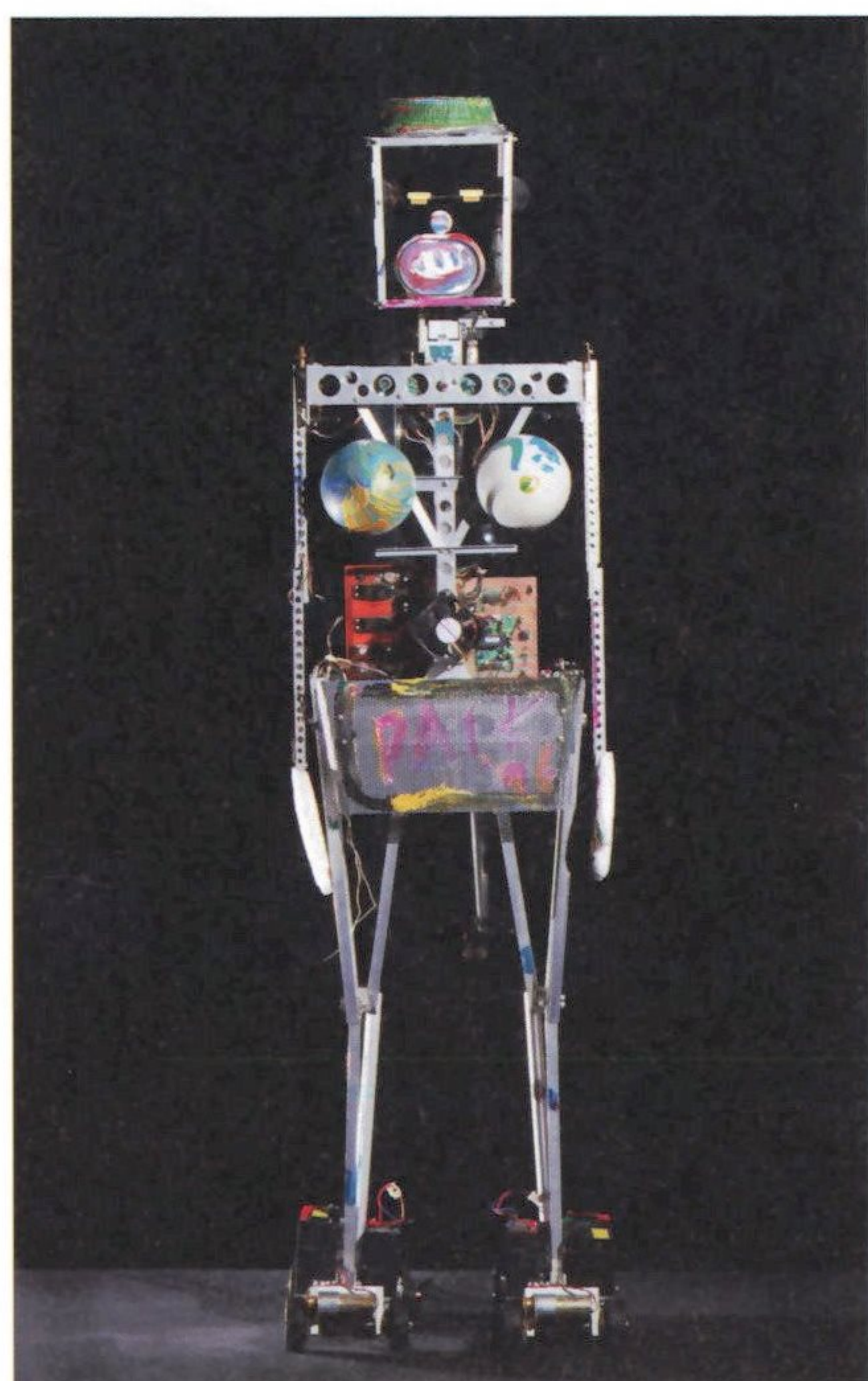
다리는 반달처럼 걸려, 활을 얹어 놓은 것처럼 서있도다.

친구들은 아름답게 차려입고, 술 마시며, 잡담하도다.”

역시 이백에 의한 시로, 앞의 악장과는 대조적으로 유유자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가을의 쓸쓸함이 지나가고 싱그러운 청춘의 계절이 도래함을 가벼운 터치가 돋보이는 스케르초 풍의 악장으로 묘사했으며, 가장 중국풍을 닮은 음악이기도 하다. 트롬본이나 팀파니처럼 든중한 악기는 사용되지 않고, 앞부분과 뒷부분에서는 더블베이스도 생략되어서 ‘저음이 없는 음악’이라 불리기도 한다. 마치 꿈결처럼 흘러가는 듯 한 악장이다.

백남준의 미국 시대

안소현_백남준아트센터 큐레이터



● 백남준, 로봇 K-456, 1964(1996), 70x55x185cm,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1963년 독일 부퍼탈에서 첫 개인전 <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을 개최한 백남준은 이듬해 미국으로 건너간다. 그가 독일을 떠나 미국으로 향한 이유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지만 아마도 그 많은 이유들이 그를 미국으로 끌어당겼던 것 같다. 먼저 2차대전 이후의 독일은 기술에 대해 낙관적일 수가 없었다. 나치 점령의 상처로 인간이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진 독일 사회에서 기술 발전이 가져다 줄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는 쉽지 않았다. 또한 여전히 보수적 성향이 강했던 독일의 당시 학계에서는 여전히 텔레비전 예술은 낯선 장르였고, 하물며 텔레비전으로 유구한 전통을 가진 음악을 대체하려는 시도는 무모한 것으로 보였을 수 있다. 당시 독일 미학의 대표적인 학자인 테오도르 아도르노가 재즈와 대중문화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을 보면 당시 상황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방송국과의 협력을 통해 텔레비전 아트 가능성 실험하려던 백남준에게 미국의 발전된 방송 시스템은 충분히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미국이 매력적인 것은 그곳에는 샬럿 무어만(Charlotte Moorman)이라는 중요한 협력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첼리스트였으면서도 현대음악의 다양한 파격적 실험에 주저하지 않은 무어만은 백남준을 미국으로 끌어당긴 가장 강한 자석이었을 것이다.

뉴욕으로 이주한 백남준은 제2회 뉴욕 아방가르드 페스티벌에서 <오리기날레>를 공연하고 페스티벌의 기획자이기도 했던 무어만과 함께 <로봇 오페라>를 공연하였다. 이 시기의 백남준은 그의 작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협력자와 기술적인 조건을 모두 얻었다. 무어만은 백남준과 함께 성적인 금기나 예술적 관성에 도전하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조직하였고, 또 그것을 통해 사회적 반향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연행되기까지 했던 <오페라 섹스트로닉>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과 나체 퍼포먼스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원하는 작품을 위한 기술적 조건들이 갖추어지기 시작했다. 백남준은 1965년 처음 출시된 개인용 비디오 카메라인 소니의 포르타팩(Portapak)을 곧바로 구입해서, 당시 미국을 방문하던 교황의 모습을 찍어 카페 오 고고에서 상영한 바 있다. 이 포르타팩의 등장은 일반적인 전파 수신장치로서의 텔레비전이 아니라 직접 영상을 찍고 편집할 수 있는 창조적 매체인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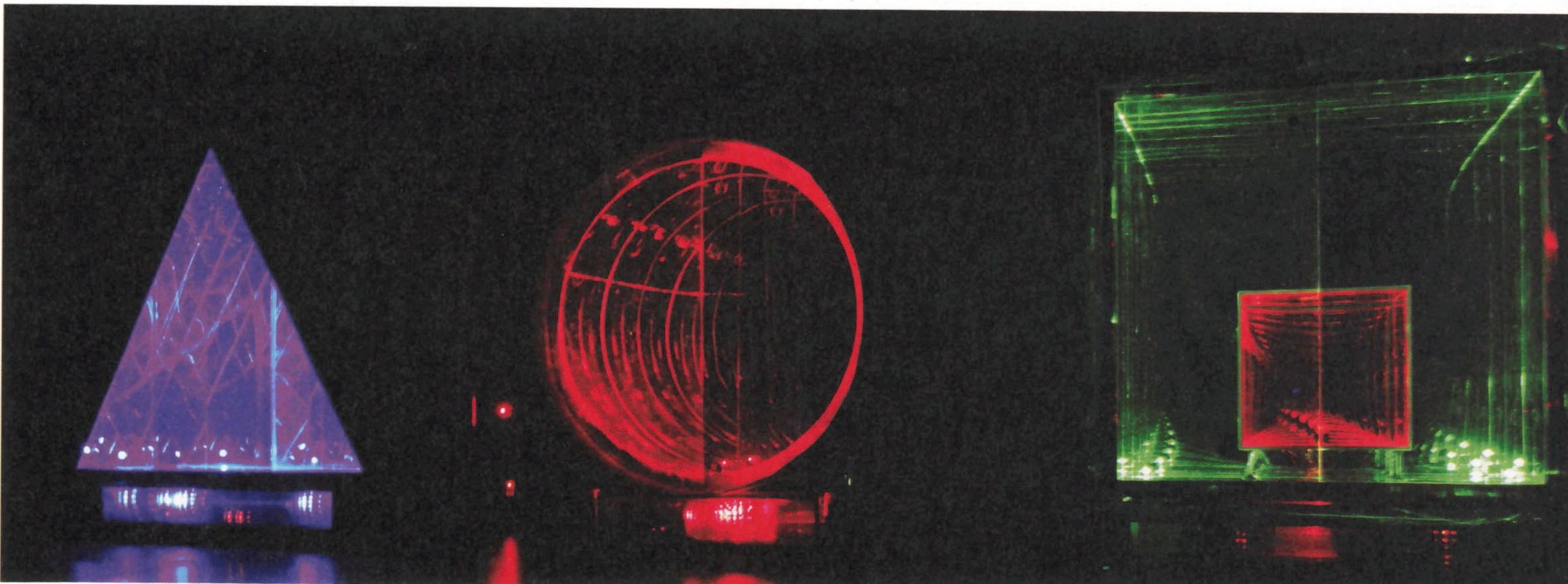
디오 아트로의 확장을 알리는 신호였다. 또한 1960년대 말에는 슈야 아베와 함께 개발한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로 인해 훨씬 다채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이른바 아날로그 영상 합성기로 색채의 조작과 변형 및 합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였다.

이후에도 백남준의 다른 작가와의 협력과 기술적 실험은 계속된다. 1977년 카셀 도큐멘타6에서는 인공위성 기술을 이용한 작품을 요셉 보이스와 함께 진행했다. 또 1982년 뉴욕 휘트니 미술관에서 열린 회고전에서는 '로봇 K-456'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에게 사망선고를 내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이것은 기술에 대한 백남준의 관점이 일방적으로 낙관적이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백남준은 예술이 미래를 예견하는 기능이 있음을 굳게 믿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조건 새로운 기술을 차용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예술이 미래의 기술발전이 가져다 줄 변화의 명암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커진다고 생각하였다.

백남준은 이후에도 여러 개의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1993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를 통해 '정보 초고속도로'라는 개념을 전개함으로써 기술발전이 힘입은 동서간의 화합과 소통이라는 주제에 천착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매체에 도전하던 백남준이 그의 말년에 관심을 가진 뉴미디어는 바로 레이저였다. '삼원소'와 같은 그의 레이저 작품들은 '빛'이 가진 에너지와 힘을 고스란히 드러냄으로써, 빛이라는 원형적인 대상을 첨단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예술로 진화시키려는 시도였다. 2006년 마이애미 자택에서 유명을 달리하기까지 백남준은 새로움에 대한 집착을 놓지 않았다. 인터넷이라는 주제도 실제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에게 좀 더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새로운 가능성의 매체로 탐구되었을 것이다. 그의 실험들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역사가 되어 가고 있지만, 새로운 매체의 가능성에 탐닉하고 그것을 다른 예술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과감하게 발전시킨 백남준의 행보는 여전히 신선하고, 자극적이다. 그리고 그의 다채로운 삶의 이력만큼 그의 작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시대를 앞서간 천재 백남준은 이번호로 끝을 맺습니다. 다음호는 드뷔시의 음악과 삶이 이어집니다.)

● 백남준, 삼원소, 1997-2000, 287x234x122cm,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남산한담도(南山閑談圖) 숲길 가다 늙은이 만나니

변광석_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사람은 나이를수록 조용함과 은거를 좋아한다. 세파에 시달리고 사람에 부대끼어 지쳤기에 그럴수도 있고, 또 연륜의 무게 만큼이나 세상을 편안하게 관조하려는 습관이 되기에 그런 모양이다. 하지만 요즘은 은거하기도 쉽지 않다. 그럴만한 자연적 경관과 공간이 쉽게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다. 옛사람들은 나이 지천명(知天命)이 되면 노인이라 했다. 김홍도는 오십 초로(初老)에 들면서 그림이 부드러우면서 원숙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도 은거하면서 지인들과 한담하기를 좋아하고 어느덧 세상을 관조하는 눈을 얻게 되었다.

오늘 감상할 작품은 김홍도의 <남산한담도(南山閑談圖)>, 종이담채, 29.4×42cm, 개인소장이다. 별채를 짓고는 뒷산에서 선비들이 한담하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똑같은 크기의 <해산선학도(海山仙鶴圖)>와 함께 하나의 화첩에 들어 있었다가 지금은 족자로 꾸며져 각각 남아있다. 그가 54세 때인 1798년에 변치화(卞穉和)라는 사람에게 그려준 것이다. 하지만 기증했던 동기나 화첩선물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림 전체를 약간 투박하고 거친 필법으로 간략하게 묘사했다. 배경인 산을 선묘법(線描法)으로 강조하고는 두 인물물을 돋보이도록 중앙에 배치했다. 숲속 공터에 앉은 공간이 마치 인왕산 자락의 송석원에 모여 중인들이 시회(詩會)를 열던 장소와 유사한 느낌이다. 화면 가운데에 마주 정좌한 두 선비가 한가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시간을 잊고 저절로 무위자연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겠다.

• <남산한담도>



중년에 도를 제법 좋아하여 / 中世頗好道
 만년에야 남산 기슭에 집을 지었네 / 晩家南山陲
 흥이 나면 늘 홀로 가노니 / 興來每獨注
 뛰어난 일도 공허함을 절로 알았네 / 勝事空自知
 우연히 숲속의 늙은이 만나 / 偶然值林叟
 담소하다 돌아갈 기약없고 / 談笑無還期
 가다가 물 다하는 곳에 이르러 / 行到水窮處
 앉아서 구름 이는 모습 본다 / 坐看雲起時 단옹(檀翁)

그림 왼쪽 위의 시를 읽어보자. 김홍도 자신을 비유했을 수도 있다.

제화시의 마지막에 '단옹'이라 하여 자신을 늙은이라 써고는 한담을 나누는 그림 속의 선비를 비유해 놓았다. 이제 세상을 관조할 노인이 되었다는 얘기다. 그 뒤에 '김홍도인(金弘道印)'이 새겨진 백문방인(白文方印)을 눌렀다. 왼쪽 끝에 '수(睡)'자를 따로 써놓은 것은 원문의 제2구에 만가남산 '수'(晩家南山'睡')로 잘못 썼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또 이 제화시는 김홍도와 동갑내기 절친한 벗 이인문(李寅文)의 <송하관폭(松下觀瀑)> 작품에도 등장한다. 물론 제화시는 김홍도가 썼다. 여기서는 '수(睡)'자를 바로 써놓았다. <남산한담도> 작품을 완성하고 7년 뒤인 1805년(을축)에 그린 것이다. 마침 두 친구가 환갑되는 해인지라 남다른 감흥이 있었을 게다. 비로소 이순(耳順)이 되었으니 이 세상 천지만물의 이치에 통하게 되고 귀로 듣는 모든 것은 이해하게 된다고 공자가 말하지 않았던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보자. 그림의 배경이 전자의 작품은 원경인데 비해 후자는 근경을 묘사했다. <송하관폭>은 경물 묘사가 제법 섬세하고 원숙한 필치다. 오른쪽에서 뿔어나온 노송이 굽은 줄기에다가 자연스럽게 늘어진 가지가 아주 예스런 기품이다. 이렇게 멋진 노송은 참으로 보기 어려운 신품(神品)이다. 뒤쪽 숲 위에서 폭포수가 시원하게 흘러내려 눈앞에 보이는 바위에 부딪혀 팔팔 소리를 낸다. 고목 아래 자리잡고 두 노인이 물줄기를 바라보며 자연스레 담소를 나누고 있다. 자연속에 살포시 안긴 남산초옥을 얘기하다 보니 한 생각이 다가온다. 조선후기 문사 이응희(李應禧)의 <옥담유고(玉潭遺稿)>에 보면 소박한 새 집을 짓고 즐거워하며 지은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선대의 터전 이어 새집을 지어 / 創屋承先業
 여덟아홉 칸 집채를 마련했는데 / 經營八九間
 겨우 무릎을 들여놓을 만하지만 / 纔我容膝好
 머리 부딪치는 고생은 면하겠구나 / 應免打頭艱

특히 제4구는 참 진솔하면서 재미있는 표현이다. 이 시는 지면상 뒷구는 생략했는데 주인공이 은거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가족의 삶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새 집을 마련하면 그 즐거움은 마찬가지로 모양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엄청난 격세지감을 느낀다. 대도시의 주거용이나 사무용 건물들의 초고층 경쟁이 치열하다. 오십층은 기본이고 백 몇십 층을 올라가는 것이 예사다. 무한한 토건경쟁으로 사람이 숨실 땅이 사라지고 있다. 이제 백층 옥상에 나무 한그루 심고 담소해야 할 판이다.



● <송하관폭도>



배움터도 되고 놀이터도 되는 열린 문화공간



부산 도심 곳곳에 방치되어 있던 빈 공간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주례문화O터. 올해 3월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사상구 주례2동의 상수도 폐가압장이 리모델링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탄생되었다. 이 곳은 현재 문화예술 분야 최초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부산노리단이 맡아 운영해오고 있다.

폐자재를 활용한 악기 제작과 공연으로 유명한 부산노리단은 소통과 공감에 기반한 관객참여형 공연과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사람과 지역, 문화가 함께하는 커뮤니티 디자인 제공 등 문화예술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주례문화O터는 이런 부산노리단의 문화 창작공간이자 주민들을 위한 생활문화 밀착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1층에는 에코 악기제작과 연습실, 창작 작품 전시장이, 2층에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서 있다.

○터

“주례문화○터에서 동그라미는 열린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동그라미에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
○터는 배움터도 될 수 있고 놀이터도 될 수 있습니다.”

주례문화○터 앞에 서자 건물 계단과 베란다를 따라 작은 화분이 줄지어 서있다. 이 화분들은 지난 3월 12일 개소식 때 찾아온 주민들에게 분양한 화분들로, 화분마다 주민들이 직접 쓴 개관 축하 메시지가 풍경처럼 달려있다. 활짝 열려 있는 1층 입구에 들어서자 손으로 그린 동네지도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부산노리단 단원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 그린 이 지도에는 ‘누구 누구’ 집이라는 깨알같은 별칭까지 적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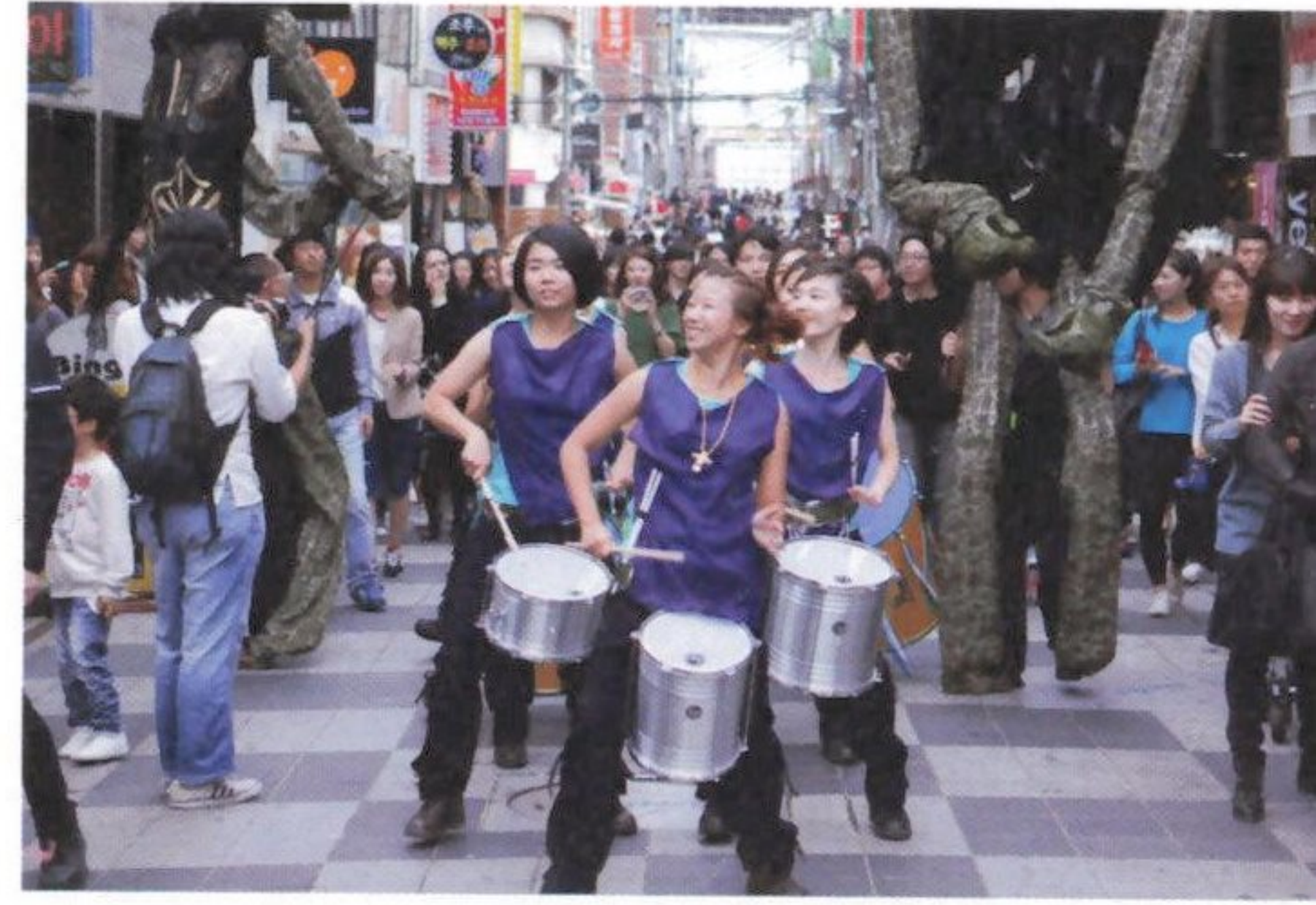
1층 공간에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악기들로 가득하다. 부산노리단의 악기는 자동차 타이어 휠이나 화공약품통, 지중매설관처럼 산업 폐자재나 생활용품 등 전혀 악기가 될 것 같지 않은 물건들로 제작한다. 마치 스위스의 긴 나팔인 알펜호른처럼 생긴 지중매설관을 팬플루트처럼 이어 붙인 ‘한내’를 비롯해 화공약품통을 드럼처럼 붙여 만든 ‘두둥’, 나무로 만든 마림바 ‘고몽’, 알루미늄판으로 만든 ‘은몽’ 등 그 이름도 특이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중앙에 딱하니 자리한 ‘스프로킷’. 마치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등장하는 하늘을 나는 성처럼 생긴 이 악기는 바퀴달린 수레에 총 8개의 악기가 실려있어 어디를 가든 가장 주목받는 악기이다. 주례문화○터를 방문하면 누구나 이 악기들을 직접 볼 수 있고 체험도 가능하다.

부산노리단은 주례문화○터에 입주하면서부터 지난 8월까지 ‘두레 in 주례’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두레 in 주례’는 주례동의 옛 이름인 두레에서 착안, 서로 돕는 두레처럼 문화로 화합하고 활력을 되찾자는 의미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왔다.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주례 별다방’. 매주 수요일 인근 주민들을 초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지역 사랑방 역할을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매주 별다방에서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악기체험과 즉석연주, 어르신으로부터 직접 듣는 지역이야기와 옛노래 교실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펼쳐졌다. 별다방에서 만난 주민들과 함께 기획하고 펼치는 소박한 지역주민잔치인 ‘○터 소박잔치’에서는 새싹심기, 수지침교실, 대형비빔밥 만들기, 열무김치 교실, 즉석주먹밥 만들기 등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재미나는 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밖에 지역 주민들이 세대별로 한자리에 모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네트워크 파티, 부산노리단의 공연을 지역주민들에 직접 선보이는 마을공연 등 문화예술로 세대와 지역을 이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입소문이 나면서 지역주민들 뿐 아니라 부산지역 단체들의 체험투어가 이어지면서 1,2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다녀갔다.

주례문화○터는 앞으로는 기존 냉정마을과 철길마을, 그리고 최근 들어서고 있는 아파트단지 등 주례2동을 구성하고 있는 마을을 문화예술로 통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문의_주례문화○터(325-0815, blog.naver.com/bsnoridan)



● 문화예술 분야 최초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부산노리단은 폐자재를 활용한 악기제작과 공연으로 유명하다.

● 주례2동의 상수도 폐가압장을 리모델링한 주례문화○터는 부산노리단의 문화창작 공간이자 주민들을 위한 생활밀착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크로마하프와 그 역사를 같이해온 한국크로마하프예술협회

마치 하프를 축소시킨 듯한 악기 크로마하프. 36개의 줄을 가진 악기지만 기타와 달리 한 줄만 짚어 음을 내기 때문에 다른 악기에 비해 비교적 배우기 쉬운 악기이다. 특히 가는 줄에서 흘러나오는 맑고 영롱한 소리와 연주자의 감성을 그대로 전달하는 감성적인 선율로 아마추어 연주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학술명으로 '오토하프(Outoharp)'라 불리는 크로마하프는 1881년 독일계 미국인인 짐머만이 고안해 만든 악기이다. 남부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지에서 연주되던 민속악기인 '찌터(Zither)'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 당시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처음 알려졌다. 1978년 삼익악기사에서 국내 최초로 크로마하프를 제작, 수출하다 1980년부터 국내에 시판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크로마하프 시대가 열렸다. 현재 크로마하프 동호인 수는 전국적으로 1,600여명, 이 중 400여명이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1981년 창단되어 크로마하프와 그 역사를 같이해온 한국크로마하프예술협회는 그동안 수많은 동호인을 양성하며 크로마하프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 한국크로마하프예술협회는 지난 1993년 국내 연주자로서는 최초로 크로마하프 독주회를 가졌던 크로마하프리스트 유경혜 씨가 창단했다.

부산을 기반으로 한 한국크로마하프예술협회는 부산지역 16개 각 구별 크로마하프협회를 비롯해 전국 20여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매달 2차례 해운대 김스뮤직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있는 한국크로마하프예술협회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다양한 초청무대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오고 있다. 피아노를 전공했던 유경혜 씨에게 크로마하프는 힘겹고 어려웠던 시절, 삶의 버팀목이 되어준 운명같은 존재이다. 그런만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크로마하프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른 악기에 비해 쉽게 배울 수 있는 생활악기다 보니 음악적으로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해 안타깝다"는 유경혜 씨는 제대로 된 연주를 들려주기 위해 더욱 다양한 시도를 펼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다른 연주자와의 합동무대. 현재 크로마하프예술협회에는 크로마하프 연주자 외에도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색소포니스트, 무용가 등 타 장르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풍성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동서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시낭송과 언어디자인'을 강의하는 이숙례 교수 역시 유경혜 씨에게는 큰 힘이 된다. 시낭송회에서 시와 음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크로마하프 선율과 시가 빛어내는 아름다운 조화에서 크로마하프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유경혜 씨는 앞으로의 무대에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

현재 유경혜 씨는 필리핀 크로마하프예술협회 대표이사, 중국 크로마하프예술협회 대표이사, 미국 필라델피아 크로마하프 지도강사로 활동하며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크로마하프를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중국 길림성 훈춘예술학교 음악교수로 있으면서 중국인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유경혜 씨는 중국인의 체형에 맞춘 '유유하프'를 개발중에 있다. 또, 정확한 연주법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잘못된 기보법을 바로잡은 새로운 기보법도 정리하고 있다.

한국크로마하프예술협회를 대표하는 솔리스트로 활동중인 박계숙 씨, 10년 전 취미로 시작했던 크로마하프 연주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다른 악기에 비해 연주법이 쉬워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게 매력이라는 그는 유경혜 씨와 더불어 크로마하프를 알리는 전도사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크로마하프를 연주하는 어머니의 권유로 한국크로마하프예술협회에 가입한 바이올리니스트 윤성진 씨. 크로마하프의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감 있는 소리가 듣기 좋다는 그는 클래식 합주와는 사뭇 다른 색다른 느낌에 크로마하프와의 연주가 즐겁다.

"2013년을 크로마하프의 새로운 도약의 해로 삼겠다"는 한국크로마하프예술협회. 그 출발로 내년 2월 유경혜 씨의 두 번째 독주회를 계획하고 있다.

문의 한국크로마하프예술협회 유경혜
(010-7930-3709, cafe.daum.net/yooyoo78)

● 매달 2차례 해운대 김스뮤직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있는 한국크로마하프예술협회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다양한 초청무대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오고 있다.



반 백 년의 역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 기념음악회

박진홍_음악평론가

● 2012년 11월 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창단 5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열렸다. 젊음과 패기로 초창기 부산시향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고, 지금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있는 원로 음악인들과 부산시향을 사랑하는 음악 애호가들이 가득 자리를 메웠다. 이날 연주는 지난 50년간의 역사가 응집된 에너지 넘치는 무대였으며, 앞으로 더욱 훌륭한 음악을 선사할 부산시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무대였다.



중국의 작곡가 시완춘(Shi Wanchun, 1936~)의 <축일 서곡(Festival Overture)>이 무대의 첫 시작을 알렸다. 이 작품은 1976년 작곡된 작품으로 중국의 음악적 특징이 담겨 있으며, 축하와 기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이다. 두 명의 중국인 연주자(Shi Haibin, Wang Zhanzhan)가 수르나이의 진수와 함께 이날의 축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는데, 수르나이의 독주와 오케스트라가 마치 신나게 춤을 추는 듯 화려하고 경쾌하였다. 더불어 광활한 대자연의 장관을 표현한 풍부한 음향과 감성적인 연주가 인상적이었다.

두 번째로 연주된 막스 브루흐(Max Bruch, 1838-1920)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은 12살 소녀, 이수빈의 기막힌 연주를 통해 부산시향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렸다. 프로그램에 수록된 프로필은 대부분 연주자의 기량을 좀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날 이수빈의 연주는 화려한 프로필에서 모자람을 느낄 정도로 훌륭한 것이었다. 12살 소녀의 연주라고는 믿을 수 없는 간결하면서도 섬세한 연주와 탁월한 기량이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순간순간 변화하는 작품과 무대의 상황에 매우 노련하게 대처하는 모습과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놀라움을 느끼게 했다. 이런 이수빈의 연주에 부산시향은 더도 덜도 없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독주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연주를 보여주었다.

장대한 스케일의 <행성(Gustav Holst, 1874-1934)>은 지난 50년의 역사를 토대로 더욱 뻗어

나갈 부산시향의 위상을 염원하는 듯 이날 연주의 절정을 장식했다. 소리의 대비가 완벽하게 표현되어 입체감이 극대화되었고, 금관의 묵직하면서도 안정적인 음색이 화려한 곡을 정점으로 끌어 올렸다. 특히 각 파트 간 밸런스의 훌륭한 조화는 관객들이 오케스트라의 움직임에 동화됨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행성의 제7곡, 해왕성의 후반부, 부산시립합창단과 김해시립합창단의 보컬리제가 대극장 로비의 울림을 타고 객석으로 날아들어 신비감을 한껏 고조 시켰고, 이어 서서히 사라지자 객석은 감동과 축하의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준비된 연주가 끝나고 지휘자리 신차오는 언제나 변하지 않은 사랑을 보내 준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는 어린 아이가 늘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조그마한 장난감을 친구에게 전하듯 오랫동안 기억 속에 담고 찾았던 레너드 번스타인의 소품 <현을 위한 왈츠>를 앵콜로 선사했다.

10시가 한참 지나서야 연주가 끝났다. 필자는 이날 객석을 나오는 많은 관객들의 얼굴에서 감동과 환희, 행복을 볼 수 있었다. 이번 50주년 기념연주는 화려한 이벤트나 지나친 의미 부여 없이, 음악 자체로 축하와 감사, 그리고 앞으로의 청사진을 간결하면서도 감동적으로 보여준 훌륭한 연주였다.

부산시향의 선물을 마음으로 받은 한 사람으로써 훌륭한 연주를 선사해 준 연주자들과 부산시향의 전 스태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부산시향의 드높은 위상 정립과 더불어 그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관객들에게 변함없는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영화의 관객과 문화를 만드는 모퉁이극장

김희진_영화감독

● 원도심 중앙동 지역은 최근 문화예술 활동으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새로운 도심 문화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곳에서 영화 문화의 다양한 시도도 잇따르고 있는데 부산 영화의 발원지인 원도심 지역에서 영화 문화가 새롭게 발돋움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역사의 흔적과 향기가 묻어 있는 원도심 지역은 사실 어떤 문화예술 활동이라도 어울리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모든 문화적 활동은 이렇게 공간의 특성과 어울리면 더욱 활기를 띄기도 한다.

모퉁이극장은 최근 중앙동에서 활동을 시작한 단체이자 공간이다. 문화를 응원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특히 영화와 관객의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대중영화의 활기 속에서 관객 하나하나의 취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극장의 현실과 한 편 한 편의 영화에 대한 다양한 비평이 소개되고 소통되고 토론되지 않는 문화를 아쉬워하며 모퉁이극장은 '영화와 관객들'이라는 잡지를 준비하고 있다. 매주 독립영화와 실험영화를 상영하며 감독과 함께, 해설자와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방향의 활동 중 하나이다.

말 그대로 모퉁이에 위치한 모퉁이극장은 중앙동 40계단 앞 골목입구의 모퉁이 건물 4층에 자리 잡고 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에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시설이지만 매주 새로운 영화를 접하고 있는 관객들은 모퉁이극장에서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대표인 김현수를 비롯하여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자신의 개인적 자산과 시간을 투여해서 이 활동의 의미를 높이고 있다. 기꺼이 작품 상영을 허락하고 있는 감독들도 마찬가지이다. 영화가 다양해지기 위해선 다양한 영화의 상영 방식과 관객과의 소통 방식이 있어야 한다. 모퉁이극장은 이 필요성에 대한 활동을 통해 영화 문화의 새로운 영토를 개척 중에 있다.

중앙동에서의 이러한 영화 문화가 다시금 출발하는 데에는 작지만 소중하고 다양한 영화 활동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백년어서원에

서는 올 해 두 차례에 걸쳐 전후반기 '부산 독립영화, 현재를 말하다'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3년 전부터 꾸준히 인문학과 영화의 만남을 위한 다양한 강연들을 마련해 왔었다.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에서는 옥상극장, 가든시네마 등의 시민과 함께하는 영화 상영회를 도심의 야외 공간에서 펼치기도 했고, 영화공간 보기도문은 영화를 소통의 매개로 삼아 다양한 계층과 대상에게 영화 교육과 영화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었다. 이런 다양한 영화 문화 활동들이 있어 지금의 원도심 지역에 새로운 가능성들이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다. 모퉁이극장은 내년엔 꼭 영화문화잡지를 발간하고자 하고 있다. 관객이 중심이 되어 영화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고 그 활동이 다양한 관객을 발견하게 하고, 다양한 영화를 찾아내게 하고, 다양한 비평을 통해 영화라는 매체의 활용이 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다. 뮤직비디오와 실험영화, 비디오아트 등 영상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쉽고 편한 영화 감상에 이르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퉁이극장은 이미 준비 중이고 활동하고 있으며, 또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 이런 자발적이고 재기 넘치는 시도들이 원도심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그 기대에 모퉁이극장이 좋은 모델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크고 완벽할 듯 보이는 건물에 시스템과 운영 능력을 갖춘 대표극장 하나 보다는 모퉁이극장과 같은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그 활동만은 언제나 새로운 그런 문화 공간이 많이 생겨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위대한 예술가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문화예술의 고장 통영



- 1. 제3회 동피랑벽화전 에서 대상을 수상한 '천사의 날개'
- 2. 우리나라 유일의 옷칠 전문 미술관 '통영 옷칠 미술관'
- 3.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작은음악회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한려수도의 심장 통영. 천혜의 자연환경이 빚어낸 아름다운 풍경 속에 위대한 예술가들의 숨결이 서려있는 통영으로 지난 11월 9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족들과 79 번째 테마여행을 떠났다. 통영은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을 비롯해 시인 김춘수, 유치환, 김상옥, 극작가 유치진, 작곡가 윤이상, 화가 전혁림 등 수많은 문화예술인을 배출한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이번 테마여행은 이들 예술가의 자취를 따라 펼쳐졌다. 이날 특별한 여행에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정주아, 박재현, 송다솔 씨가 동행했다.

차창 밖에 펼쳐지는 늦가을 정취에 한눈을 팔다보니 어느새 첫 목적지인 '통영옷칠미술관'에 도착했다. 사실 통영은 이순신 장군이 군수품을 공급하는 12공방을 설치한 뒤 400여년 동안 나전칠기를 생산해온 옷칠의 본고장이다. '통영옷칠미술관'은 국내 최고의 옷칠 전문가인 김성수 관장이 지난해 6월 개관한, 우리나라 유일의 옷칠 전문미술관으로, 일반인과 청소년들이 우리의 전통 옷칠공예작품을 감상하고 배울 수 있도록 3곳의 전시실과 교육관을 갖추고 있다. 큐레이터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전시실을 둘러본 회원가족들은 평소에 좀처럼 볼 수 없는 옷칠화의 아름다운 광택과 화려함에 탄성이 끊이지 않는다.

전시실 관람이 끝나고 나서는 교육관에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정주아(대금), 박재현(타악), 송다솔(거문고) 씨의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단원들의 연주에 맞춰 부르는 신명난 민요메들리에 회원들의 어깨흔이 절로 난다. 특히 회원가족들은 눈으로만 보았던 전통악기를 가까이서 만지고 직접 연주해보면서 우리 국악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통영옷칠미술관에 이어 도착한 곳은 청마 유치환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는 청마문학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망일봉 기슭에 자리한 청마문학관에는 청마의 유품 100여점과 각종 문헌자료 350여점이 전시되고 있어 선생의 삶과 작품세계를 살펴볼 수 있다. 통영 시내 중심에 있던 생가를 옛 모습 그대로 복원시킨 청마생가도 문학관 위쪽에 자리하고 있어 함께 둘러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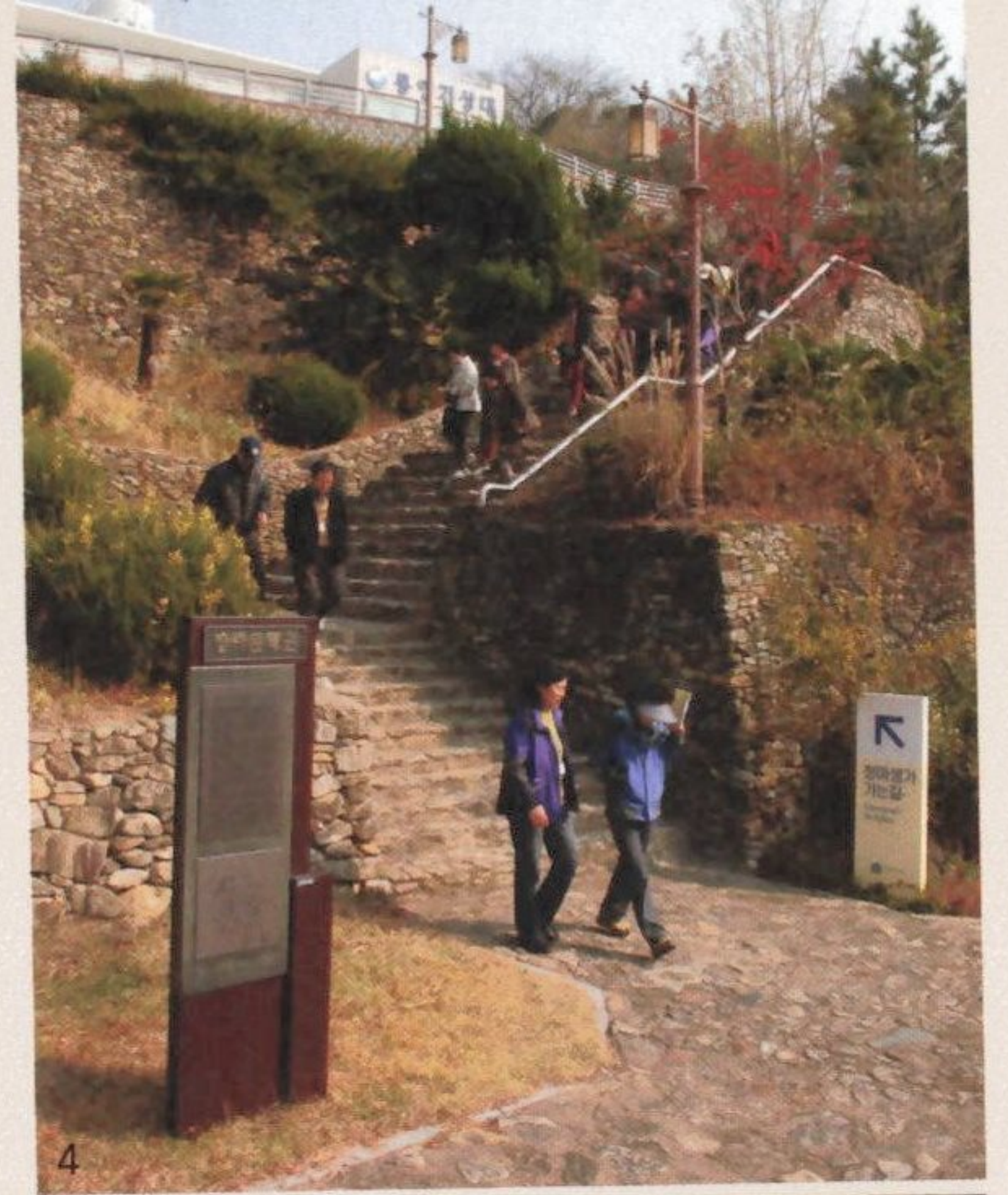
오후 일정에 앞서 신선한 회와 매운탕, 맛깔스러운 반찬으로 점심식사를 든든하게 마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벽화마을로 유명한 '동피랑'으로 자리를 옮겼다. '동쪽의 벼랑'이란 뜻의 '동피랑'은 원래는 비탈을 따라 50여채의 낮은 건물이 들어서 있던 어촌의 평범한 달동네였지만, 지난 2006년부터 예술가들이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통영의 명소가 되었다. 푸른 하늘과 어우러진 형형색색의 벽화 앞에서 카메라 셔트를 누르는 회원들의 손길이 분주하기만 하다. 특히 지난 4월 열렸던 제3회 동피랑 벽화전 '뽕규 동피랑!'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천사의 날개' 앞에는 사진을 찍기 위한 회원들의 행렬이 한동안 길게 늘어서기도 했다.

테마가 있는 여행

동피랑에 이어 도착한 곳은 '통영의 피카소' '색채의 마술사' '바다의 화가'로 불렸던 전혁림 화백의 작품세계를 기리는 전혁림미술관. 지난 2003년 5월 개관한 전혁림미술관은 전혁림 화백이 1975년부터 30년 가까이 생활했던 집을 헐고 그 자리에 새로 지은 건물로, 독특한 외벽이 관람객의 시선을 우선 끈다. 이 외벽은 전혁림 화백의 작품 5점과 아들이자 화가인 전영근 씨의 작품 5점으로 만든 세라믹 타일 7,500장으로 제작되어 통영의 바다와 화가의 예술적 이미지를 재현하고 있다. 또한 미술관 3층 전면 벽은 전혁림의 작품 '창 Window'을 타일 조합으로 재구성한 대형 벽화로 꾸며져 있다. 정기회원 가족들은 세 곳의 전시실을 둘러보며 한국적 색면추상의 선구자로, 한국미술사에 큰 획을 그었던 전혁림 화백의 작품세계를 감상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독창적인 음악언어로 세계 현대음악계에 이름을 남긴 작곡가 윤이상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는 윤이상 기념공원. 윤이상 선생의 생가가 있던 도천동 일대에 조성된 윤이상 기념공원은 선생의 유품과 관련자료 등이 전시된 전시관과 실내공연장인 메모리홀, 야외공연장이 들어서 있다. 기념관 2층 전시관에는 독일정부로부터 받은 훈장과 괴테 메달, 생전에 연주하던 첼로, 항상 품고 다녔던 소형태극기, 사진 등 윤이상 선생이 생전 독일 베를린에서 거주하며 남긴 유품 412점이 전시되고 있다.

전시관 앞에서의 단체사진 촬영을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어둑어둑 해지는 통영 바다를 뒤로 하고 부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깊어가는 가을 속 아름다운 자연과 예술이 함께 했던 통영여행. 그 속에서 생생히 살아있던 위대한 예술가들의 자취는 정기회원 가족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4. 청마 유치환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는 청마 문학관
5. '통영의 피카소' 전혁림 화백의 작품세계를 기리는 전혁림 미술관
6. 윤이상 기념공원에서 가진 단체 촬영



1월에는 **순천**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당첨되신 분은 정기회원 본인을 포함해 2인이 부산시립예술포럼과 여행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엽서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
 마감 12월 15일
 문의 부산시립예술포럼 홍보마케팅부
 (607-3103~4)

12월 테마여행 당첨자

엽서당첨자	신규가입자
강동년(수영구 남천1동)	김금재(남구 대연3동)
권호경(부산진구 당감2동)	김용순(남구 용호동)
김정화(사하구 하단1동)	김지영(양산시 물금읍)
김태진(연제구 연산동)	김형집(부산진구 전포3동)
송말남(연제구 거제동)	박춘태(연제구 연산9동)
송은영(해운대구 우동)	신기현(사상구 엄궁동)
이애진(서구 동대신동3가)	옥철우(수영구 망미동)
윤소희(연제구 연산5동)	윤지현(해운대구 좌4동)
정미영(서구 아미동)	최찬조(금정구 구서2동)
황선우(양산시 물금읍)	최지영(사하구 다대1동)

부산시주요공연장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AN아트홀 | 758-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S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가마골소극장 | 1588-9155
가온아트홀 | 1600-1602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소향아트센터 | 1544-1555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청춘나바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Culture Life

- 40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 44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 56 NEW MUSIC
- 57 NEW BOOK
- 58 SPECIAL MOVIE



탈북자 및 다문화가정 돕기 자선음악회

12월 1일 토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부산기독교장로총연합회
 (512-8118, 010-4560-3138)

새로운 삶을 시작한 탈북자 및 우리지역의 다문화가정을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

· 출연/소프라노 송정미, 테너 최승원, 삼손중창단, 페로스합창단

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 제16회 정기연주회

12월 1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
 (010-4842-6688)

사단법인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교육과 운영을 맡고 있는 순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인코리안아카데미 오케스트라의 제16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마술피리 서곡
 베토벤/피아노협주곡 제1번, 4번
 베토벤/교향곡 제3번 '영웅' 1악장 등 수곡
 · 지휘/김용문
 · 협연/이지아(피아노), 이승미(피아노), 이정연(피아노)

개그 더 코미디쇼 in 부산 2012

12월 2일 일요일 오후 1:00, 4:00, 7:00 **대극장**
 입장료 | VVIP석 8만 8천원 · VIP석 6만 6천원
 R석 5만 5천원 · S석 4만 4천원
 A석 3만 3천원
 문 의 | 코코엔터테인먼트 공연기획본부
 (1644-8246)



김준호를 비롯해 KBS공채 개그맨들이 펼치는 '개그 더 코미디쇼 in 부산' 무대. 희극여배우들, 감수성, 아빠와 아들, 멘붕스쿨, 꺾기도 등 기존 개그프로그램과 방송에서 볼 수 없던 신개념 개그코너를 선보인다.

루마니아 바카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2월 2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주)프로아트(02-585-2934)

1956년 루마니아 바카우에서 창단된 이래 교향곡, 실내악을 비롯해 콘체르토 등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고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사해온 바카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부산연주회.

프로그램

글린카/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주유미/초생달
 부르흐/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등 수곡
 · 지휘/스타니스라프 우셰프(Stanislav Ushev)
 · 협연/소프라노 남하영(미남초등 6년), 플루트 엄경민(부산예고 2년), 플루트 이정아(인제대 4년), 바이올린 이주영(미남초등 4년), 첼로 김다희(부산예고 3년)
 · 특별출연/김동욱(창원시립교향악단 수석), 김혜미(인씨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2012 부산솔리스트앙상블

12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부산일보 문화사업팀(461-4436~8)



남성성악가 7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남성 특유의 무겁고 장중한 화음과 선율로 품격있는 무대를 선사해온 부산솔리스트앙상블의 2012년 무대.

이번 무대는 이화여자대학교 박신화 교수의 지휘, 새터민 아코디언 연주자 채수린이 협연한다.

프로그램

펜스타드/우정의 노래
 송창식 /내 나라 내 겨레
 푸치니/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못이루고'

한국가곡/눈, 그리운 마음, 뱃노래, 신고산타령 등 수곡
 · 지휘/박신화(이화여자대학 교수)
 · 특별출연/채수린(단국대학교 생활음악과 교수)
 · 반주/김인재, 박미은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기악과 합창단 제34회 정기연주회 '바흐 요한수난곡'

12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고신대학교(990-2231)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재학생들의 음악적 역량을 펼치는 무대로 바흐의 신앙과 바로크양식에 뚜렷이 나타나는 그 당시의 미학적 개념이 효과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바흐 요한수난곡 BWV245'을 들려준다.

· 지휘/김정일 · 오르간/이혜영
 · 첼발로/김미나 · 피아노/이상미
 · 소프라노/우선애 · 알토/이미경
 · 테너/조윤환, 조동훈 · 베이스/김일석

글로리콰이어 제9회 가족음악회

12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글로리콰이어(010-8544-4702)



1982년 6월, CBS 관현악회 내 CBS 성인합창단으로 창단,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은 글로리콰이어 가족들이 함께 하는 가족음악회. 글로리콰이어는 그동안 20회의 정기연주회, 100여회의 교회순례찬양, 70여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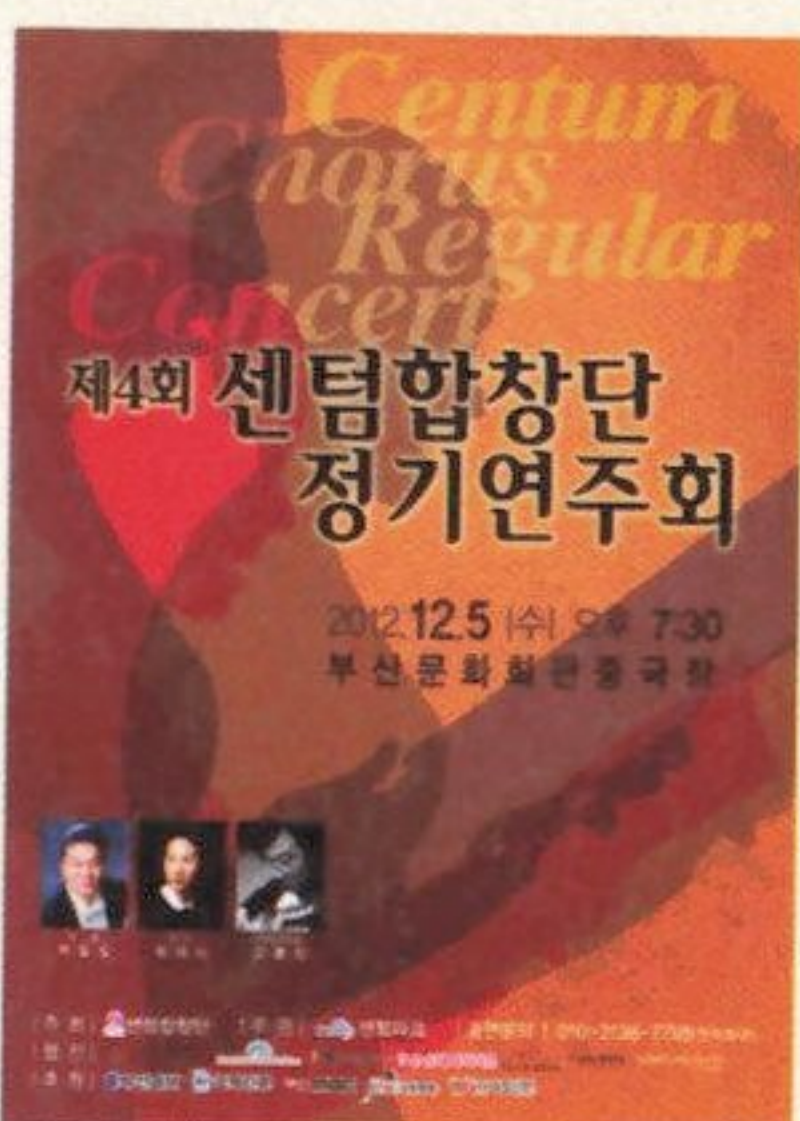
연주회 출연 등으로 합창을 통한 부산음악발전에 크게 기여 해왔다.

프로그램

Hold my Heart, Fly me to the moon, 참 좋으신 주님, 짠짜라, O del mio a mato ben, Die Forelle, Glitter And Be Gay, 청산에 살리라, 뱃노래, 하비삼의 왈츠, 안 되겠더라, Reflection 등 수곡
 · 단장/김민수 · 지휘/이정철(부산시립합창단 단원)
 · 반주/박성미 · 트레이너/이재원

제4회 센텀합창단 정기연주회

12월 5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이명숙(010-3136-7798)



2007년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해운대 센텀지구 아파트촌 주부들로 창단, 삭막한 아파트촌에서 음악을 통해 행복을 나누며 봉사하고 있는 센텀합창단의 제4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 김정철/노래로 세상을 아름답게
- 조혜영/바람부는 날에는
- 박지훈/들국화, 수선화, 국화 옆에서
- 이동준/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주제곡 등 수곡
- 지휘/이철성 · 반주/박재나
- 특별출연/기타리스트 고종진

2012 Mom-burim Dance Project

보여지는 무대 '부제:여자... 그리고 이야기'

12월 5일 수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현장판매)
 문 의 | 이상미(010-5566-2366)

올해로 창단 5년을 맞은 Mom-burim Dance Project의 제4회 정기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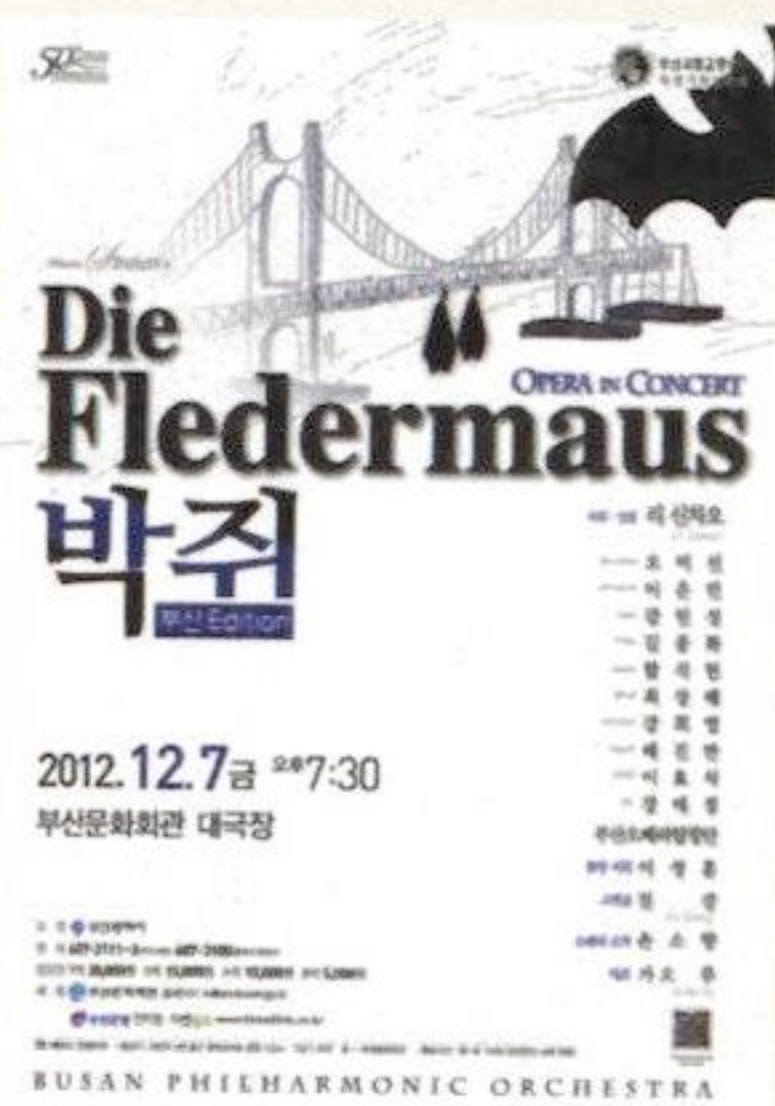
경험을 토대로 보여지는 이야기를 춤 언어로 표현한 무대로 사람들의 살아가는 일상 속 이야기, 사람들의 삶과 죽음 앞에서 흘리는 눈물과 그 사람들과의 추억과 기억 등 다양한 이야기를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풀어낸다.

프로그램

- 무엇을 들어드릴까요??(안무, 연출/이상미)
- 어떤...이의 기억(안무, 연출/이상미)
- 출연/박은진, 김민지, 김정은, 신보라, 하현아, 이상미

창단 50주년 기념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Opera in Concert 박쥐'

12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 S석 1만5천원 ·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Opera in Concert 세 번째 시리즈 '박쥐'.

기존 오페라 무대의 세트 등 고가의 연극적 장치를 배제시키고 최소한의 소품과 의상으로 오페라 음악을 전달

하기 위해 기획된 Opera in Concert는 저렴한 비용으로 오페라 고유의 감동을 선사, 많은 박수를 받고 있다.

프로그램

- 슈트라우스/오페레타 '박쥐'
- 지휘, 연출/리 신차오
- 조연출/진 강 · 오페라 코치/손소향
- 대본/가오 루
- 출연/소프라노 오미선, 테너 이은민, 소프라노 강민성, 바리톤 김종화, 베이스 김관현, 테너 최상배, 메조 소프라노 강희영, 연극배우 배진만, 테너 이효석, 소프라노 강태경 외
- 합창/부산오페라합창단

뮤지컬 '넌센스'

12월 7일 금요일 오후 8:00
 8일-9일 토-일요일 오후 3:00, 6:30 **중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1991년 6월 초연 이래 국내 공연사상 500만 관객동원 기록을 세우며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넌센스' 오리지널 무대.

식중독으로 죽은 수녀들의 장례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5명의 수녀가 펼치는 좌충우돌 이야기 '넌센스'는 독특한 시나리오와 수녀들의 예상 밖의 캐릭터, 클래식과 가스펠을 넘나드는 노래와 춤으로 21년간 즐거움을 선사해왔다.

지속 같은 오디션을 통해 합격점을 받은 특급 재주꾼들과 확 달라진 무대로 '넌센스'의 명성을 잇는다.

- 연출/김수경
- 작가/댄 고긴 (DAN GOGGIN)

부산시립무용단 2012 풍류(風流) 6기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춤 빛깔 찾기

12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천원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607-607-3131~2)



시민무용교실을 통해 전통 무용에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준 수강생들과 부산시립무용단원들이 함께 꾸미는 풍류 6기 무대. 무용교실 강습생들의 체계적인 지도, 관리를 위해 기획된 풍류는 지난 3년간

100여명의 시민 전문 무용인을 배출했다.

프로그램

- 소고춤, 부채춤(솔로)
- 청실홍실(특별출연/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오수연, 류권홍)
- 장고춤(특별출연/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이상민, 김도은, 김시현)
- 산조춤(우정출연/풍류강습생 김숙희)
- 교방살풀이춤(우정출연/풍류강습생 박옥순)
- 예술감독/홍기태(수석안무자) · 지도/김주령, 이정인

부산닥터스클라리넷앙상블

제7회 정기연주회

12월 9일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단장 박강우(010-2553-0737)

2007년 부산과 경남에 거주하는 의사, 치과의사들로 결성된 부산닥터스클라리넷앙상블은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병원 입원 환우,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열어왔다.

프로그램

- 모차르트/소나타
- 키무라/언제나 몇 번 이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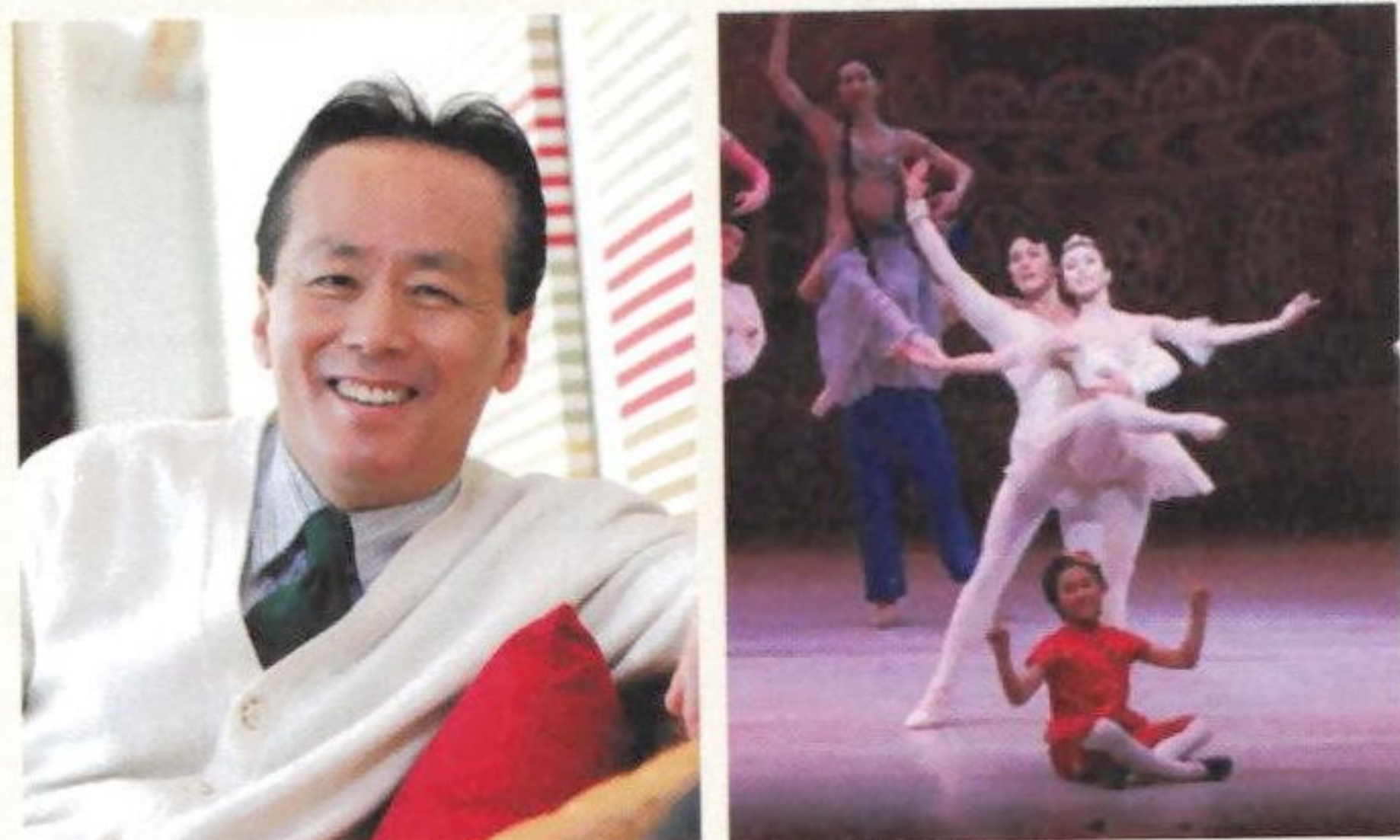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 쇼스타코비치/왈츠 제2번 등 수곡
- 지휘/김태훈
- 특별출연/박준제(트럼펫), 석동호(테너)

UKO(United Korean Orchestra) 정기연주회 제27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 나눔 음악회'

12월 10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UKO(011-591-3342)



지휘 금난새 발레 이원국발레단

2006년 11월 9일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린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음악활동을 통해 환자와 환자 가족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켜온 민간 자선 오케스트라 UKO(United Korean Orchestra)는 그동안 난치병을 앓고 있는 140명의 어린이를 위하여 약 3억 6천만원의 공연수익금을 전달했다.

프로그램

- 로저스/사운드 오브 뮤직 메들리
- 그리그/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 16 중 제1악장
- 차이코프스키/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 중 제3악장
- 차이코프스키/발레모음곡 '호두까기 인형' 작품 71a
- 지휘/금난새 · 발레/이원국발레단
- 바이올린/옥선재(예원학교 2학년)
- 피아노/맹의진(서울예고 3학년)

피아니시모 제5회 정기연주회

12월 10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피아니시모(010-9238-2411)

함께 모여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며 음악적인 유대를 다져온 피아니시모의 제5회 정기연주회.

피아니시모는 부산, 진주, 진해에서 피아노 교수법 세미나와 다양한 연주 활동의 장을 열어왔다.

프로그램

- 쇼팽/즉흥환상곡 작품 66 올림다단조
-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26번 내림마장조 작품 81a '고별'
- 드뷔시/판화 등 수곡
- 특별출연/이혜승
- 연주/김영은, 손희경, 송미란, 정지혜, 주은정, 최아진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12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4만원 · R석 12만원
 S석 9만원 · A석 7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마스트미디어(1599-2535)



2009년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전국 10개 도시 리사이틀 투어를 성공적으로 치른 사라 장의 전국 투어무대. 1989년 9세의 나이로 EMI에서 음반을 녹음하면서 세계 최연소 레코딩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사라장은 1992

년 이 녹음음반으로 데뷔 앨범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클래식계를 놀라게 했다. EMI 데뷔 앨범 발표 20주년을 기념한 이번 무대는 탁월한 테크닉을 가진 신동에서 음악적 깊이를 더하여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거듭나고 있는 사라 장의 음악적 역량을 만날 수 있다. 뉴욕 타임즈로부터 극찬받은 프로코피에프 '바이올린 소나타 2번'을 국내 초연한다.

프로그램

- 비탈리/사콘느
- 번스타인/웨스트사이드 스토리
- 바흐/G선상의 아리아
- 프로코피에프/바이올린 소나타 2번
- 피아노/애슐리 와스

제4회 수영전통예술대학 발표공연

12월 11일 화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752-2947)

1999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한국무용, 풍물, 택견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의 '수영전통예술대학' 수강생들의 정기 발표공연.

프로그램

- 삼도농악, 택견, 타악퍼포먼스 팔색조, 풍류도(영남교방 청춤), 신명의 울림(영남북춤)
- 해설/배현열 강사, 박영랑 강사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

12월 11일-13일 화-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극단(607-3151)



2012년 활동을 마무리하며 의욕적으로 준비한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는 화장터 풍경을 배경으로 한 휴먼드라마로 급작스런 사고로 죽음을 맞이한 김진우와 기영식의 죽음을 통해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갈림길, 산자와

죽은 자의 유희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극단 미연 대표, 상임연출가 김순영이 쓰쓰미 야스유키(堤 泰之)의 작품을 번역, 각색, 연출을 맡아 부산연극애호가들에게 선보인다.

- 출연/이돈희, 황창기, 주은실, 이현주, 염지선, 전지은, 차승현, 이수아, 박규한, 박준서, 윤준기
- 객원출연/박호석, 남승해(극단 미연 단원)

부산베데스다합창단 정기연주회

12월 12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정진욱(010-8923-3727)

음악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음악적 재능을 개발하며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 부산베데스다합창단은 2009년 10월, 부산극동방송 출연을 통해 공식적인 대외 활동을 시작한 이래 고신대학교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초청연주, 부산광역시청 주관 '시청로비수요음악회', KBS전국민합창대축제 등 다양한 무대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 존 레빗/페스티벌 미사
- 현제명/크로스오버 오페라 '준향' 등 수곡
- 지휘/박성환
- 오페라/김혜미, 정재문, 김요한, 안혜미, 김태우 외
- 무용/마리아 한국무용예술선교단

라메르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2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 S석 1만원
 문 의 | 이재석(627-5665, 010-5566-5332)



이재석 양승엽 손한별

음악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열기 위해 1998년 의욕적으로 창단된 라메르오케스트라는 청소년 음악교육,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음악회 등 취약계층의 정서적 함양을 위해 클래식 및 크로스 오버, 팝 등 다양한 무대를 열어왔다.

프로그램

- 요한 슈트라우스 2세/박쥐 서곡
- 드보르작/신세계 교향곡
-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 '지금 이순간' 등 수곡
- 예술총감독/이재석
- 테너/양승엽(부산교대, 동서대학교 외래교수)
- 보컬리스트/손한별(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5회 정기연주회 및
 부산시립합창단 제144회 정기연주회
 2012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12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2012년 창단 50주년, 창단 40주년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친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2012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부산시립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과 울산시립합창단이 합창을, 소프라노 박은주, 메조소프라노 왕 홍야오, 테너 슈에 하오인, 베이스 양희준 등 정상급 성악가들이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베토벤/교향곡 제9번 '합창'
- 지휘/리 신차오(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소프라노 박은주, 메조 소프라노 왕 홍야오, 테너 슈에 하오인, 베이스 양희준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 합창/부산시립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CTS부산방송 개국 8주년 기념
 성탄절 기념음악회**

12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CTS부산방송(784-9988)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독교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CTS부산방송국 산하 4개 예술단체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특별한 무대를 연다.

CTS부산방송국 전속단체는 2009년 CTS부산방송여성합창단이 창단된데 이어

2012년 6월 CTS부산방송소년소녀합창단이, 9월 CTS부산방송권사합창단과 CTS부산방송남성합창단이 창단되었다.

출연진
 CTS부산방송소년소녀합창단(지휘/나준영, 반주/이현주)

- CTS부산방송여성합창단(지휘/연명희, 반주/정유경)
- CTS부산방송남성합창단(지휘/최형태, 반주/박정호)
- CTS부산방송권사합창단(지휘/나준영, 반주/이현주)
- 특별출연/팝페라 가수 강신주(서울종합예술학교 실용음악과 전임교수), 재즈밴드 백흥선

부산클라리넷과르텟 제17회 정기연주회

12월 16일 일요일 오후 6: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클라리넷과르텟(010-7543-0883)

그 동안 16회의 정기연주회, 200여회의 특별연주와 초청연주 등으로 왕성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부산클라리넷과르텟은 일본 오사카, 고베, 교토, 시가현 초청연주회, 미국 앨라바마주립 트로이대학 초청연주회, 헝가리 라디오 오케스트라 수석으로 있는 세계적인 클라리넷연주자 Varga Gabor와의 협연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프로그램

- A. Templeton/Bach Goes to Town
- P. Buttall(편곡)/Amazing Grace Goes Latin 등 수곡
- 특별출연/이임수(동덕여대 교수)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 초청
 유망신예 음악회 '2012 콘체르토 페스티벌'**

12월 17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010-3376-2246)



부산과 경남 지역의 교향악단과 대학에 출강하는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와 차세대 유망주들이 함께하는 유망신예 음악회 '2012 콘체르토 페스티벌'.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오케스트라를 위한 '스케르조'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모차르트/피아노협주곡 제20번 라단조
부르흐/바이올린 협주곡 사단조 등 수곡

· 지휘/백진현

· 협연자/박주현(피아노,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재학),
김혜인(바이올린, 부산예중 2학년), 김경연(바순,
부산서여고 재학), 주혜인(바이올린)

아담스플루트앙상블과 함께하는 임채홍 예술 휘파람 특별연주회

12월 17일 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장극태(011-582-5189)



아담스플루트앙상블

임채홍

1998년 창단 이래 플루트 선율의 아름다움을 전해온 아담스플루트앙상블과 예술휘파람 연주자 임채홍과 함께하는 특별연주회.

바이로이트 성요한교회 독창자, 슈트라이타우 1862합창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한 임채홍은 독일과 한국에서 예술휘파람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휘파람 솔로/신아리랑, 밀양 아리랑, 터키 행진곡
모차르트/피아노 소나타

휘파람 솔로/구노 Ave Maria, 헨델 '할렐루야' 등 수곡

· 지도감독/장극태

단비올남성앙상블 창단13주년 기념 제10회 정기연주회 '정(情)·겨울 이야기'

12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강성철(010-2418-6468)

1999년 다양한 직업의 성악애호가들로 창단된 단비올 남성앙상블의 창단 13주년 기념 제10회 정기연주회 '정(情)·겨울 이야기'.



탄탄하고 풍부하고 안정감 있는 남성 특유의 화음으로 서정적인 우리가곡과 성가곡, 영화음악, 크리스마스 캐롤 등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아름다운 성가곡/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우리 가곡/내 마음, 귀천, 찔레꽃 향기 맡으면, 한낮에 피리와 첼로의 만남/예수 아리랑, 내 주를 가까이 정(情)겨울 이야기/눈의 이야기 있다네, 눈, 펠리스 캐롤, 세 개의 러시아 민요 등

· 지휘/강성철 · 피아노/고영주, 최연주

· 특별출연/소프라노 조희정, 피리 강영현, 첼로 도수경, 드럼 박아론

정안선 첼발로 독주회 '바로크 음악에서 크로스오버까지'

12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정안선(010-2545-2291)

그동안 4회의 첼발로 독주회를 통해 바로크음악의 매력을 전해온 정안선은 첼발로 연주회 외 8회의 피아노 독주회, 독일심포니, 일본, 폴란드, 루마니아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무대를 통해 음악애호가들과 만나왔다.

이번 음악회는 '바로크 음악에서 크로스오버까지'라는 주제로 바로크곡과 함께 영화음악 OST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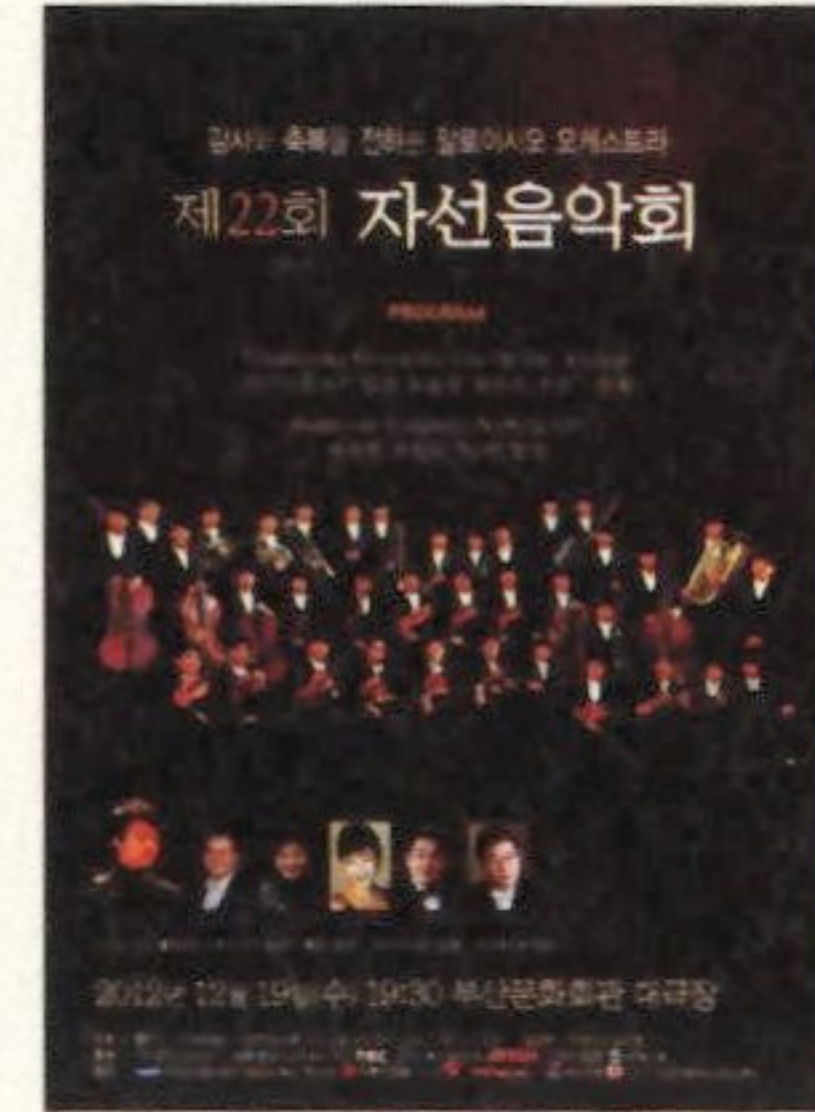
알로이시오 관현악단 제22회 자선음악회

12월 19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재)마리아수녀회 소년의 집(250-5273)

1979년 재단의 창립자 알로이시오 슈월쓰 몬시뇰의 제안으로 합주단으로 출발, 그동안 전국학생경연대회, 고등학생 예능실기대회 등 각종 음악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면서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아온 알로이



시오오케스트라는 2007년 마에스트로 정명훈과 젊은 지휘자 정민과의 만남을 통해 새롭게 도약했다. 알로이시오오케스트라는 2010년 미국카네기홀 무대에서 연주, 뉴욕 청중을 사로잡았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발레모음곡 백조의 호수 발췌

베토벤/교향곡 제9번 '합창'

· 지휘/박진

· 합창지도/이성훈

· 소프라노/허미경

· 메조소프라노/한현미

· 테너/김성진

· 바리톤/이창룡

· 합창연합/부산가톨릭합창단, 부산오페라합창단, 뽀레나 합창단, 르보야즈보칼레합창단, 부산푸른아버지합창단

바리톤 이종훈 독창회

12월 19일 수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이종훈(010-2666-2515)



김천과학대학 겸임교수, 밀양시합창단, 복있는사람 남성합창단 지휘자, 밀양오페라단 단장 이종훈 독창회. 이종훈은 이탈리아 Taranto 국제성악콩쿠르, G.Curci 국제성악콩쿠르, Sajerno 국제성악콩쿠르에서 입상했다.

프로그램

벨리니/내 사랑하는 너의 마음을

이호섭/옛날은 가고 없어도

라벨/돈키호테 등 수곡

소프라노 조수미 'La Luce'

12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13만원 · S석 11만원

A석 8만원 · B석 6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8)



1986년 이태리 트리에스테의 베르디 극장에서 오페라 '리골렛토'의 '질다' 역으로 국제 무대에 데뷔한 이래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소프라노 조수미 콘서트.

러시아 작곡가 이고르 크루토이가 조수미를 위해 헌정한 13곡들을 모은 앨범 'La Luce'의 전 세계 동시 출시를 기념한 이번 무대는 러시아의 깊은 서정과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내재한 한 편의 환상 동화를 연상케 하는 비밀스러운 분위기로 꾸며진다.

프로그램

칼 오르프/카르미나 부라나 중 '오, 운명의 여신이어' 이고르 크루토이/천사는 떠나가고, 달의 아들 뮤지컬 '엘리자벳' 중 '나는 나만의 것' 등 수곡

김민정 피아노 독주회

12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청소년 무료)
문의 | 김민정(010-6531-0307)



보스톤 New England 콘서바토리 예비학교인 Walnut Hill School을 거쳐 Boston University,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김민정 독주회.

프로그램

스크리아빈/원손을 위한 녹턴 작품 9 제2번
리스트/돈주앙의 회상 등 수곡

제7회 늘푸른 합창단 정기연주회

12월 20일 목요일 오후 6: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부산지적장애인복지협회(506-5024)

음악적 재능이 있는 지적장애인들을 발굴, 음악을 통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재활의 의지를 키워주고 있는 늘푸른 합창단의 제7회 정기연주회.

**최은주 클래스 피아노 연주회
젊은 비루투오조의 비상**

12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최은주(010-3592-5697)

연세대 기악과와 동 대학원, 프랑스 파리 에꼴 노르말 고등음악원을 졸업하고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최은주의 제자들이 들려주는 클래스 연주회.

프로그램

리스트/초절기교연습곡 '사냥', 파가니니연습곡 6번 등
· 연주/이정인, 윤윤환, 김효조, 서예림, 김수연, 권초롱, 윤고은, 김희진, 이지원, 신나리, 공보미, 임수창, 한예정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12 송년음악회 '즐거운 크리스마스'**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독일 할레에서 열린 국제어린이합창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유럽 음악계를 놀라게 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2012년 활동을 되돌아보며 마련하는 '2012 송년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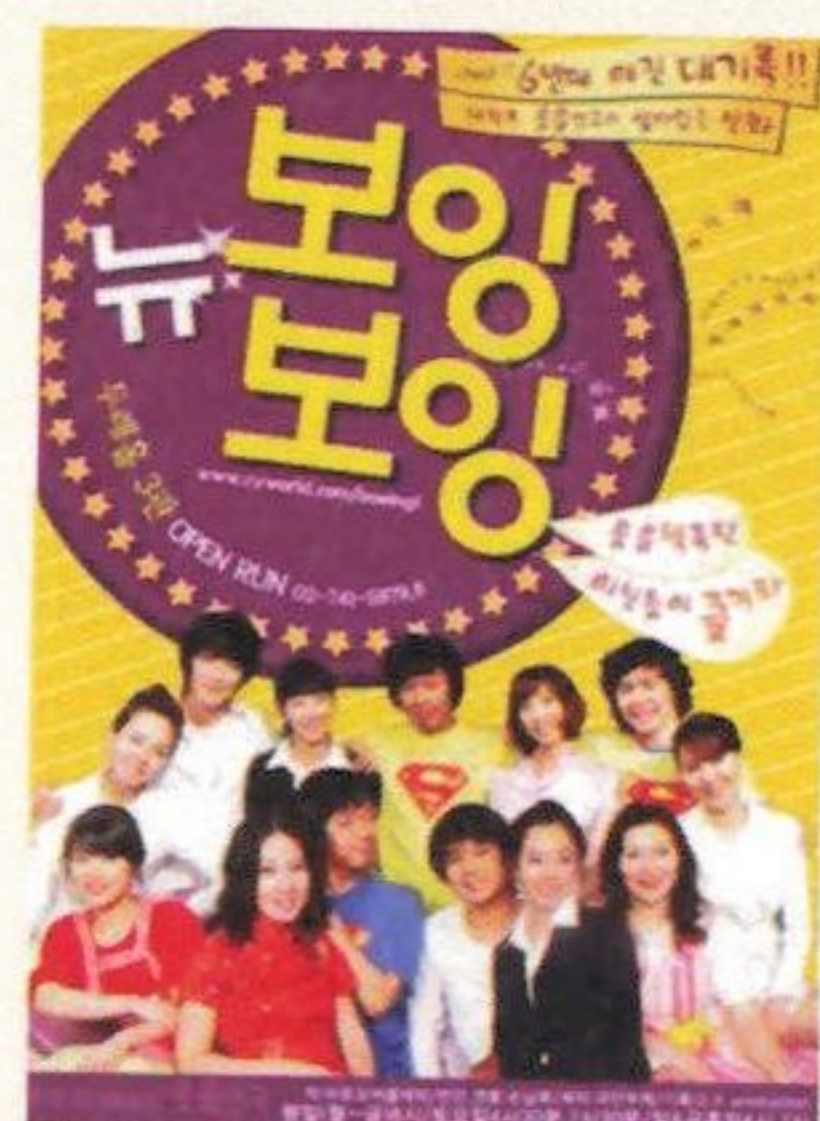
수석지휘자 전상철의 지휘, 소프라노 김경희, 베이스 김정대, 음악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있는 부산베데스다합창단이 특별출연, 부산동요 사랑회 회장을 역임한 신진수의 창작 동요, 크리스마스 캐롤 등으로 흥겨운 무대를 열어준다.

프로그램

한국작곡가 시리즈 IV-신진수/가을달밤, 라일락꽃 모차르트/오페라 '돈조반니' 중 '서로 손을 마주잡고' 윤초롱/견우와 직녀
크리스마스메들리/Have Yourself A Merry Christmas, 울먼 안돼, 루돌프 사슴코 등 수곡
· 지휘/전상철(수석지휘자) · 반주/이영옥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재(합창) · 작곡/신진수
· 특별출연/소프라노 김경희, 베이스 김정대, 부산베데스다합창단(지휘/박성환)

뉴 보잉보잉

12월 22일(토) 오후 4:00, 7:00
23일(일) 오후 2:00, 5:00, 24일(월) 오후 5:00, 8:00, 25일(화) 오후 2:00, 5:00, 8:00
27일(목)-28일(금) 오후 8:00 29일(토) 오후 4:00, 7:00, 30일(일) 오후 2:00, 5:00(26일 공연없음)
중극장
입장료 | 1층 3만 5천원 · 2층 2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만원 · 2만원)
문의 | 동그라미 그리기
(805-5355, 010-8509-0622)



미모의 스텐디스 애인을 3명이나 두고 있는 바람둥이 주인공 성기의 아슬아슬한 삼각 애정행각을 다룬 폭소 코믹극 뉴 보잉보잉 부산 무대.

5년 동안 최다 관객동원 신화를 이어온 뉴보잉보잉은 바람둥이 성기, 성기의 순수 친구 순성, 성기의 여자친구들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 II -Yesterday
연인과 함께 하는 특별한 이브의 밤
7080 콘서트**

12월 24일 월요일 오후 8:0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7)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 II -Yesterday로 아이돌 문화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7080세대들에게 콘서트 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해온 부산문화회관에서 2012년 크리스마스 이브 7080 세대들에게 선사하는 특별한 음악 선물 '7080 콘서트'.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2 송년음악회

12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지휘 이동신 피아노 김태진

前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악장 김호빈, 남가영을 비롯해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前 단원 정지희(첼로), 박선영(오보에), 양희경(바순)과 울산대학교 김태진 교수와 함께 바이올린 협주곡의 명곡 부르흐 바이올린 협주곡과 협주곡이지만 교향곡의 요소를 통해 음악적 완성도를 높인 하이든의 협주교향곡,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하이든/협주교향곡
- 브람스/피아노 협주곡 제1번 등
- 지휘/이동신(수석지휘자)
- 협연/김호빈(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남가영(동의대 4년), 정지희(부산대 일반대학원 재학), 박선영(부산대 교육대학원 재학), 양희경(BSO 단원), 김태진(피아노, 울산대학교 교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65회 정기연주회 2012 송년음악회

12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3)

2012년 한 해를 보내는 길목, 우리소리 우리가락으로 한 해를 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2012년 송년음악회.

이번 무대를 위해 사물놀이 김덕수 명인과 국립창극단 소리꾼 남상일이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김철호 김덕수 남상일

프로그램

- 김만석(편곡)/창과 관현악 -힙합하는 각설이, 노총각 거시기
- 크리스마스 캐롤/루돌프 사슴코, 페리즈 라비다
- 박범훈/사물놀이를 위한 국악관현악 '신모듬' 등
- 지휘/김철호(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박성희(소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남상일(소리, 국립창극단 단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전상철), (사)사물놀이 한울림
- 객원출연/박준현(첼로,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

(사)아지무스오페라단 2012 송년 오페라콘서트 '라 보엠'

12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 10만원 · R석 7만원 ·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의 | (사)아지무스오페라단(070-7522-4649)



고예정 강경원 장진규

세계 3대 오페라 작곡가인 푸치니의 대표작인 '라 보엠'은 '그대의 찬 손', '내 이름은 미미', '무제타의 아리아' 등 사랑을 표현하는 주옥같은 아리아와 아름다운 대사, 선율은 인간내면에 숨어있는 가장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해 주는 곡으로 해마다 연말이 되면 전세계 무대에서 단골로 공연된다.

- 주요출연/최혁재(지휘), 안주은(연출), 고예정(미미), 강경원(마르첼로), 장진규(로돌포), 박상진(콜리네), 김한내(무제타), 조성빈(쇼나르)

프리모색소폰앙상블 제3회 정기연주회 & 이병주프렌즈

12월 30일 일요일 오후 6: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의 | 김승모(010-9271-0626)

2008년 결성된 재즈색소폰연주단 프리모색소폰앙상블은 2010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색소폰 선율을 들려주고 있다.

프로그램

- Over the rainbow, Tequila, Besame mucho 등 수곡
- 특별출연/임유리, 노영현, 이병주 밴드

2012 부산문화회관 제야음악회

12월 31일 월요일 오후 10: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7)



특별한 제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변함없는 인기를 얻고 있는 '2012 부산문화회관 제야음악회'.

올해는 제주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이동훈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 바이올리니스트 양경

아,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 피아니스트 임호선, 소프라노 한예진, 테너 김지호의 협연으로 특별한 제야무대를 선사한다.

제야음악회가 자랑하는 휴식시간 로비콘서트와 와인교향악회와 함께 하는 다과회, 새해 소망엽서쓰기는 2012년에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프로그램

- 엘가/위풍당당 행진곡 제1번
- 비에냐프스키/전설
- 빌라-로보스/브라질풍의 바흐 제5번 중 아리아(칸틸레나)
- 미셸 르그랑/영화 '셀부르의 우산' 중 '당신을 기다릴게요'
- 차이코프스키/피아노 협주곡 제1번 제1악장
- 스코틀랜드 민요/석별의 정
- 레하르/ '유쾌한 미망인' 중 '입술은 침묵하고' 등 수곡
- 지휘/이동훈
- 바이올린/양경아 · 하모니카/전제덕



줄라이 댄스 컴퍼니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남산놀이마당



국악그룹 아비오

토요상설무대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선착순,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6)

12월 1일

줄라이 댄스 컴퍼니 '녕마주의 그대들은...'

5명의 안무자가 4개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가난하지만 자유로운 보헤미안의 삶에 대하여 옴니버스 스타일로 작품을 연출한다.

프로그램

녕마주의 그대들은 Part 1 '내 친구 무무를 위하여'

(안무/구은혜 · 출연/김태훈, 김중민, 구은혜)

녕마주의 그대들은 Part 2

'뽀~~ 미치겠네 이 지지리 궁상아'

(안무/손영일 · 출연/신보라, 이유미, 손영일)

녕마주의 그대들은 Part 3 '물, 들다.'

(안무/김현정, 강용기 · 출연/김현정, 강용기, 허정원)

녕마주의 그대들은 Part 4 '비탈로 가는 사람들'

(안무/남대우 · 출연/강용기, 구은혜, 남대우)

녕마주의 그대들은 자유롭게(녕마주의 그대들)

(출연/박재현, 최우석 등 줄라이 단원)

12월 8일 부산시립합창단 연주회

프로그램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노래/Nella Fatasia, You raise me up, 거위의 꿈

Drama OST/시간을 거슬러(드라마 '해를 품은 달'), 그 남자(드라마 '시크릿 가든'), 낙인(드라마 '추노')

합창으로 듣는 미리 크리스마스/White Christmas, Silverbell Medley, Carol Swing

가요합창/아름다운 강산, 푸르른 날

우리 민요 합창/신고산 타령, 밀양 랩소디

· 소프라노/남순천, 기미현, 최난영, 최선희, 양은제, 이혜진, 김달의

· 앨토/손미숙, 박성혜, 김미경, 신소운, 배소영, 박진희

· 테너/김진영, 김추리, 권정은, 최춘식, 이재원

· 베이스/안재형, 최영수, 오승중, 최성규, 구명금

· 지휘/박광하(트레이너)

· 피아노/이승윤, 이경미

12월 15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프로그램

해령(집박/채수만 · 대금/한영길, 이만형, 강영진 · 소금/조은경 · 피리/김용우, 권미정, 정주아 · 해금/정수경 외

박종선류 아쟁산조(아쟁/권혜정 · 장구/송강수)

가야금중주 민요메들리 '아리랑, 밀양아리랑' (18현/정미자, 윤경선 · 25현/김혜진, 정세희 · 장구/장미진)

대풍류(대금/최재호 · 피리/박영은, 진형준 · 해금/김소현 · 장구/송강수 · 좌고/김명진)

시나위(대금/황두호 · 피리/김경수 · 해금/방병원 · 아쟁/박일 · 가야금/송영남 · 거문고/오상훈 · 장구/전학수 외)

· 해설/백규진

12월 22일 (사)남산놀이마당 공연

프로그램

INTRO/Fun! Fun!!

Into the Sound

Sound of Light

Rush and Cash

River & SEA II

동굴 속으로

기원

Sound of 솟대

Funny Sound of TOPPER

· 출연/임채련, 장재희, 박정희, 류재철, 방형웅, 조대일, 한상훈, 김예빈, 김준, 박창하, 윤승환, 김은경 외

12월 29일 국악 그룹 아비오 연주회

프로그램

당덕쿵이 / 바람이 그림에게 / 국악기로 들어보는 크리스마스 캐롤 / 새타령 / 재 & 터널 신드롬 / 날아라 풍뎅이 / 광대

· 연주/김성겸(피리), 김은경(대금), 김나영(해금), 윤승환

(타악), 박현철(기타), 김형진(베이스)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Music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일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4: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 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1일 프로그램

포구락, 판소리 '흥부가' 중 '둘째 박 타는 대목', 취타 풍류, 승무, 동부민요 '한오백년, 강원도아리랑, 뱃노래, 자진뱃노래', 부채춤, 판굿

8일 프로그램

해령, 풍류장구춤, 남도민요 '흥타령, 육자배기', 삼고무, 가곡 '언락, 우락', 동래한량춤, 삼도설장구

15일 프로그램

수제천, 통영교방진춤, 서도민요 '간난봉가, 자진난봉가, 사설난봉가', 정재 무고, 남녀창 '태평가', 강강술래, 사물놀이

29일 2012 명인명무전

유가합창단 창단 20주년 기념음악회

12월 1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유가합창단(010-4946-4224)



대한불교진각종 부산교구청에 소속된 유가합창단이 창단 2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음악회.

유가합창단은 1993년 창단 후 불교음악의 밤, 찬불음악합창제, 불교합창제, 부산합창제 등 다양한 무대에서 서왔다.

· 지휘/백규진

동의대학교 예술종합 콘서바토리 국악과 제3회 정기연주회 '동의 新 풍류'

12월 2일 일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초대
문의 | 엄익준(011-554-9396)



전통음악에서 창작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흥과 신명의 무대를 펼치는 동의대학교 예술종합 콘서바토리 국악과 정기연주회.

- 지휘/손명균(동의대학교 예술종합 콘서바토리 학부장)
- 집박/엄익준(동의대학교 예술종합 콘서바토리 국악과 학과장)
- 협연/송명재(판소리), 김윤경(단소), 이현정(해금), 박기묘, 문영주, 최금옥, 구영선, 김가람, 황금오(이상 민요)
- 객원출연/정주아, 김현주, 배현지(이상 피리), 임중호(색소폰), 강현주(신디사이저)

김선희 귀국 피아노 독주회

12월 3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선희(010-3165-1219)



부산대학교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동안 4차례의 독주회를 비롯 피아노 그랜드페스티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부산반주연구회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피아니스트 김선희 독주회.

프로그램

바흐/프랑스모음곡 제5번 사장조 BWV 816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30번 마장조 작품 109
쇼팽/피아노 소나타 제3번 나단조 작품 58

오페라 앙상블 제6회 정기연주회

12월 3일 월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오페라앙상블
(010-5761-0222, 010-2888-0292)



지난 2007년 실내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창단한 오페라앙상블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카르로스 가르델/Por Una Cabeza
생상/타란텔라
피아졸라/부에노스 아이레

스의 사계 중 '겨울' 등

- 연주/박경희, 김준영, 여주현, 이애스더(바이올린), 김은진, 임정은(비올라), 정준수, 전명희(첼로), 최은주, 김은희(피아노), 정우영(클라리넷), 이화영(플루트)
- 찬조출연/이승환(퍼커션)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19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

▶ 5일 소프라노 조신미 독창회



경성대학교 교회음악과와 효성가톨릭음악대학원 성악과를 졸업하고 아모로제성악회 회원, 부산가곡사랑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조신미 독창회.

- 특별출연/하지미(플루트)
- 피아노/김정숙

▶ 12일 부산우드윈드앙상블 제8회 정기연주회

목관앙상블의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고 있는 부산우드윈드앙상블 정기연주회로,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주요 곡을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 연주/최낙주(플루트), 박지연(오보에), 손기영(클라리넷), 여대현, 장보영(바순), 이민정, 김영민(혼)
- 나레이션/바이올리니스트 김지윤
- 해설/박은아

▶ 26일 실내악으로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

서울종합예술학교 전임교수로 있는 플루티스트 이승호, 첼리스트 정재윤, 피아니스트 정자영의 앙상블 무대로 펼쳐지는 2012 송년음악회.

· 협연/플루티스트 최낙주 · 해설/김병기

부산심포닉밴드 제10회 정기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12월 6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 의 | 부산심포닉밴드(010-9966-9063)



실력있는 관악전공자 50여명으로 결성된 후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관객들에게 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해온 부산심포닉밴드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 지휘/이기균 · 협연/여대현(바순)

아트카페 움 목요일음악회

매주 목요일 오후 8:00 아트카페 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아트카페 움(557-3369)

▶ 6일 존타와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자선음악회

세계적인 여성봉사단체인 '존타(Zonta International)'와 성악가들이 함께하는 사랑의 자선음악회.

· 출연/테너 이상훈, 최현규, 바리톤 박찬섭, 베이스 문동환, 소프라노 김미리, 김옥, 바이올리니스트 이주은, 반주 김은실, 안슬기

▶ 13일 오픈 스트링스 '12월의 앙상블'

2011년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인 바이올리니스트 우소라, 비올리스트 홍영선, 신지현, 첼리스트 서송은, 더블베이스스트 윤강희로 구성된 현악앙상블 '오픈 스트링스' 무대.

▶ 20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love 콘서트

저물어가는 송년의 아쉬움을 재즈보컬 백흥선과 함께 나누는 love 콘서트.

· 연주/심규성(트럼본), 김수지(내건반), 서진석(드럼)

▶ 27일 교대부설초등학교중창단

'천사들이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

2009년 교대부설초등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교대부설 초등학교 중창단이 함께하는 송년무대.

· 지도교사/김복경

을숙도 금요 해피콘서트

남성성악앙상블 4+1

12월 7일 금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2)



'해피한 금요일의 휴식 같은 만남'이라는 주제로 매월 한 차례 열리는 을숙도문화회관 '금요 해피콘서트' 12월 무대.

테너 서명보, 김동국, 김지호, 오동주, 베이스 권영준으로 구성된 남성성악앙상블 4+1의 무대로 마련된다.

· 피아노/최혜련

소프라노 김유진 제자 음악회

12월 8일 토요일 오후 7: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김유진(010-3072-1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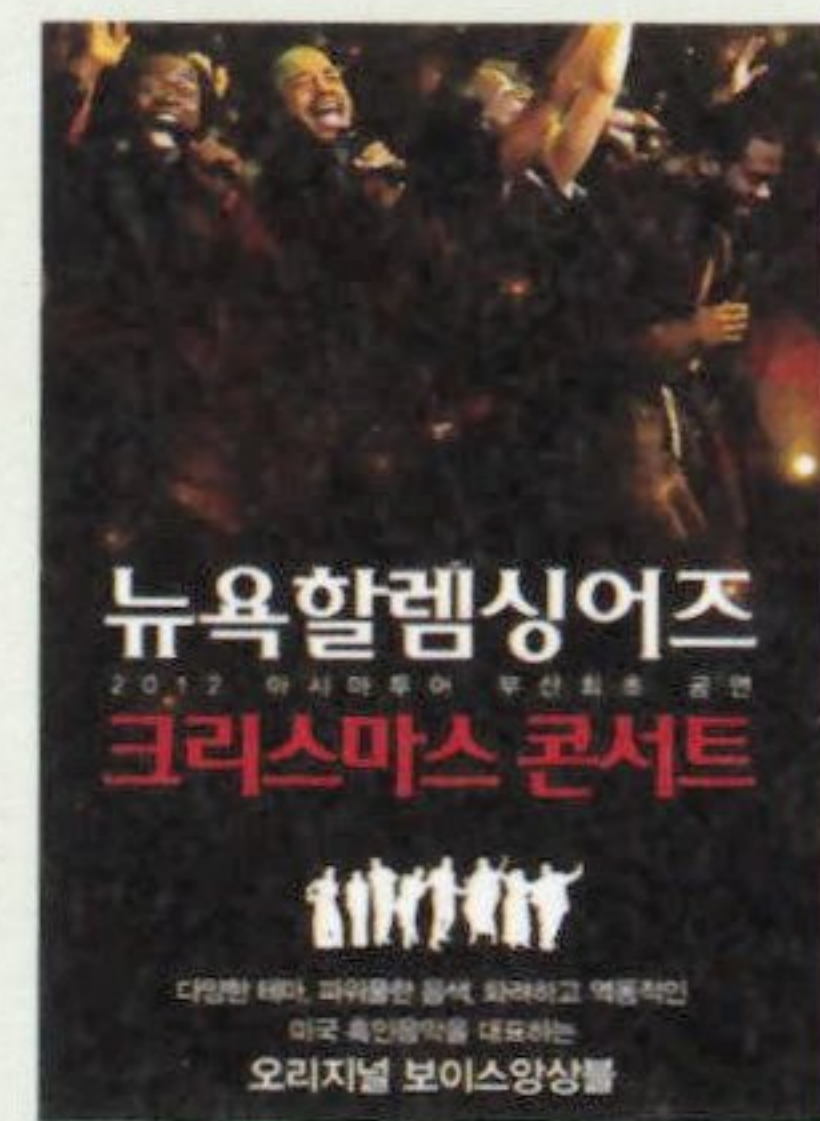


소프라노 김유진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제자음악회 두 번째 무대.

뉴욕할렘싱어즈 크리스마스 콘서트

12월 10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6만원 · S석 5만원 · A석 4만원

문 의 | 부산시민회관(630-5200)



흑인 보이스 앙상블 특유의 파워풀한 음색과 영감을 깨우는 하모니로 전 세계 비평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아 온 뉴욕할렘싱어즈 크리스마스 콘서트.

미국 흑인음악의 모태가 되는 영가를 비롯해 블루스,

재즈, 크리스마스 캐롤, 팝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 음악감독/이 마커스 하퍼



YAMAHA · KAWAI · STEINWAY
PIANO DRECT IMPORT
TUNNING & REPAIRING

PIANO TECHNICIAN
CHO, HYUN SEOK R.P.T.

INTERNATIONAL REGISTERED PIANO TECHNICIAN
(국제자격 피아노조율사)

NATIONAL FIRST LEVEL PIANO TECHNICIAN
(국가자격 1급 조율사)

THE DEPARTMENT OF MUSIC COLLEGE OF ARTS,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전속 조율사)
STEINWAY PIANO 기술연수 수료

Tel. 051-553-4277

051-753-8963

H.P. 010-9003-8963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소프라노 정은미 귀국 독창회

12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고신대학교와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오페라과를 최고점수로 졸업하고 문헌순복음교회 지휘자, 수영로교회 솔리스트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정은미 귀국 독창회.
 · 피아노/성민주

이기종 바이올린 리사이틀

12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 악장, 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 단원으로 있으면서 실내악 무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기종 독주회.

프로그램

밀스타인/파가니니아나

슈베르트/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 등

· 피아노/정성흡

서희태의 영화가 들리는 콘서트Ⅲ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메이드 인 부산' 영화의 대가, '부산영화'로 부산의 얼굴을 널리 알려온 영화감독 곽경택과 함께하는 서희태의 영화가 들리는 콘서트 세 번째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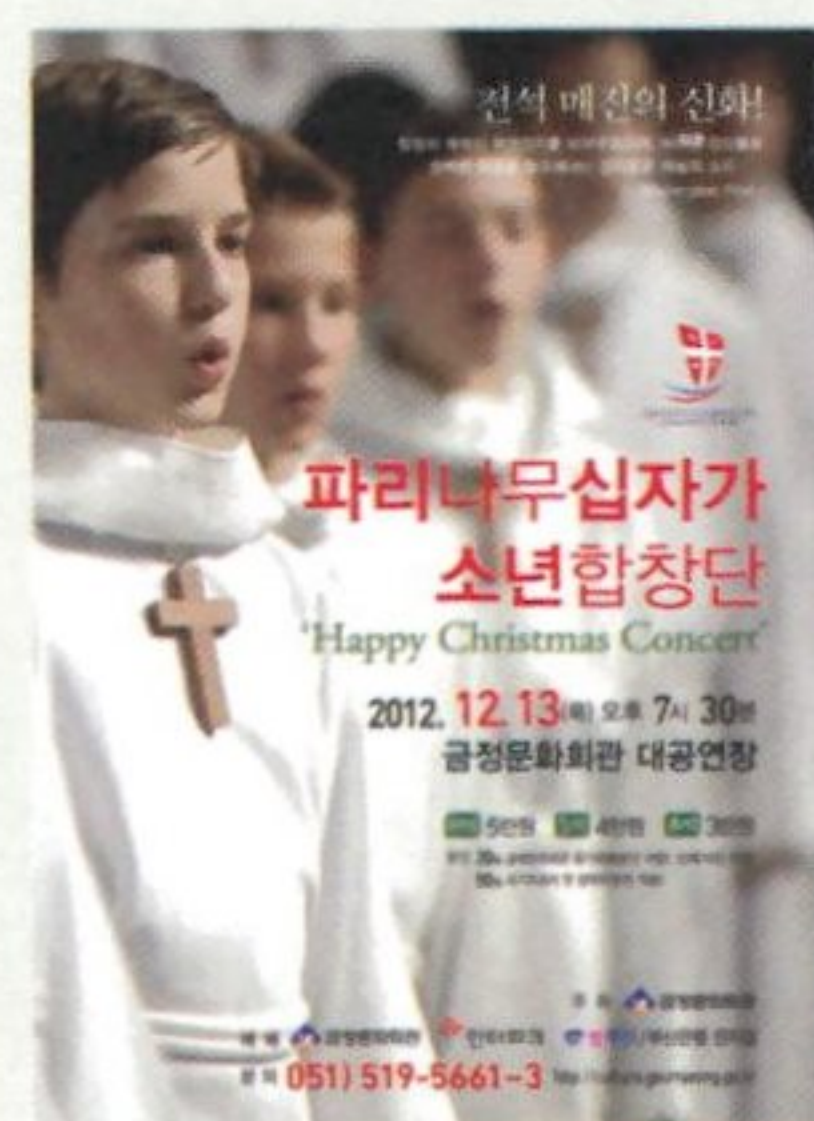
· 진행 및 지휘/서희태

· 게스트/영화감독 곽경택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

'Happy Christmas Concert'

12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VIP석 5만원 · R석 4만원 · S석 3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519-5661~3)



'영혼을 울리는 천상의 하모니' 파리 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 부산공연.

1971년 첫 내한공연 이후 매 공연마다 매진기록을 세워 온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정통 클래식에서부터 성가곡, 크리스마스 캐럴, 세계 각국의 민요,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청중과 만난다.

풍물굿패 소리결 2012 신명난 송년회 '부산 예인의 흥과 멋'

12월 14일 금요일 오후 7: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초대
 문 의 | 풍물굿패 소리결(512-6153)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송년무대를 통해 시민들이 전통 예술과 함께 신명나는 송년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풍물굿패의 '신명난 송년회' 2012년 무대.

각 분야의 최고의 기량을 지닌 중견 풍물 명인들의 무대가 펼쳐진다.

프로그램

처용무, 비나리, 삼도사물놀이, 사물판굿, 구정놀이(부포놀이, 설장구, 북춤, 상모놀이)

· 찬조출연/사물놀이 프로젝트 그룹 '청'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영도구청소년오케스트라 합동연주회

12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4)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오케스트라인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영도구청소년오케스트라가 함께 마련하는 합동무대.

· 지휘/오충근

가족오페라 '산타클로스는 재판중'

12월 14일-15일 금-토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VIP 16만원 · S석 10만원 · A석 5만원
 문 의 | 솔오페라단(1544-9373)



세계가 주목하는 이탈리아 작곡가 로베르토 몰리넬리가 산타클로스에게 최초로 헌정한 오페라 '산타클로스는 재판 중' 국내 초연무대. 1951년 프랑스 디종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산타클로스를 피의자로 한 재판에서 모

티브를 얻은 작품으로, 기존의 오페라 형식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진행과 경쾌하고 리드미컬한 음악, 화려한 안무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잔나 프라타 · 예술감독/디노 데 팔마
 · 연출/안주은 · 특별출연/윤선영(방송인 성악가)
 · 출연/바리톤 윤기훈, 박정섭, 소프라노 박혜진, 윤지영, 김유진, 이세진

해운대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퓨전국악 TODA

12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해운대문화회관 누리회원 균일 1천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연주자인 동의대학교 이기녕 교수가 이끄는 퓨전국악팀 'TODA'의 무대. 해금, 피리 등 국악기와 바이올린, 기타, 베이스, 드럼 등 서양악기가 어우러지는 색다른 무대를 선사한다.

인순이와 뮤지컬 팝스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12월 15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R석 4만원 · S석 3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519-5661~3)



슈퍼 디바 '인순이'와 뮤지컬 팝스 오케스트라, 퓨전타악그룹 ART가 함께하는 송년무대.

· 음악감독, 지휘/최성근(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 찬조출연/퓨전타악그룹 ART

글로벌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12월 16일 일요일 오후 5: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글로벌아트홀(505-5995)



지난 5월 초중고생, 대학생들로 결성된 글로벌청소년오케스트라는 앞으로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무대를 통해 음악사랑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지휘/명노성

· 출연/양원서, 김민지, 양우준, 최유빈, 윤세훈, 도윤성, 진현우, 강윤정, 김수진, 배규희, 이해현, 김유경, 김동희, 류규리, 정세현 외

2012년 부산클라리넷콰이어 송년음악회

12월 17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7천원
문의 | 이원기(010-8280-9229)



1989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인 클라리네티스트 정우영과 그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후 매년 다양한 무대를 통해 클라리넷 음악 보급에 앞장서온 부산 클라리넷콰이어의 송년무대.

· 지휘/정우영 · 협연/이주연(피아노)

천마재활원 친구들과 함께하는 with FRIENDS 겨울음악회

12월 17일 월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객민정(010-3069-9777)



부산예술중학교 1학년생들이 천마재활원 친구들과 함께 꾸미는 감동이 있는 사랑의 음악회.

· 특별출연/천마재활원 친구들

· 그림찬조/김시은

· 찬조출연/김진수, 이주영,

전정현, 김진성(부산예고 사물놀이)

· 출연/박상현, 김예린, 김빛나, 양수빈, 김민지(이상 피아노), 심지민, 김주연(이상 바이올린), 백미정(성악), 서정현(플루트), 최명빈(해금), 이지현(가야금), 엄예진(가야금병창)

제7회 부산색소폰콰이어 정기연주회

12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부산색소폰콰이어(010-9465-7163)



지난 2005년 창단 이후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자선음악회 등을 통해 우리 이웃에게 아름다운 색소폰 선율을 들려주고 있는 부산색소폰콰이어 정기연주회.

· 지휘/이천우 · 협연/김인호(플루트)

유열과 함께하는 송년특집 한낮의 유U; 콘서트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1:00 롯데호텔 아트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국제신문(500-5222)

달콤하고 감미로운 목소리의 가수 유열과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 바리톤 임현준과 함께하는 송년특집 한낮의 유U; 콘서트.

· 지휘/박성완

· 연주/TF 심포니오케스트라

'작곡그룹 An-ti Stimmung' 기획연주회 나눔과 소통 그리고 화합

12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조희주(017-568-2687)



부산악기사
www.piano123.co.kr

그랜드피아노
복원(수리), 조율, 감정, 대어

부산문화회관전속 조율사 / 김해문화의전당 전속

대표 **강규찬** (조율사)

H.P 010-4556-9410
TEL 051)758-5445 / 5450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525번지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현대사회의 갈등을 다양한 음악적 표현으로 작곡한 창작곡을 통해 현대음악과 청중 사이의 소통을 시도하는 '작곡그룹 An-ti Stimmung' 기획연주회.

- 작곡/조희주, 정수란, 진영민, 박기섭, 진소영, 주창근, 정지영, 김유리, 황선영
- 연주/최민경(피아노), 성기업(플루트), 양원윤(소프라노), 엄윤숙(가야금), 부산현대음악앙상블(BCME)

2012 송년공연 '자갈치아리랑'

12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22일 토요일 오후 4: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38)

화사하고 고고한 동백꽃을 닮은 부인과 주색잡기에 능한 박한량의 사랑과 결혼 등 삶의 이야기를 덧배기춤과 수영아류, 동래아류 등 영남춤과 부산사람들의 개성이 녹아든 노랫가락으로 그려낸 국악뮤지컬.

- 작/서연호 · 연출/조수동
- 출연/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무용단

무지크바움 연말 재즈공연 Merry Jam 재즈공연팀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전화예매 필수)
문의 | 무지크바움(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동아대학교 실용음악과 재즈 전공자들로 구성된 'Merry Jam'이 들려주는 재즈 라이브 무대.

송년의 아쉬움을 달래주는 재즈와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려준다.

- 연주/나오미, 박소정, 김호정(이상 보컬), 곽예슬(피아노), 최인성(베이스기타), 김도현(드럼)

3人 3色

12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국제신문(500-5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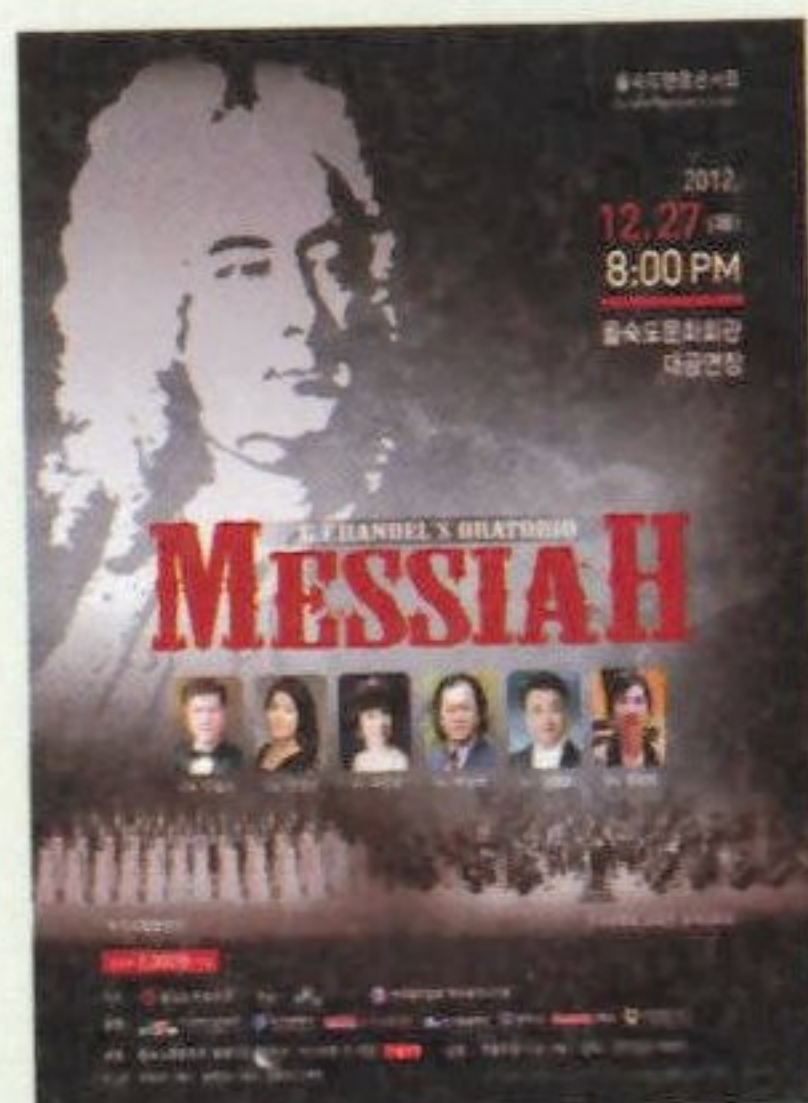
국악인 오정해와 뮤지컬배우 홍지민, 재즈보컬리스트 웅산이 출연, 저마다 개성넘치는 무대를 선사하는 3人 3色 콘서트.

프로그램

- 쇼스타코비치/축전서곡 가장조 작품 96
- 하차투리안/발레모음곡 '스파르타쿠스'
-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4번 작품 36 등
- 연주/w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김남윤)

을숙도 명품콘서트 '메시아'

12월 27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하이든의 '천지창조', 멘델스존의 '엘리아'와 더불어 3대 오라토리로 평가받는 헨델의 '메시아'를 들려주는 을숙도 명품콘서트 송년 무대.

- 연주/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지휘/이철수)

- 합창/부산시립합창단
- 협연/소프라노 한경성, 알토 구은정, 테너 박광하, 베이스 유형광, 오르간 임경희

부산시민과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제60회 글로벌 행복음악회

12월 30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자율(청소년 장학금 기금)
문의 | 글로벌아트홀(505-5995)



글로벌아트홀이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행복음악회.

Play

2012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2'

1월 1일(일)-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수요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서면
입장료 | R석 4만 5천원 · S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주)WSM(1566-5490)

자선쇼를 준비하는 못말리는 다섯 수녀들의 화끈한 춤과 노래, 코믹한 연기가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2'.

연극 '그남자 그여자'

2012년 7월 20일(금)-2013년 1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초콜릿 팩토리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의 | (주)가을엔터테인먼트(1577-5878)

수줍은 사내 커플과 풋풋한 대학생 커플의 두근거리는 첫 만남에서부터 달콤한 사랑, 쓰라린 이별과 아련한 추억까지 사랑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그린 대학로 최고의 커플 연극 '그남자 그여자' 부산공연.

코믹극 '아유 크레이지'

9월 14일(금)-12월 3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12/24일 오후 5:00, 8:00, 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의 | SM기획(1600-1602)



정신병원에 위장 입원한 천재박사 김희진과 그의 조수 임윤택, 보수적인 사고를 지닌 괴짜박사 이규인과 실수투성이 초보 간호사 이애리 등 정신병원에서 일어나는 요절복통 해프닝을 그린 코믹극 '아유 크레이지'.

2012 연극 '열대야'

11월 2일(금)-12월 3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일·공휴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자유바다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자유바다소극장(441-1978)



한여름 열대야에 삼겹살집에 모인 나이 마흔을 바라보는 부산토박이 세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 평범한 도시민의 애환을 걸쭉한 입담으로 풀어낸 연극 '열대야'.
·작/오승일 ·연출/주혜자
·출연/양성우, 엄준필, 강근탁, 송준승, 유성곤, 박현, 강민지, 오주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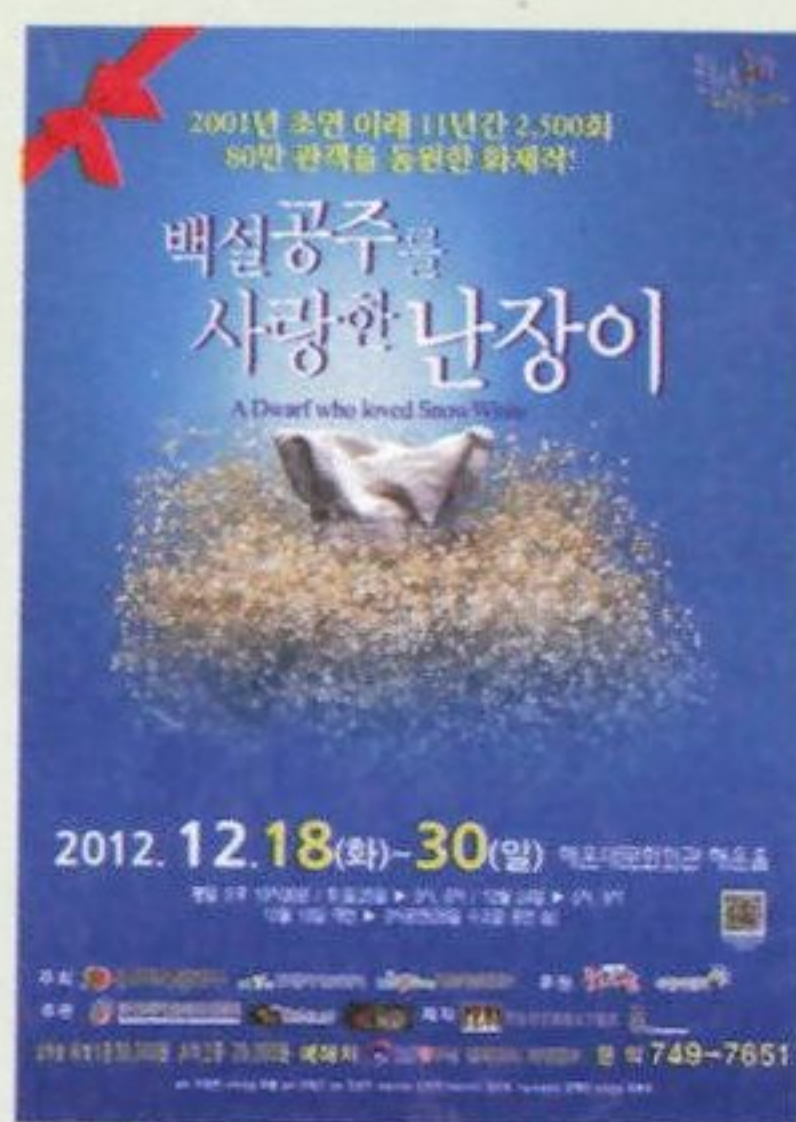
감성로맨틱코미디 'I love you'

2012년 11월 14일(수)-2013년 1월 1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12/24일 오후 5:00, 8:00, 12/31일 오후 8:00, 월요일 공연없음) SM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의 | SM기획(1600-1602)

기억을 찾고 싶은 남자 인호와 사랑을 말하고 싶은 여자 시은을 통해 달콤한 사랑의 감정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극 'I love you'.

뮤지컬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12월 18일(화)-30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12/19일 오후 3:00, 12/24일 오후 5:00, 8:00, 12/26일 공연없음)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R석 3만원 · S석 2만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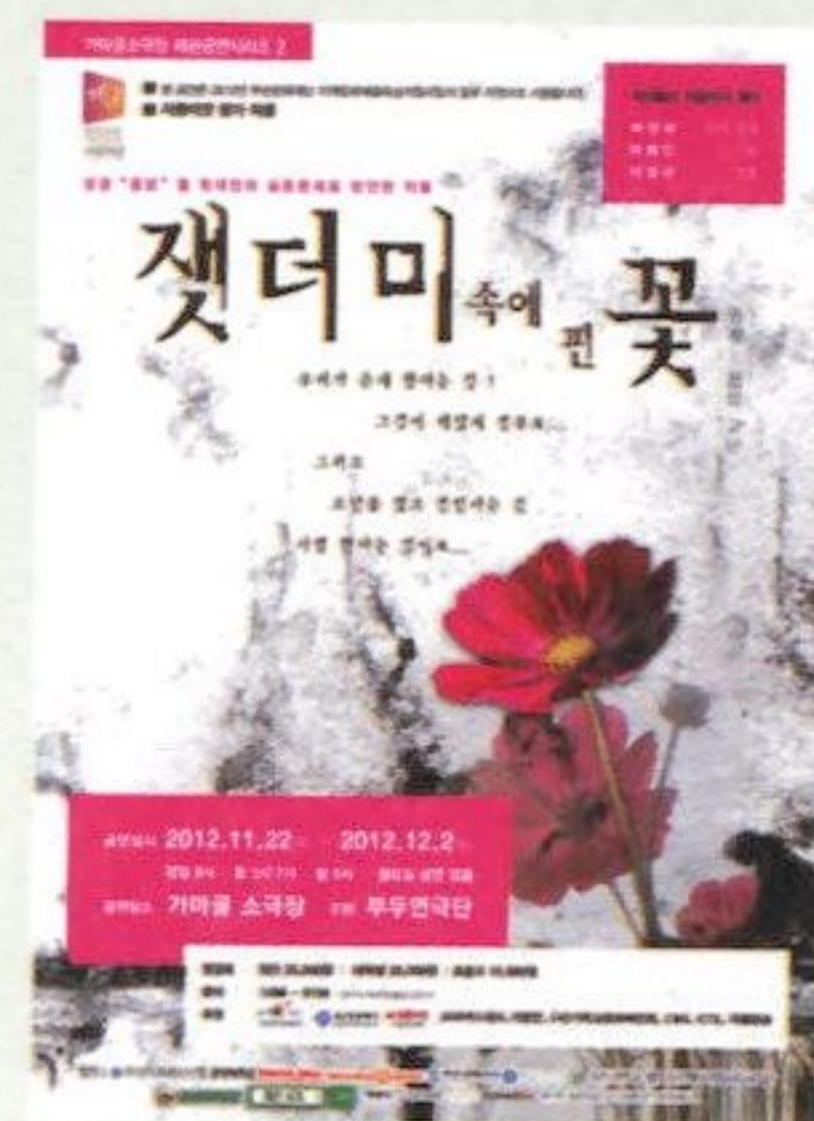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반달이의 가슴시린 사랑 이야기를 그린 창작뮤지컬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지난 2001년 초연 이후 2,500여회 공연을 통해 80만 관객을 동원한 화제작으로, 감성적인 스토리 외에도

연극적 상상력이 빛나는 무대 연출과 서정적인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있다.
·원작/서광현 ·작, 연출/박틀

부두연극단 '젯더미 속에 핀 꽃'

11월 22일(목)-12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5:00 (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 대학생 2만원
초중고 1만 5천원
문의 | 가마골소극장(1588-9155)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저스와 인간 중심의 실존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니클레스, 두 사람의 가치관 충돌을 통해 고난의 혼란에 빠진 인간의 내적 고민을 실존적 관점으로 보여주는 연극 '젯더미 속에 핀 꽃'.

·작/아칠볼드 머클리스
·번역/허정숙 ·연출/이성규
·출연/김학준, 임경민, 이재우, 김명희, 김홍식, 김기환, 하희진

뮤지컬 '빨래' 부산공연

11월 23일(금)-12월 2일(일)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 (월-목요일 공연없음) MBC롯데아트홀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문의 | (주)문화CONG(1688-8998)

서울 달동네 허름한 다세대 주택에서 저마다의 사연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가난하지만 건강한 삶을 그린 창작뮤지컬 '빨래'.

·출연/조현정, 엄태리, 이진규, 박정표, 김송이, 김국희, 장격수, 맹상열 외

찬양신학의 명문 국제찬양 신학대학원 겨울학기 신입생모집

국제수준 아쿠스틱 음향 연주홀 녹음홀
글로벌아트홀

음악목사과정 / 음악전도사과정 사모찬양사과정 / 평신도찬양사과정

자격 및 대상 | 지휘자 반주자 솔리스트 찬양대원 찬양팀 목사사모 선교사사모 학기개강 | 1월 3일 원서접수 | 12월 15일까지
제출서류 | 입학지원서(소정양식),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

글로벌아트홀의 첨단 시스템과
국내외 최고의 석학들의 교수진으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강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세미나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질 높은 맞춤형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국제찬양신학대학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온천3동1243-21) 3호선 4호선 미남역1번출구
에서 도보 5분 http://www.glovil.org ipseminary@naver.com T.051-505-5995 F. 051-505-5935

PROGRAM 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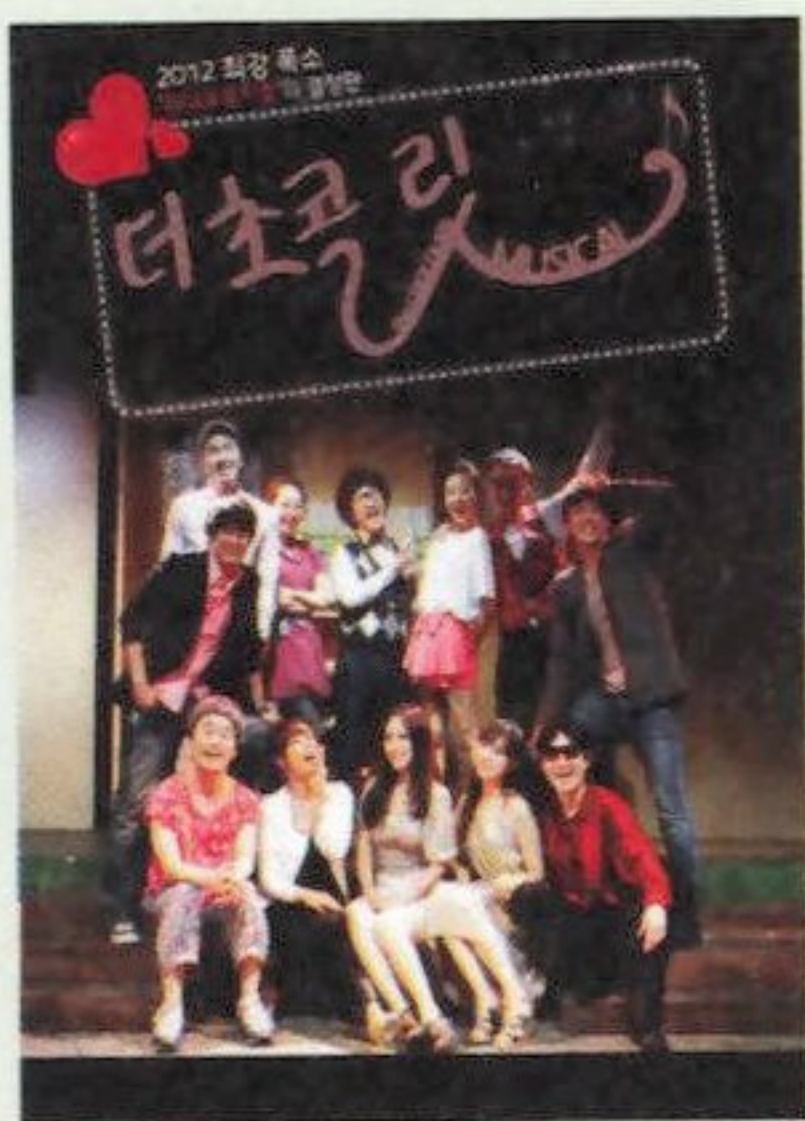
기타공연장

뮤지컬 '더 초콜릿'

2012년 11월 23일(금)-2013년 1월 1일(화)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12/24일, 12/31일 오후 5:00, 8:00,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한순간의 방송사고로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진 가수 밍크, 지역방송국 라디오 DJ로 한때 연인이었던 까칠한 PD 강철과 재회하면서 펼쳐지는 그들의 엇갈린 사랑을 유쾌하게 그린 감성뮤지컬.

· 연출/김은영

· 출연/이문석, 최대철, 이주훈, 강대윤, 구옥분 외

연극 '바쁘다 바빠'

2012년 11월 29일(목)-2013년 1월 1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12/24일 오후 5:00,
8:00, 12/31일 오후 8:00, 월요일 공연없음)
SM아트홀 3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의 | SM기획(1600-1602)

198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 빈민가족의 고단한 일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단면을 해학적으로 그려낸 연극 '바쁘다 바빠'.

뮤지컬 '룸메이트'

11월 30일(금)-12월 3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12/24일 오후 5:00, 8:00, 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Red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 플레이 더 부산(1600-0316)

한 집에서 우연히 살게된 세 남녀의 기막힌 동거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과 우정, 사랑을 그린 창작뮤지컬 '룸메이트'.

연극 '메카, 그해 따뜻한 겨울'

11월 30일(금)-12월 22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12/19일 오후 4:00)

미리내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미리내소극장(504-2544)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민작가 아돌 후가드의 '메카로 가는 길'을 각색, 현실속에서의 메카의 의미와 우리가 가져야 할 신념을 이야기하는 연극 '메카, 그해 따뜻한 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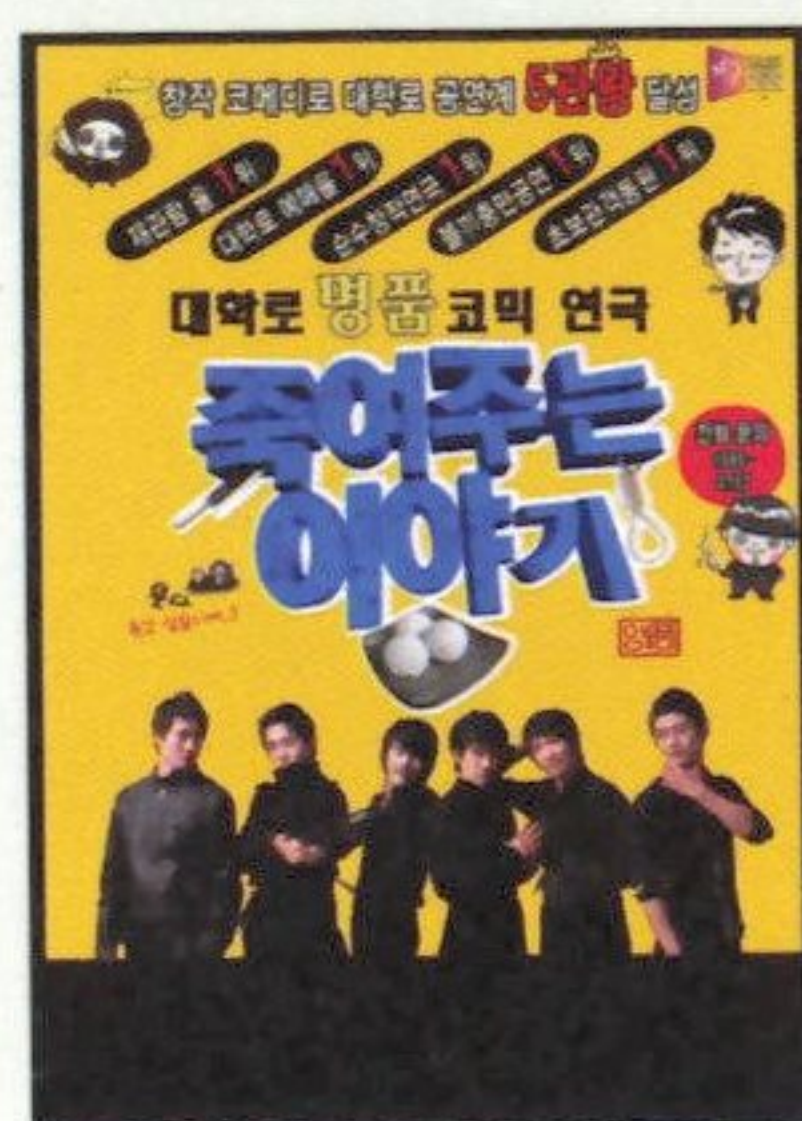
· 출연/구민주, 호민, 박규남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

2012년 11월 30일(금)-2013년 1월 1일(화)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죽음을 꿈꾸지만 자살한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배경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삶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블랙코미디극.

· 출연/김광석, 김유현, 이에

빈, 윤토왕, 주진오, 최종윤

가족뮤지컬 '호두까기인형'

12월 1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6일-7일 목-금요일 오전 10:30, 11:40,
8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예매시 1만 5천원)

문의 | 라일락향기(904-0825)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다운 선율과 화려한 무대장치, 다채로운 캐릭터 연기로 극의 재미를 더해주는 가족뮤지컬.

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12월 1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2일 일요일 오후 1:00, 3: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R석 2만 5천원 · S석 1만 5천원
문의 |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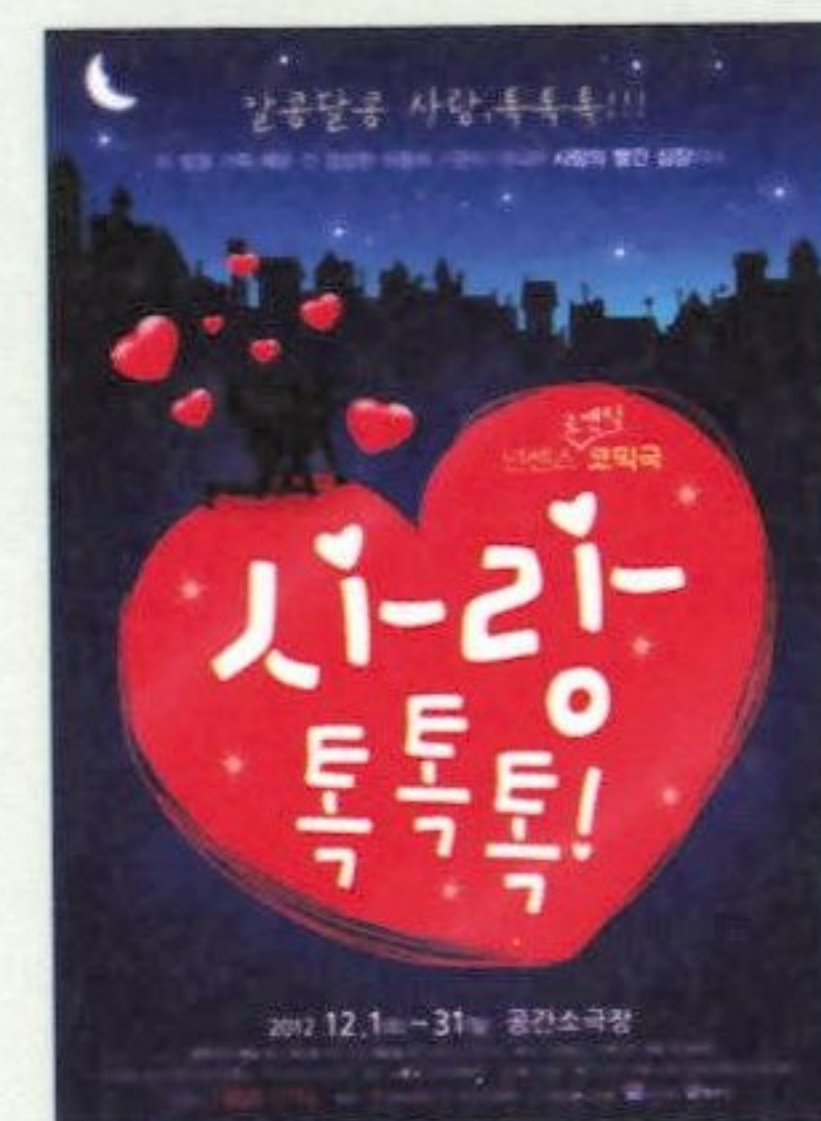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오즈의 나라로 가게된 도로시와 그의 친구들이 펼쳐는 꿈과 환상의 모험이 신나는 노래와 춤으로 펼쳐지는 가족뮤지컬.

년센스 로맨틱 코미극 '사랑 톡톡톡'

12월 1일(토)-12월 31일(월)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공간소극장(611-8518)



소설가를 꿈꾸는 성민과 그의 억척스러운 월가닥 애인 혜고, 그들의 원룸에 멍청한 좀도둑이 침입하면서 펼쳐지는 해프닝을 통해 우리가 자칫 잊고있는 진실한 사랑을 되돌아보는 로맨틱 코미극 '사랑 톡톡톡'.

· 작, 연출/전상배

· 출연/이수정, 이영봉, 한정혁, 박재현

코미크 무언극 '짜퐁'

12월 4일(화)-31일(월)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디코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공간아트컴퍼니(611-8518)



성공을 위한 경쟁이라는 틀 속에 얽매어 짜퐁이 난무하는 어지러운 세상에 몸으로 외치는 코미 해학마임극.

· 작/전상배

· 연출/하현관

· 출연/임선미, 김유하, 박미경, 강동욱, 구미석 외

어린이체험학습뮤지컬 '틀려도 괜찮아'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1:00, 오후 7:30,
6일 목요일 오전 11: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 5천원 · S석 2만원
(20인 이상 단체 8천원)
문의 | 극단 예일(02-555-0822~3, 1143)



선생님 질문에 틀릴까봐 손을 들지 못하는 수줍은 아이들에게 교실은 틀린 답을 이야기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곳을 아이들이 스스로 터득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어린이 뮤지컬 '틀려도 괜찮아'.

가족뮤지컬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12월 5일(수)~9일(일) 평일 오전 10:30, 11:40,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일요일 오후 1:00,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14일 금요일 오전 10:30, 11:40, 15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6일 일요일
오후 12:00, 2: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예매시 1만 5천원)
문의 | 라일락향기(904-0825)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눈내리는 마을 등 화려한 무대장치와 신나는 캐럴, 감동이 있는 이야기로 즐거움을 선사하는 가족뮤지컬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 작, 연출/조일영
· 출연/조일영, 송판수, 박병옥, 안진희, 안윤주, 이정현, 이국희, 김승현

코믹뮤지컬 '프리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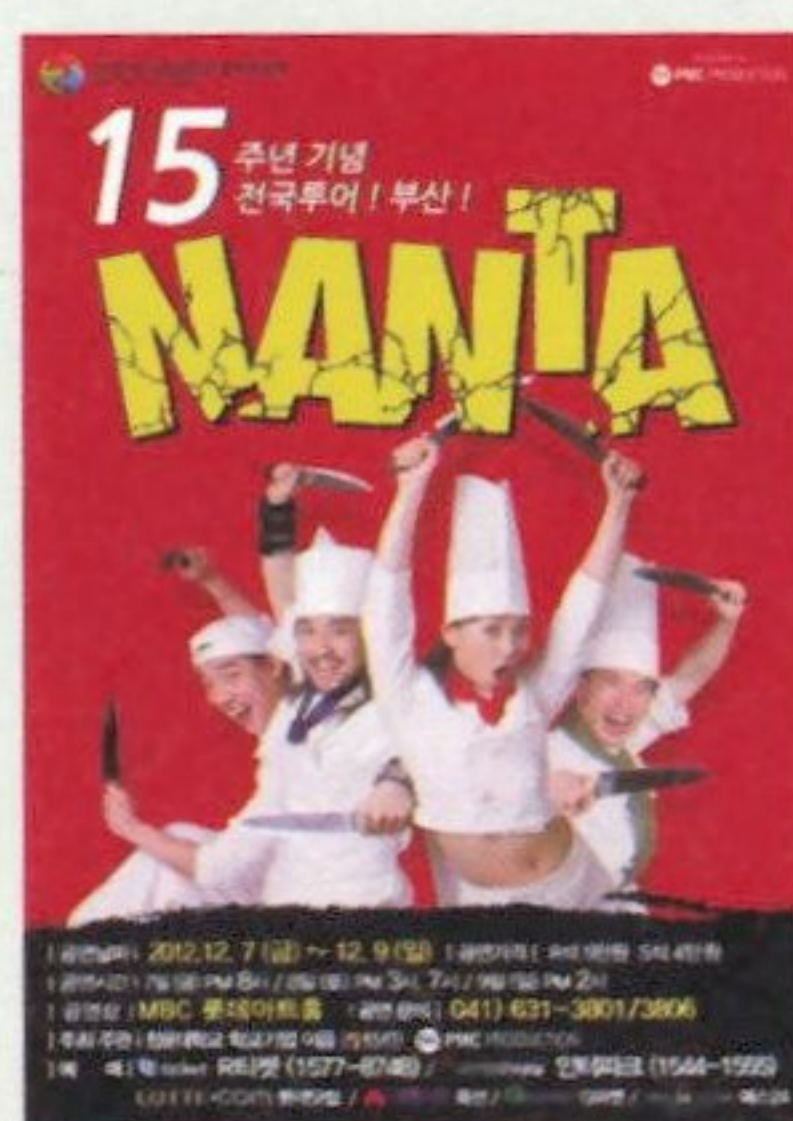
2012년 12월 6일(목)~2013년 2월 9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12/24일 오후 5:00,
8:00, 12/31일 오후 8:00, 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의 | SM기획(1600-1602)



가수를 꿈꾸는 탈옥범들의 요절복통 스토리를 담은 '프리즌'.
철저히 준비된 웃음과 자연스러운 애드립에 콘서트와 퍼포먼스, 비보잉, 미술, 개그 등 다채로운 장르가 결합되어 색다른 무대를 선사한다.

15주년 기념 전국투어! 부산! '난타'

12월 7일 금요일 오후 8:00,
8일 토요일 오후 3:00, 7:00,
9일 일요일 오후 2:00 MBC롯데아트홀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문의 | 학교기업 이음(041-631-3801, 3806)



한국 전통가락인 사물놀이 리듬을 소재로,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코믹하게 그린 '난타'는 칼과 도마 등 주방기구가 빛어내는 화려한 연주와 깜짝 전통혼례, 전통춤과 어우러지는 삼고무, 파워풀한 드럼연주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개그플러스

12월 9일 일요일 오후 1:30, 4:00, 7:00 KBS부산홀
입장료 | VIP석 6만 6천원 · R석 5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 SM기획(1600-1602)

멘붕스쿨, 생활의 발견, 불편한 진실, 막말자 등 인기 개그프로그램을 무대에서 생생히 만날 수 있는 폭소 개그무대.

가마골소극장 폐관시리즈 3 뮤지컬 '미스줄리'

12월 11일(화)~1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 가마골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 대학생 2만원
중고생 1만 5천원
문의 | 가마골소극장(1588-9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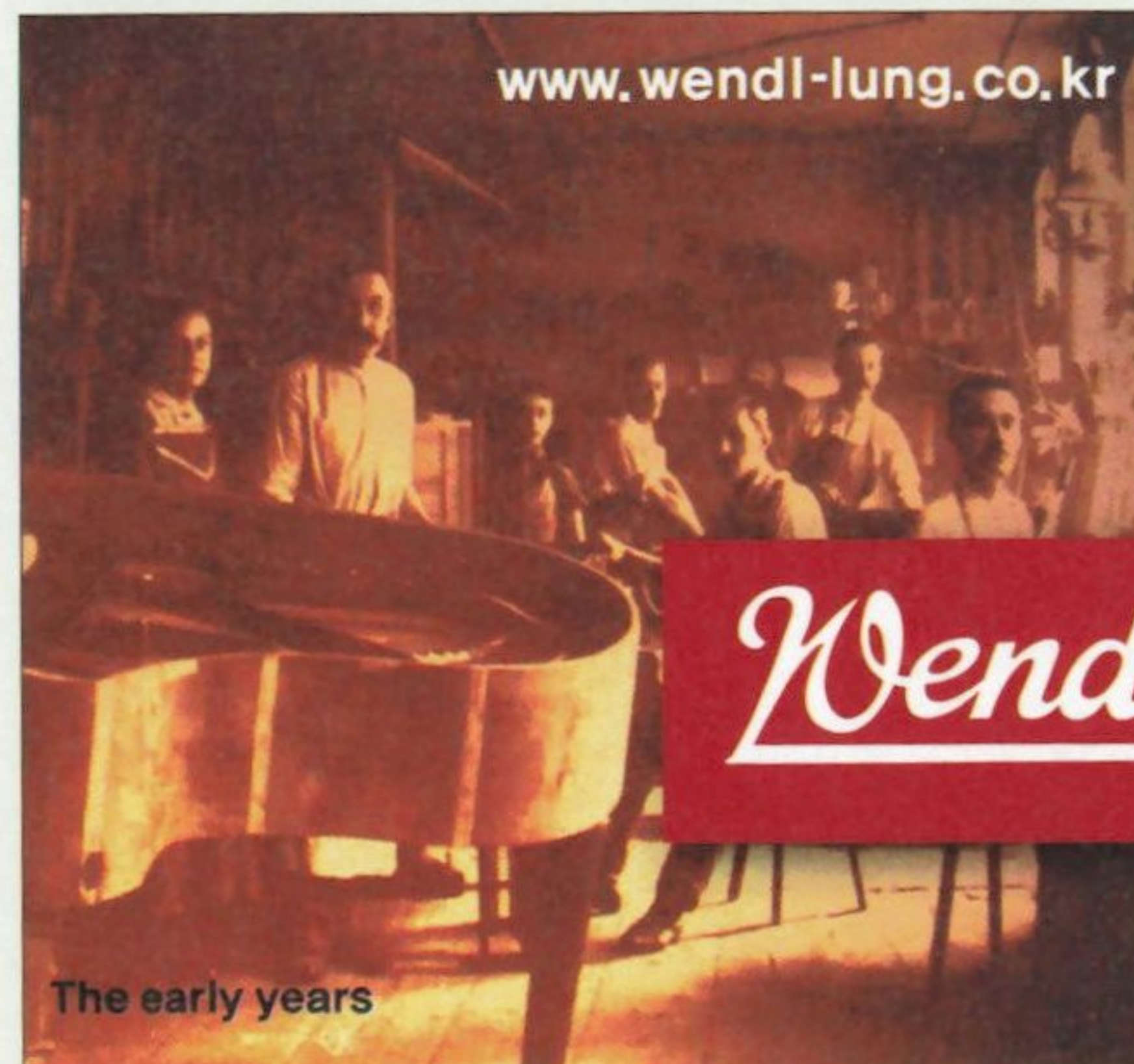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인 극작가이자 현대연극의 아버지로 불리는 스트린드베리의 대표작으로, 귀족인 백작의 딸 줄리와 하인인 장, 그리고 장의 약혼녀인 크리스틴 사이에서 생긴 사회적 계급과 성적 대립, 사랑과

욕망의 관계를 그린 '미스 줄리'.

- 원작/스트린드베리
- 작, 연출/이재경
- 출연/김소희, 박인화, 강호석

가족뮤지컬 '크리스마스 캐롤'

12월 13일(목)~16일(일) 평일 오전 10:30, 11:40,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일요일 오후 1:00,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예매시 1만 2천원)
문의 | 라일락향기(904-0825)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1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인색한 구두쇠 스크루지의 과거, 현재, 미래 여행을 통해 서로 나누는 따뜻한 마음의 소중함과 가족의 참의미를 되새기는 가족뮤지컬.

가마골소극장 폐관시리즈 4

연극 '오구-죽음의 형식'

2012년 12월 20일(목)~2013년 1월 6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입장료 | 일반 3만원 · 대학생 2만 5천원
중고생 2만원

문의 | 가마골소극장(1588-9155)



죽음이 주는 슬픔과 고통, 공포를 춤과 노래, 웃음으로 극복하는 가장 한국적인 가마골 대표작품 '오구'.

· 작, 연출/이윤택

극단 일터 앵콜공연 '국수집 남자 밥집 여자'

2012년 12월 20일(목)~2013년 1월 19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일-화요일 공연없음) 일터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초중고생 1만 5천원

문의 | 일터소극장(635-5370)



조선소가 들어선 한 동네의 산복도로에 위치한 국수집과 그 옆의 밥집을 배경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의 아픔을 감싸며 소통하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려낸 '국수집 남자 밥집 여자' 앵콜공연.

· 연출/김기영

· 작곡/김미원

· 출연/김선관, 조기정, 진선미

2012 뮤지컬 '맘마미아!'

2012년 12월 21일(금)~2013년 1월 13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30,
일 · 공휴일 오후 2:00, 6:30(12/24일 오후 3:00,
7:30, 12/26일, 월요일 공연없음)

센텀시티 소향아트센터

입장료 | VIP 12만원 · R석 10만원

A석 8만원 · B석 6만원

문의 | (주)예술기획 성우(1599-1980)



세계적인 팝그룹 '아바(ABBA)'의 히트곡 22곡을 엮은 주크박스 뮤지컬 '맘마미아!'.

주인공인 '도나'로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전수경, 이경미, 성기윤, 감미로운 음색의 가수 이현우가 환상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코믹극 '룸넘버 13'

12월 22일(토)~25일(화)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화요일 오후 2:00, 5:00, 8:00

(월요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 플레이 더 부산(1600-0316)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총재 비서의 스캔들을 소재로, 그 과정 속에서 펼쳐지는 황당한 상황과 이를 모면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모습에서 큰 웃음을 선사하는 코미극 '룸넘버 13'.

· 작/레이 쿠니

· 연출/양혁철

가족뮤지컬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12월 22일(토)~25일(화)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일요일 오후 1:00, 3:00,
월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화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의 |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명작동화를 신나는 노래와 춤이 함께하는 뮤지컬로 제작한 가족뮤지컬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산타와 함께하는 호두까기인형

12월 22일(토)~25일(화) 토요일, 화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일요일 오후 1:00, 3:00,
월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의 |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크리스마스 이브날 선물받은 호두까기인형과 떠나는 환상적인 모험이야기가 화려한 무대와 의상, 신나는 캐롤 속에 펼쳐지는 가족뮤지컬.

뮤지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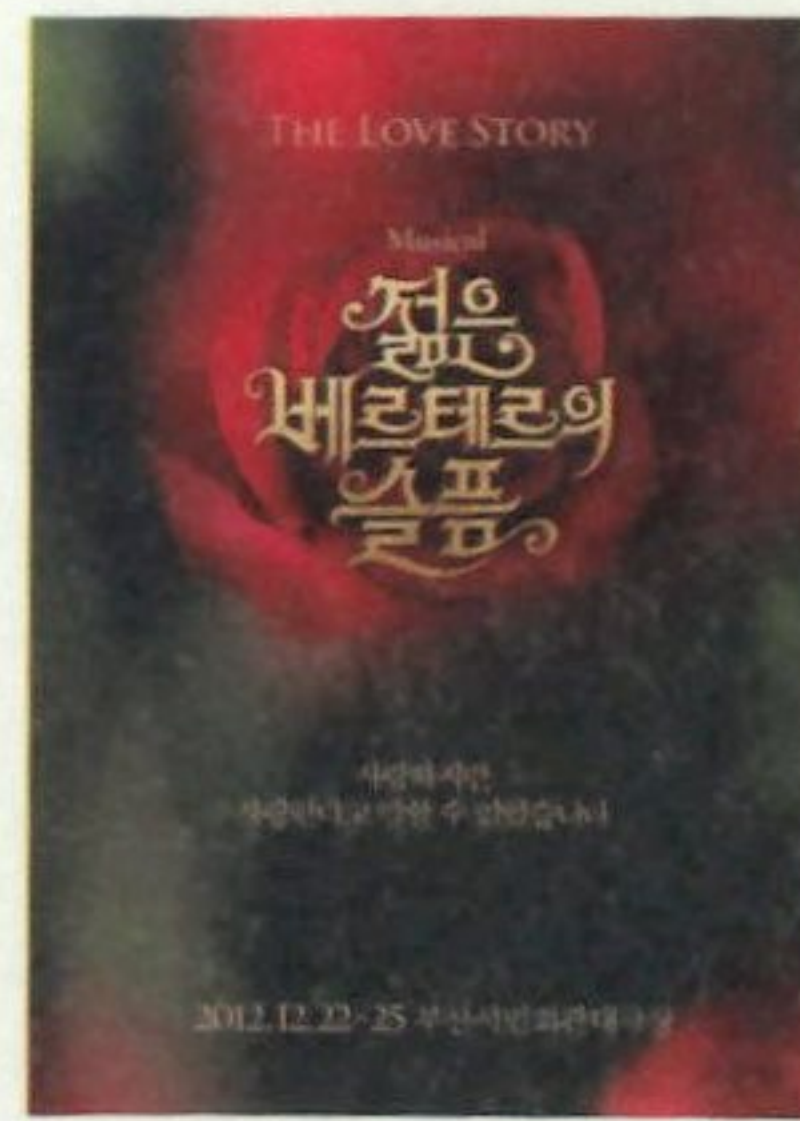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3일 일요일
오후 2:00, 24일 월요일 오후 6:00, 10:00,

25일 화요일 오후 2:00 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0만원 · R석 8만원 · S석 6만원

A석 5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R, S,
A석 10% 할인)

문의 | (주)WSM(1566-5490)



괴테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사랑 때문에 자신마저 던져버린 베르테르의 애절한 사랑을 그린 창작뮤지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번 무대에서는 2003년 베르테르 역을 맡아 섬세한 감정표현으로 관객의 눈물을

쏟아냈던 김다현과 뮤지컬 '풍월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재범과 성두섭이 캐스팅되어 서로 다른 3인 3색의 베르테르를 선보인다.

· 출연/김다현, 김재범, 성두섭, 김아선, 김지우, 홍경수, 이상현, 서주희, 지현준, 오승준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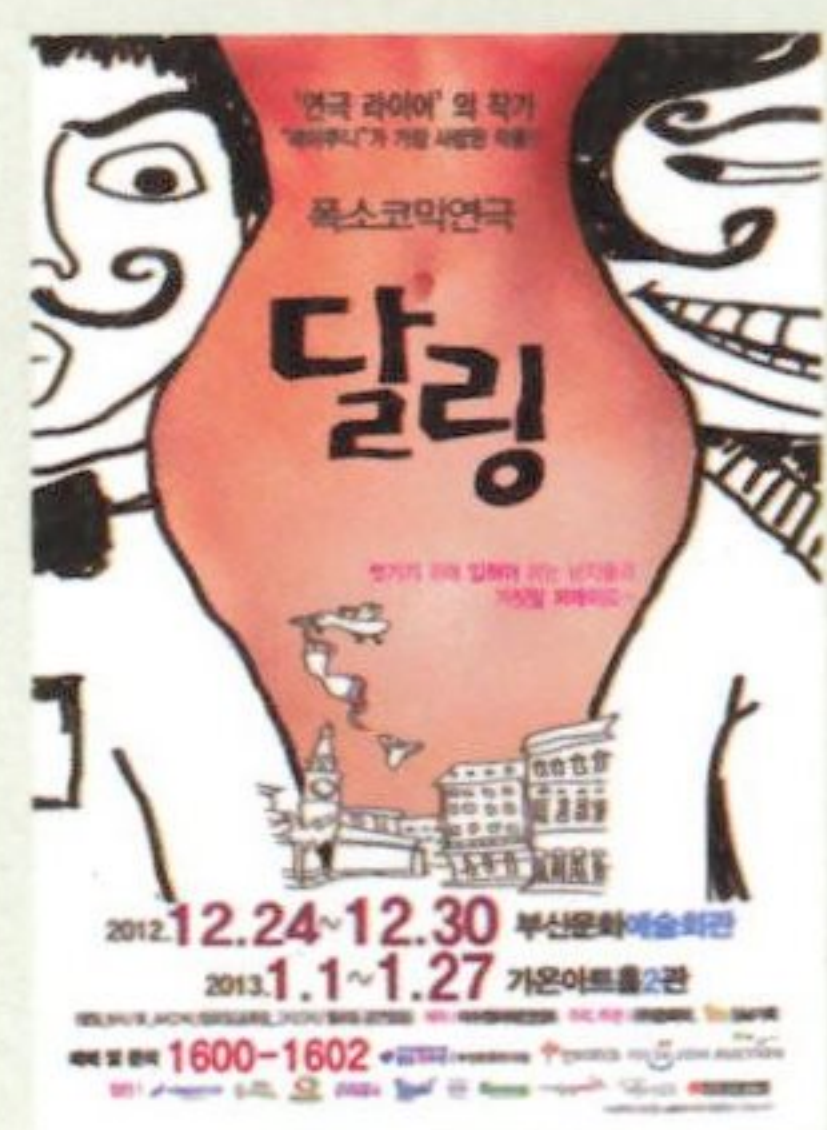
마스크플레이 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2012년 12월 22일(토)-2013년 1월 20일(일)
 월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5:00,
 화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목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7:30,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일 공연없음) MBC롯데아트홀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문 의 | (주)문화CONG(1688-8998)

애니메이션과 영화, 뮤지컬에 이어 마스크플레이 뮤지컬로 탄생된 '오즈의 마법사'.
 45년 전통의 일본 극단 히코센 최고의 히트작으로, 섬세하게 제작된 캐릭터 마스크와 동화속 상상력을 눈 앞에서 즐길 수 있는 무대 특수효과, 신기한 마법의 나라를 표현한 화려한 무대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폭소코믹연극 '달링'

12월 24일(월)-3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
 (12/24일 오후 5:00, 8:00, 월요일 공연없음)
 부산예술회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 의 | SM기획(1600-1602)



연극 '라이어'의 작가 레이 쿠니의 또다른 폭소 코믹극 '달링'.
 모피샵을 배경으로 바람둥이 통과 순진한 제리가 섹시한 스트립걸 비비안으로 인해 격는 해프닝을 통해 웃음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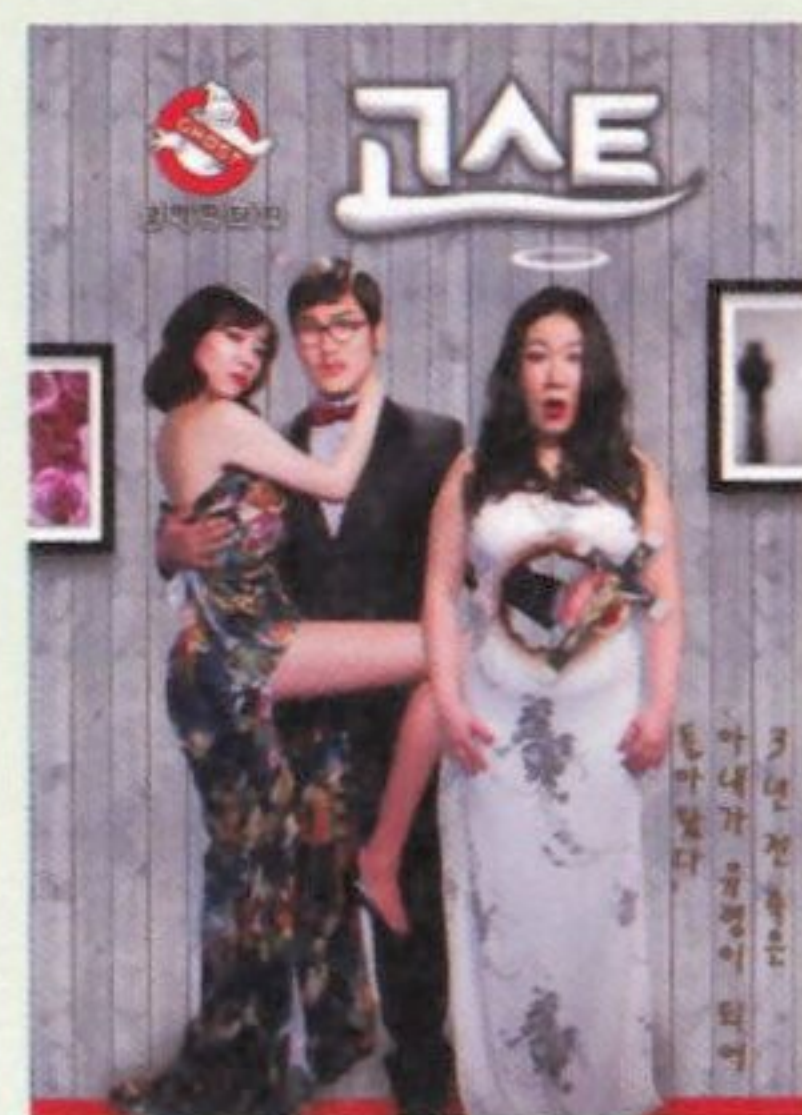
을숙도문화회관 연극열전 극단 맥 '신고합니다'

12월 26일(수)-29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극단 맥(625-2117)

불쌍한 자여 그대 이름은 쫓병, 그의 시선에서 바라본 군대에 대한 모든 이야기 연극 '신고합니다'.

코믹판타지극 '고스트'

12월 28일(금)-31일(월)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2:00, 5:00, 8: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 의 | 플레이 더 부산(1600-0316)



영국작가 노엘 카워드 의 '유쾌한 유령'을 원작으로 한 코믹 판타지극 '고스트'.
 어느날 죽은 아내가 유령이 되어 돌아오면서 펼쳐지는 한 집 두 아내와의 불편한 동거를 통해 '결혼과 불륜'을 유쾌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출연/김지훈, 김중석, 박진영, 이하늬, 채수욱, 이다희

가족뮤지컬 '호두까기인형'

12월 29일 토요일 오후 2:00, 5:0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4)

호두까기인형과 떠나는 신나는 모험과 환상의 세계가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펼쳐지는 가족뮤지컬.

Dance

안선희 개인공연

12월 3일 월요일 오후 8: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안선희(010-8782-2157)



부산대 무용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대무용단 자유 단원, Ahn dance academy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안선희는 이번 무대에서 인간의 원초적 성향과 억척스러운 생명력을 표현한 창작춤 'The park'를 선보인다.

김옥련발레단 '분홍신 그 남자'

12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12월 9일 일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3만원 · 2층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김옥련발레단(626-9486)



운명처럼 '춤'과 함께 살아왔으나 이제는 치매환자가 되어 기억을 잃은 한 여자와 그 여인을 바라보는 한 남자의 쓸쓸한 시선 속에 생각, 예술과 삶을 춤언어로 그려낸 창작무대.

·안무/김옥련, 이원국
 ·출연/이원국, 김옥련, 안유리, 최연순, 최예원, 김동우, 임정인, 김현애, 강경원

JDT 정지윤 댄스씨어터 'Dialogue & Sound'

12월 7일 금요일 오후 8:00,
 8일 토요일 오후 5:00 LIG아트홀 부산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 의 | LIG아트홀 부산(1544-3922)



뮤지컬, 콘서트, 무용극, 현대무용을 넘나들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정지윤의 2012년 신작 무대.
 타인과의 대화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관계를 소리를 통해 표현한 창작춤 'Dialogue & Sound'를 선보인다.

·안무, 연출/정지윤

허경미 무용단 Red-Step 전통공연 뿌리-창작춤의 근원

12월 9일 일요일 오후 6: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허경미무용단 Red-Step (010-2762-1827, 010-4615-5788)

부산 춤판을 이끌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은 춤꾼 허경미가 이끄는 허경미 무용단 Red-Step의 전통춤판.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허경미무용단 Red-Step은 2012 부산무용제 대상, 2012 전국무용제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승무, 봉산8목, 맞이 춤과 살풀이, 승전무, 덧배기 춤과 소고춤

· 반주/젊은 소리쟁이 · 연출/남기성
· 출연/허경미, 남기성, 서지영, 박광호(지기금지 단원), 한정재(중요무형문화재 통영승전무 보유자) 외

2012 박경량의 춤 '同苦同樂'

12월 12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문 의 | 박경량무용단
(011-9523-4604, 010-7102-0205)



전통문화의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춤꾼 박경량의 2012년 세 번째 출판

자신의 대표춤인 영남교방 청춤을 비롯해 황진이 시조 '상사몽'을 현대적 관점

에서 풀어낸 '문동복춤', 오랜 숙련의 깊이가 없으면 결코 소화해 낼 수 없는 '교방소반춤'을 선보인다.

· 출연/박경량, 연희집단 The광대, 서정금, 김미진(이상 소리), 최태웅(해금), 류아름(신디사이저)
· 해설/박승찬

2012 춤으로 갈무리하다

12월 16일 일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전석 초대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38)

국립부산국악원과 부산무용협회, 부산시립무용단 등 부산의 주요 3개 춤단체가 함께하는 춤 교류전 세 번째 무대.

우리춤으로 부산춤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한 뜻깊은 무대로, 전통춤과 창작춤을 포괄하는 풍성한 무대를 선보인다.

울속도문화회관 '수요일은 춤'

12월 19일 수요일 오후 8: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220-5812)

울속도문화회관이 매월 셋째주 수요일 마련하는 신진무용가들의 새로운 도전무대 '수요일은 춤'.
부산대학교 강미리, 박은화 교수의 제자들이 전통무용과 현대무용을 선보인다.

서울발레시어터 '호두까기인형'

12월 24일 월요일 오후 8:00,
25일 화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서울발레시어터 상임안무가 제임스 전의 안무와 연출로 새롭게 탄생된 고전발레의 걸작 '호두까기인형'.

크리스마스 이브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소녀의 꿈을 소재로,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다운 음악과 다채로운 춤,

화려한 의상과 무대가로 감동을 선사한다.

· 재안무, 연출/제임스 전 · 출연/서울발레시어터

Concert

남진과 함께하는 7080 송년콘서트

12월 5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4)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향수, 가수 둘다섯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519-5661~3)

세시봉 3인의 거장 콘서트

-윤형주, 송창식, 김세환

12월 8일 토요일 오후 7:00 벅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VIP 12만 1천원 · R석 1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SM기획(1600-1602)

해운대문화회관 위일청 미니콘서트

12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2012 J.Y.PARK LIVE CONCERT -부산

12월 21일 금요일 오후 8:00,
22일 토요일 오후 7:00 KBS 부산홀
입장료 | R석 12만 1천원 · S석 11만원 · A석 9만 9천원
B석 8만 8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S, A, B석 10% 할인)
문 의 | (주)WSM(1566-5490)

부활 콘서트

12월 23일 일요일 오후 2:00, 6:00
롯데호텔부산 크리스탈볼룸
입장료 | VIP석 11만원 · R석 9만 9천원
S석 8만 8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SM기획(1600-1602)

L.E.V

12월 21일 금요일 오후 8:00,
23일 일요일 오후 8:00 LIG아트홀 부산
입장료 | 균일 2만원(울스탠딩)
문 의 | LIG아트홀 부산(1544-3922)

공연의 신 이승환 크리스마스 콘서트

12월 24일 월요일 오후 8:00,
25일 화요일 오후 6:00 KBS 부산홀
입장료 | R석 11만원 · S석 9만 9천원
A석 8만 8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S, A석 10% 할인)
문 의 | (주)WSM(1566-5490)

2012 THE 신승훈 SHOW POP TOUR-부산

12월 28일 금요일 오후 8:00,
29일 토요일 오후 7:00 KBS 부산홀
입장료 | R석 12만 1천원 · S석 11만원
A석 9만 9천원 · B석 8만 8천원(부산문화
회관 정기회원 S, A, B석 10% 할인)
문의 | (주)WSM(1566-5490)

2012 페퍼톤스 연말 콘서트 'fine.' -부산

12월 28일 금요일 오후 8:00,
29일 토요일 오후 6: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7만 7천원 · S석 6만 6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S석 10% 할인)
문의 | (주)WSM(1566-5490)

슈퍼스타K4 TOP12 CONCERT-부산

12월 31일 월요일 오후 6:00, 11:00 KBS 부산홀
입장료 | R석 8만 8천원 · S석 7만 7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S석 10% 할인)
문의 | (주)WSM(1566-5490)

Event

무지크바움 음악감상회

후기낭만 교향곡-말러&브루크너

12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7천원
문의 | 무지크바움(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 1부/브루크너 교향곡 6번
- 2부/말러 '천인 교향곡' (지휘/리카르도 샤이,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블루레이)

제117회 저녁에 만나는 아름다운 시

12월 5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의 | 김예강(010-5516-1867)

- 초대시인/고명자, 김다희, 박춘석, 송진, 서화성, 허영숙, 박진희(연극배우)

**부산 알바트로스 시낭송문학회
제70회 기념 송년특집 애송시 낭송회
'내 마음의 시'**

12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의 | 김옥균(010-6367-0149)

Gallery

터키문명전 '이스탄불의 황제들'

2012년 10월 9일(화)-2013년 1월 27일(일)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입장료 | 일반 1만원 · 중고생 9천원
초등학생 7천원 · 유아 및 65세 이상 5천원
문의 | (주)시월ENC(1666-4392)

한국 · 독일 현대미술의 조명전

2012년 11월 16일(금)-2013년 1월 10일(화)
김민정갤러리
문의 | 김민정갤러리(514-6007)

제8회 송혜수 미술상 수상기념

김응기 '지움, 기록의 흔적'

11월 23일(금)-12월 15일(토) 갤러리 아트 숲
문의 | 갤러리 아트 숲(731-0780)

通涉과 어울림

11월 27일(화)-12월 9일(일) 갤러리 봄디
문의 | 갤러리 봄디(070-7720-6862)

윤광조展

2012년 11월 28일(수)-2013년 1월 27일(일)
조현화랑 부산
문의 | 조현화랑 부산(747-8853)



이지후展 'Silent Language 침묵의 언어'

12월 4일(화)-12월 29일(토) 갤러리아인
문의 | 갤러리아인(747-2612)

미술단체 군록회 초대전

12월 4일(화)-12월 10일(월) 타워갤러리
문의 | 타워갤러리(464-3939)

'한국의 크리스마스'展

12월 7일(금)-12월 26일(수) 롯데화랑 부산점
문의 |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고은사진미술관 기획전 'The Origin 근원'

2012년 12월 8일(토)-2013년 2월 21일(목)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

동화적 표상과 상상들 -7인의 캐릭터전

12월 10일(월)-1월 5일(토) 갤러리 움
문의 | 갤러리 움(557-3369)

- 참여작가/김계현, 김영미, 최규식(조형), 김범수, 양소연, 이영식, 한충석(회화)

여성현대미술 작가회 정기전

12월 10일(월)-12월 16일(일) BS부산은행 갤러리
문의 |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박은희 서양화 전

12월 11일(화)-12월 17일(월) 타워갤러리
문의 | 타워갤러리(464-3939)

타나카 유리치로 '단편도시-동경展'

2012년 12월 15일(토) -2013년 1월 28일(월)
토yota 포토 스페이스
문의 | 토요타 포토 스페이스(744-3924)

제18회 구명본 개인전

12월 17일(월)-12월 26일(수) BS부산은행 갤러리
문의 |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연말연시 선물 작품전

12월 18일(화)-12월 31일(월) 타워갤러리
문의 | 타워갤러리(464-3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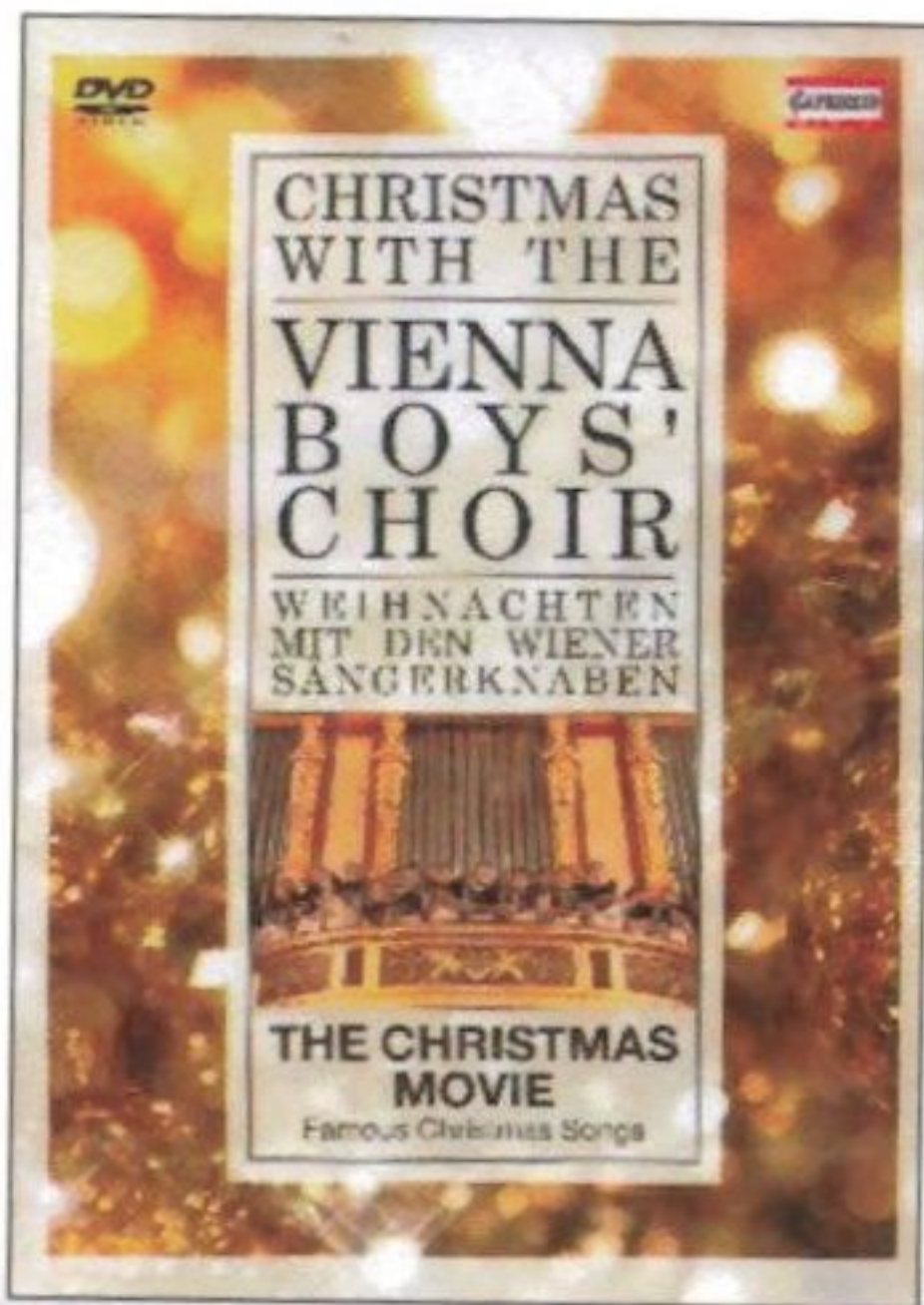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창립 75주년 기념음반 Vol.1

베토벤 교향곡 8번, 생상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쇼팽 피아노협주곡 1번 외
에프게니 키신(pf), 줄리안 라츨린 & 바딤 레핀(vn), 주빈 메타(지휘),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에프게니 키신, 바딤 레핀, 줄리안 라츨린이 펼치는 특별한 갈라 콘서트

2011년은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창립 75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이전인 1936년에 첫 연주회를 가졌던 이 오케스트라는 클래식 음악계를 쥐락펴락하는 유대계 아티스트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빠른 시간 안에 유럽과 미국의 쟁쟁한 악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상급 오케스트라로 급성장하였다. 본 영상물은 2011년 12월 24일 텔아비브에서 있었던 이들의 창립 75주년 기념 갈라콘서트 실황을 담은 것이다. 1981년 이래로 이 악단의 종신 음악감독으로 재임 중인 주빈 메타가 지휘봉을 잡았고, 우리 시대의 위대한 연주자 세 사람이 자신들의 빼어난 기량을 맘껏 경쟁하였다. 에프게니 키신은 쇼팽의 피아노협주곡 1번을 통해 유려한 기교와 섬세한 터치를 함께 선보였으며, 생상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를 연주한 줄리안 라츨린과 쇼송의 '시곡'을 연주한 바딤 레핀은 각각 화려한 초절기교와 감미로운 서정을 유감없이 자랑하였다.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하는 베토벤의 교향곡 8번의 아기자기한 매력도 놓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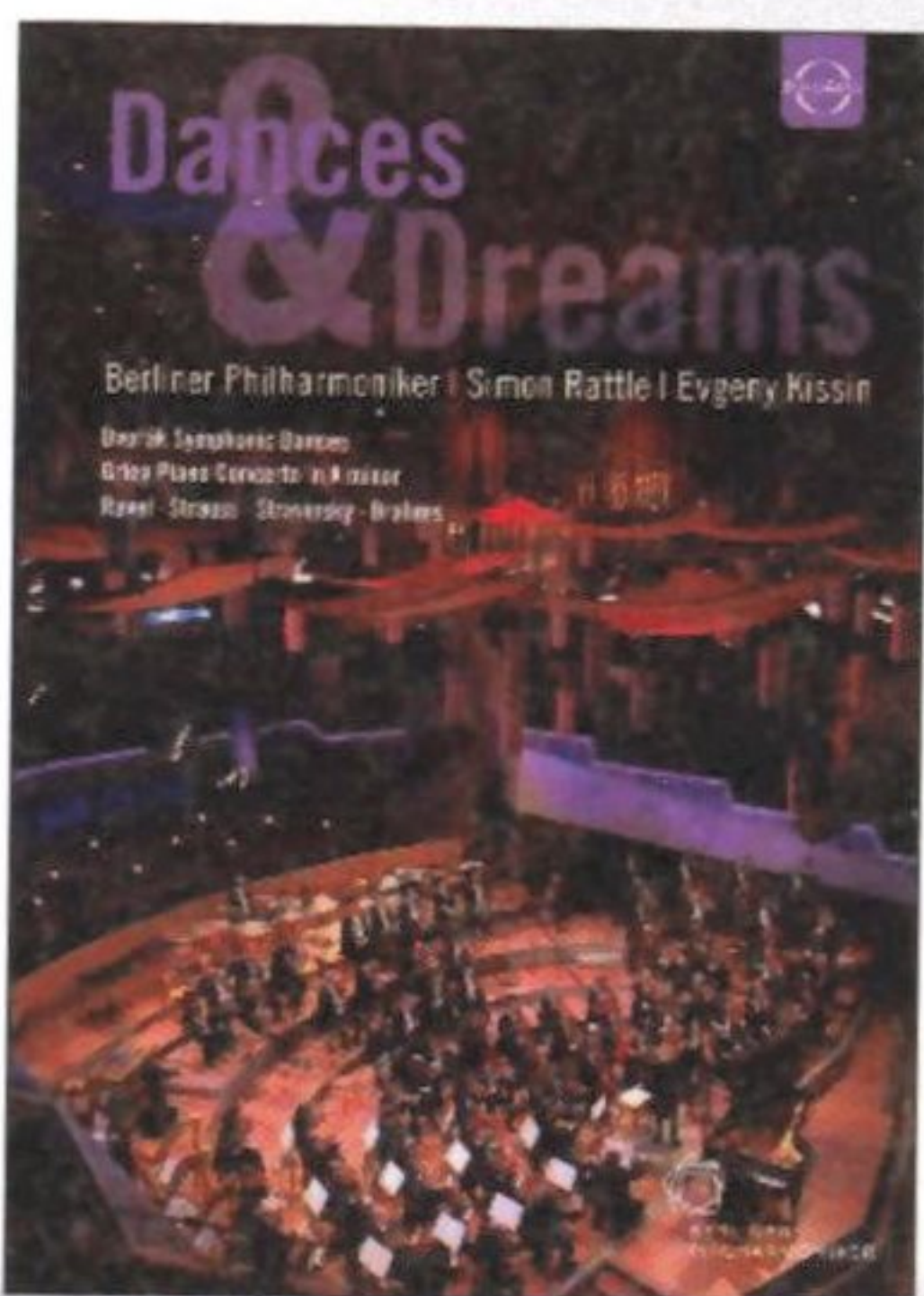


빈 소년합창단과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

레너드 번스타인(지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 귀에 익은 캐롤 선율들과 함께 하는 빈 소년합창단 단원들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빈 소년합창단의 어린 단원들에게도 흥분과 기대를 갖게 만드는 특별한 명절이다. 본 DVD는 'Joy to the World', 'The Little Drummer Boy', 'Deck the Halls', 'Stille Nacht', 'Adeste Fideles' 등을 비롯한 유명 캐럴을 배경으로 자신들의 보금자리인 아우가루텐 궁전에서 그들만의 소박한 크리스마스축제를 준비하는 빈 소년합창단원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뮤직비디오와 같은 스타일로 촬영한 영상이다. 40분가량의 짧은 수록시간과 낮은 해상도의 화면이 아쉽긴 하지만, 빈 소년합창단의 맑고 깨끗한 앙상블로 노래되는 귀에 익은 캐롤들의 선율을 감상하는 즐거움과 함께 여느 소년들과 같은 소년합창단 단원들의 천진한 모습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의 여운을 한층 포근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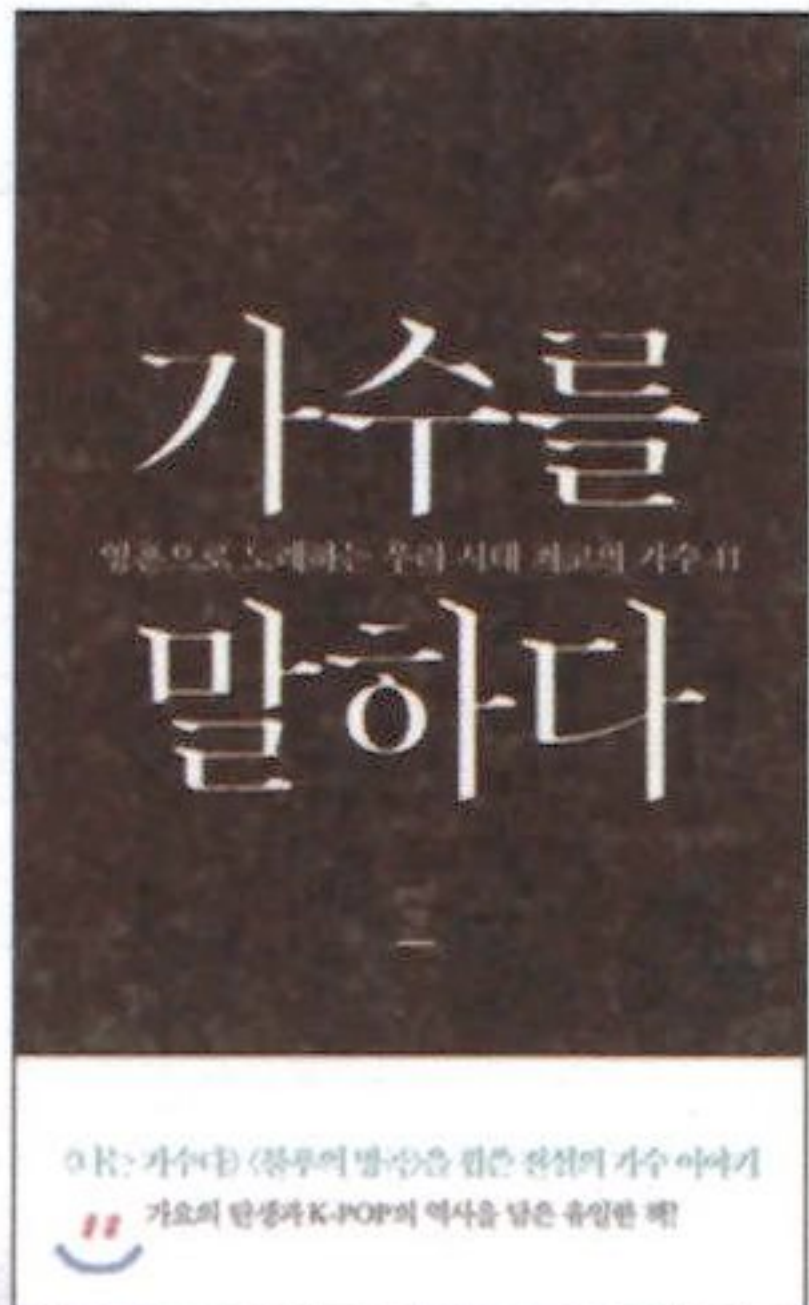
Dances & Dreams - 2011년 베를린 필하모니 송년음악회

그리그 피아노협주곡, 스트라빈스키 불새 모음곡, R. 슈트라우스 일곱 베일의 춤 외
에프게니 키신(pf), 사이먼 래틀(지휘), 베를린 필하모니커

▶ 사이먼 래틀의 신명나는 지휘와 에프게니 키신의 감미로운 피아노

2011년을 마무리하는 베를린 필하모니커의 송년음악회가 '춤과 꿈(Dances & Dreams)' 라는 제목으로 화려하게 펼쳐졌다. 드보르작의 슬라브춤곡 작품46-1로 호쾌하게 시작된 콘서트는 감미로운 그리그의 심포닉 댄스 작품64-2, 일본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를 통해 유명해진 라벨의 몽환적인 '어릿광대의 아침노래', R. 슈트라우스 특유의 감각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이 빛나는 '살로메' 중 '일곱 베일의 춤'을 거치며 점점 열기를 고조시켜나간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피아노의 거장 에프게니 키신은 로맨틱 피아노협주곡의 대명사와 같은 그리그의 피아노협주곡으로 신명나는 춤곡들 사이에서 꿈과 같은 매력적인 한 순간을 만들어나간다. 스트라빈스키의 발레 걸작 '불새' 중에서 발췌한 관현악 모음곡이 콘서트의 절정을 장식하며, 브람스의 헝가리춤곡 1번과 드보르작의 슬라브춤곡 작품72-7으로 이 화려하고도 흥겨운 콘서트가 마무리된다.





가수를 말하다

임진모 지음 / 빅하우스 / 148p / 1만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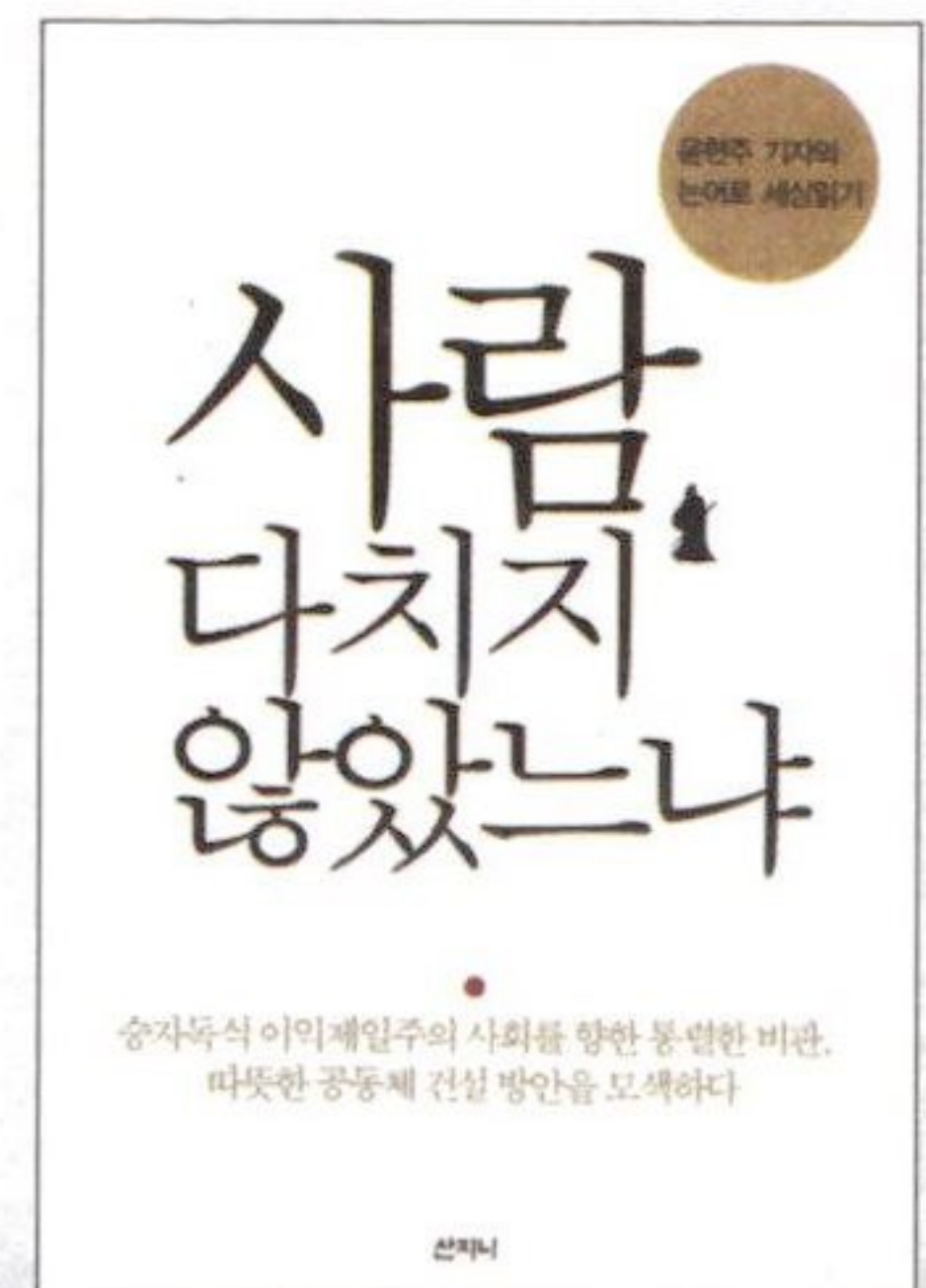
이야기에는 거짓이 있어도, 노래는 거짓이 없다는 말도 있다. 노래를 듣는 순간 가슴에 와 닿아야 하니, 억지로 만들고 꾸미지 않고 진실 그 자체를 담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 노래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런 노래를 부른 가수가 한국가요사의 전설로 남는다. 대중음악 평론가인 임진모 씨가 20여 년간 쌓아온 인터뷰, 취재 자료, 평론을 토대로 가수 41명과 가요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다. 대중음악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해온 저자의 이 책은 우리 대중음악의 역사적 자료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수들의 인터뷰와 리뷰를 넘나들면서 대한민국 가요 역사를 정리했다. 1960년대 미8군과 번안가요에서부터, 1970년대 대마초 파동, 1980년대 팝을 이겨낸 한국가요, 그리고 1990년대 우리 음악의 혁명과 현재의 케이팝에 이르기까지 두루 살피고 있다. 이 책의 소재목들을 보면, 한 가수의 특징이, 또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엘레지의 여왕 이미지', '한국 락의 대부 신중현', '전국을 삼킨 라이벌 남진과 나훈아', '탁월한 듀오, 빛나는 솔로 트윈폴리오', '진실한 독백 김광석' 등. 당장 음악을 틀어 노래를 듣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책이다.



그림공부 인생공부

조정욱 지음 / 아트박스 / 272p / 1만 6천원

조정욱 씨는 그림을 통해 동양의 문사철(文士哲)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산다. 동양미술사를 전공한 저자는 대학강의와 저술활동을 통해 동양의 마음과 정신을 전해주고 있다. 사람들이 옛 그림과 친해지는 가운데 삶의 질을 높이고, 옛 그림에 깃든 생활의 지혜와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옛 그림이 실은 우리의 '오래된 미래'임을 꾸준히 전파해온 것이다. 저자가 옛 그림을 통해 들려주는 이야기 방식은 특이하다. 모란꽃에 대한 그림을 이야기 할 때는 모란꽃을 사랑했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다. 그림을 감상하는 주체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옛 그림과 만나는 것이다. 저자는 옛 그림을 통해 사계절을 나면서 일상에서 부딪치며 겪은 소소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렇게 그림을 넘어서 이야기는, 독자의 마음속에 그림과 함께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온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옛 그림과 오늘날 우리의 일상이 나란히 걷고 있는 아름다운 동행을 발견할 수 있다. 저자는 "과거의 그림이 현재의 나와 전혀 관련 없는 박제된 형식이 아니라 현재 내 삶과도 얼마든지 동행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사람 다치지 않았느냐

윤현주 지음 / 산지니 / 318p / 1만 5천원

25년간 언론인의 외길을 걸어온 윤현주 부산일보 논설위원이 칼럼집을 펴냈다. 이번에 펴낸 칼럼집은 기자적 시각으로 논어를 해석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한 글을 모아 엮은 책이다. '논어'는 공자와 그 제자들의 언행이 담긴 유교 경전이다. 이 책은 일반인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논어'를 현실과 연결시키면서, 재미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저자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논어'에 대한 지식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 쉽고 재미있게 읽히면서 동시에 시사교양 칼럼의 맛을 제공한다. 책 제목 (사람 다치지 않았느냐)는 논어 향당편 제 12장에서 따왔다. 공자의 집 마구간에 불이 났는데, 공자는 주요 재산인 말보다 "사람이 상했느냐?"고 먼저 물었다고 한다. 공자의 인본주의 사상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이야기다. 저자는 공자의 인본주의 사상에서, 21세기 글로벌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이 책은 인성과 창의력을 강조하는 교육이 왜 필요한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된 리더십은 무엇인지, 우리의 정치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사회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는 왜 필요한지 등의 시대적 명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공자의 지혜를 빌어 제시한다.



SPECIAL MOVIE



레미제라블

12월 25일 개봉, CGV서면 외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원작소설을 바탕으로 1985년 런던에서 초연된 후 미국 브로드웨이를 비롯해 총 41개국, 21개 언어로 공연되며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최고의 뮤지컬이다. 이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스크린으로 옮긴 영화 '레미제라블'이 12월, 전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봉된다. 세계 4대 뮤지컬로 불리는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 '캣츠', '미스 사이공'의 프로듀서 카메론 맥킨토시가 직접 제작을 맡고 아카데미 4관왕을 수상한 '킹스 스피치' 톰 허퍼 감독이 연출을 맡은 영화 '레미제라블'은 주인공 장발장 역을 맡은 휴 잭맨을 비롯해 앤 해서웨이, 러셀 크로, 아만다 사이프리트, 헬레나 본햄 카터 등 할리우드 최고의 명배우들이 출연하면서 개봉전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거듭되는 불행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아이콘' 장발장 역으로 분한 휴 잭맨은 이제까지 보여주었던 액션 스타로서의 모습과 달리 진중하고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사랑하는 딸 코제트를 위해 그 어떤 고난조차 달게 받아들인 여인 판틴 역을 맡은 앤 해서웨이가 삭발은 물론 11kg을 감량하며 연기투혼을 선보인다.



신의 소녀들

12월 6일 개봉, 부산국도예술관 외

2012년 칸영화제 각본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천재감독 크리스티안 문주의 세 번째 영화 '신의 소녀들'. 지금까지 모두 세편의 장편영화를 연출한 루마니아 태생의 크리스티안 문주 감독은 장편 데뷔작인 2002년작 '내겐 너무 멋진 서쪽 나라'로 같은 해 칸영화제 감독주간에 상영됐으며, 2007년 두 번째 장편인 '4개월, 3주... 그리고 2일'로 단숨에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해 황금종려상을 거머쥐며 세계영화계가 주목하는 거장의 대열에 올라섰다. '신의 소녀들'들은 영화제 당시 시상식 직전까지 미카엘 하네케 감독의 '아무르'와 박빙의 승부를 겨뤘으며, 두 편 모두 '스크린 인터내셔널' 데일리의 최고 평점을 기록하며 평단과 관객, 모두의 열렬한 찬사와 환호를 받았다. 올해 칸영화제 최고의 화제작으로 손꼽히는 '신의 소녀들'은 2005년 루마니아에서 일어난 실화를 다룬 타티아나 니콜레스쿠 브렌의 논픽션 소설 '죽음의 고백'을 원작으로, 그리스정교회의 강한 전통과 규율을 지키며 살아가는 루마니아 몰다비아 지역에서 종교라는 믿음과 선의 아래 행해지는 개인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 빚어낸 비극을 냉정하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그려냈다.



제9회 일본영화제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만화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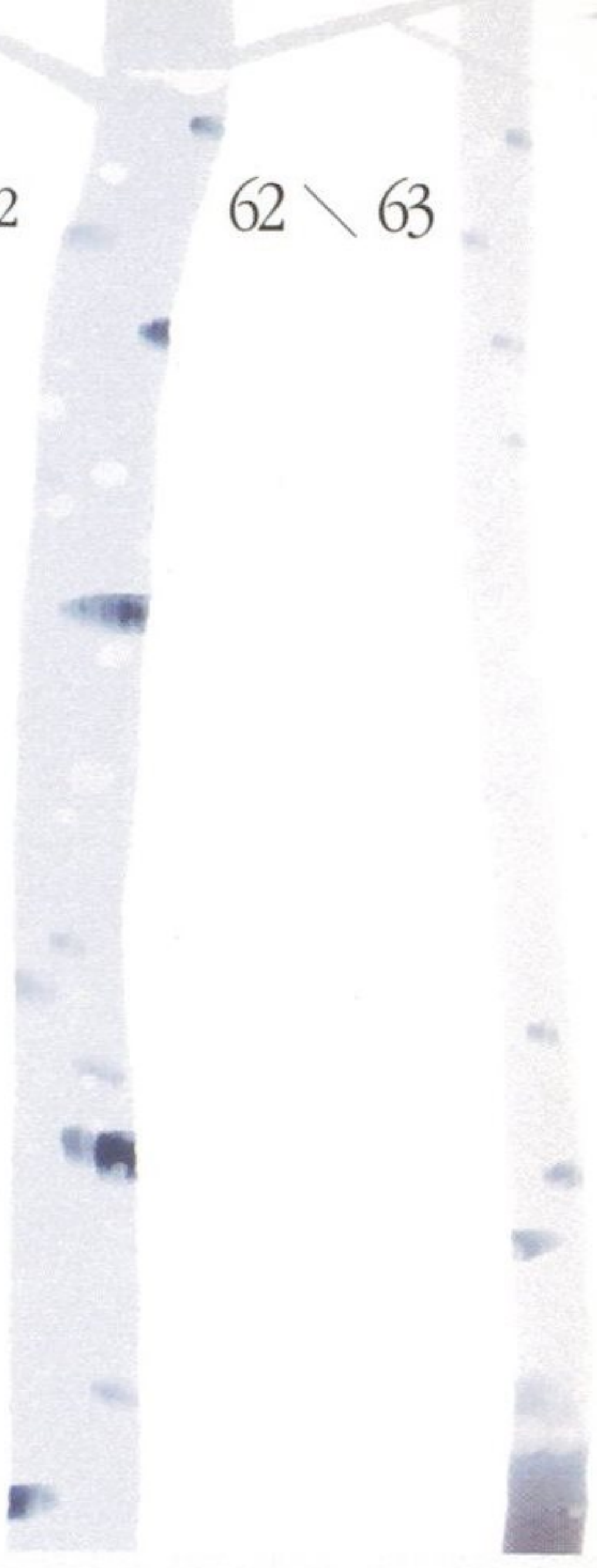
11월 29일(목)~12월 3일(월) 영화의전당

한국과 일본의 영화, 영상문화 교류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일본영화제' 2012년 상영회로, 신작을 중심으로 일본의 다양한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소개한다. 개막작인 우치다 겐지 감독의 최신작 '열쇠 도둑의 방법(2012)'은 국내에도 잘 알려진 히로스에 료코, 카가와 테루유키 등의 배우들이 출연하며, 유수의 해외영화제에도 초청된 일본 영화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이다. 또한 참신한 구성과 젊은 배우의 산뜻한 연기로 화제를 모은 요시다 다이하치 감독의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대(2012)'와 이리에 유 감독의 신작 '로드사이드 퓨저티브(2012)' 등 신진감독들의 작품들과 100세까지 현역 감독으로 활동하다 지난 5월에 세상을 떠난 신도 가네토 감독의 유작 '한 장의 엽서', 올해 12월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는 기노시타 게이ске 감독의 대표작 '카르멘 고향에 돌아오다'의 디지털 리마스터판도 소개된다. 이외 호리의 거장 이토 준지의 원작을 애니메이션화한 이색작 '공포 물고기', 1982년부터 제작된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마크로스' 극장판 '마크로스 F-작별의 날개' 등 놓쳐서는 안 될 애니메이션들을 상영한다. 이번 영화제는 일본영화의 신선한 현재와 더불어 그 바탕이 되는 거장의 작품과 명작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겨울나무

조영석_필하모니 대표



나무야 나무야 겨울나무야
 눈 쌓인 응달에 외로이 서서
 아무도 찾지 않는 추운겨울을
 바람 따라 휘파람만 불고 있느냐

평생을 살아봐도 늘 한자리
 넓은 세상 얘기도 바람께 듣고
 꽃피던 봄 여름 생각하면서
 나무는 휘파람만 불고 있구나.

겨울이 오면 즐겨 부르는 우리 동요 '겨울나무'가 나이가 들수록 좋아지는 것은 무슨 연유에서일
 까? 곧은 절개와 자연의 법칙에 따라 거짓없이 살아가는 나무에게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느끼기
 때문에서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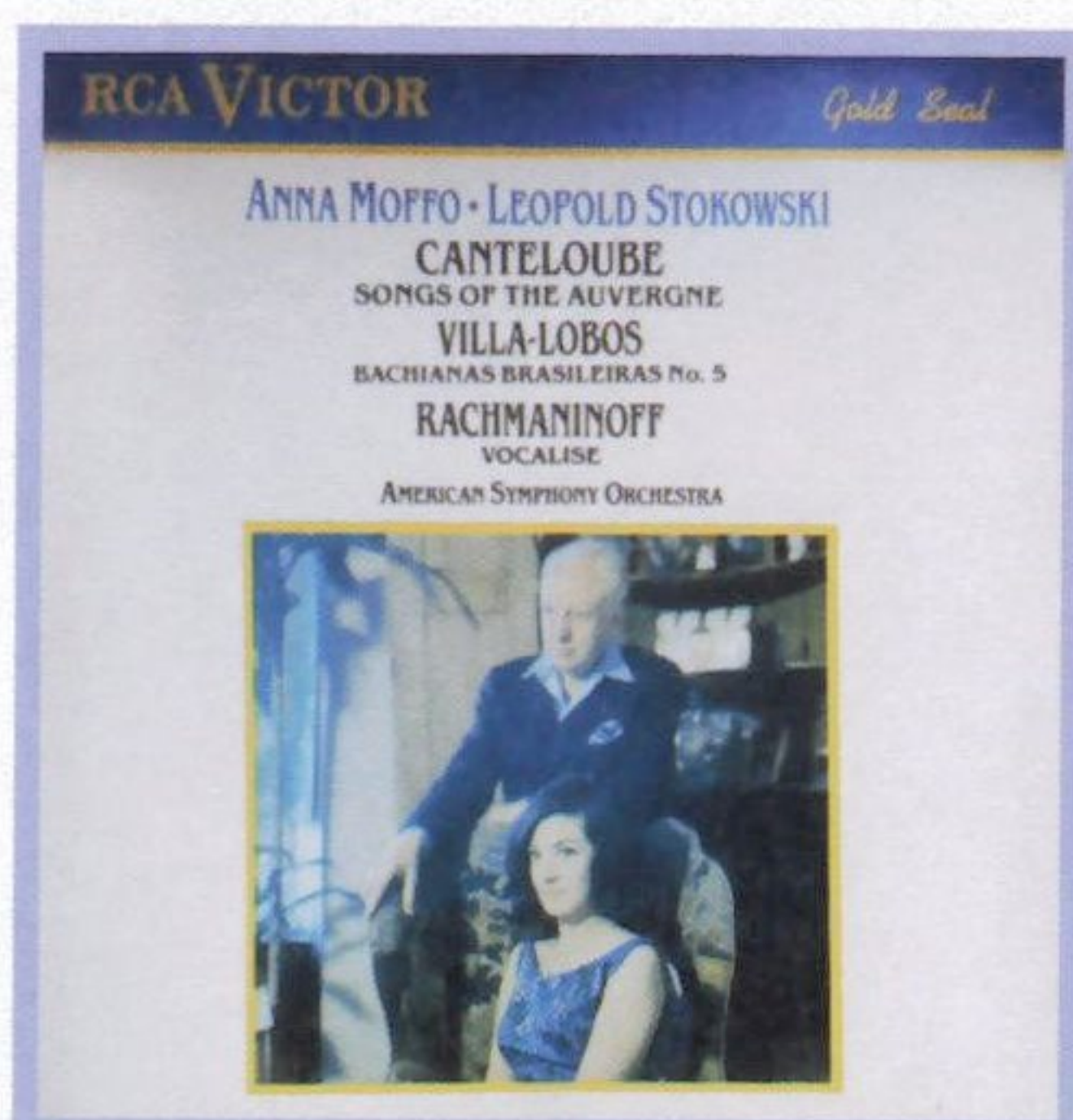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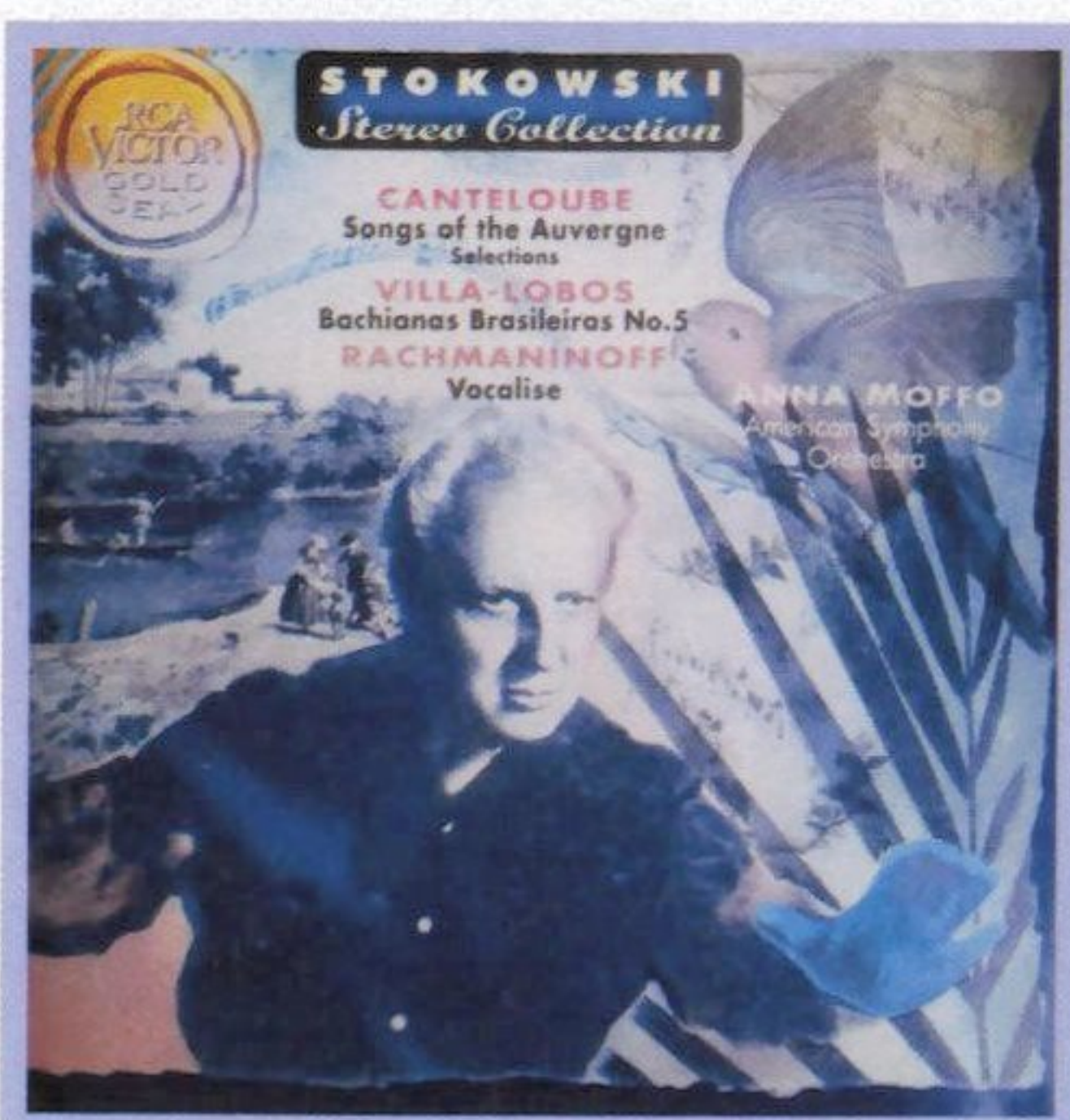
나무를 사랑하는 한 역사학자의 말에 의하면 나무는 인간만큼이나 치열한 삶을 산다고 한다. 나무
 의 생명력은 인간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고 한다. 봄이면 수줍은 듯 연한 새순이 파릇파릇 돌아나오
 고 여름에는 온갖 비바람과 한낮의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무성한 잎을 피우다가 가을이 되어 열매
 를 맺은 후에는 마침내 자신의 몸에 남은 마지막 잎사귀까지도 미련 없이 땅 위로 떨어뜨려 앙상한
 가지로서 있는 겨울나무... 찬란한 봄과 치열했던 여름을 지나 풍성했던 가을의 기억을 지닌 채 그
 령게 묵묵히 겨울을 견디고 서 있는 앙상한 나무의 모습에서 계절에 순응해 살아가는 자연의 섭리
 를 느끼게 된다.

또 한 해가 저문다. 언제나 이맘때 그렇지만 올 한해도 돌아보면 잘한 일보다 후회되는 일이 더 많
 은 것 같다. 때로는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지나왔던 시
 간들... 어쩌면 사람들은 상처가 두려워서 마음을 푹푹 닫고 사는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 마음을
 열어 아름다운 음악이 되고 작은 그림이 되고 詩가 되어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준다면 얼
 마나 좋을까?

나는 겨울이면 우리 동요 '겨울나무'가 떠올러지는 러시아 음악 한곡을 즐겨 듣는다. 19세기 후반
 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쳐 활약한 러시아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가 작곡한 '보칼리제(Vo-

calise)'라는 곡인데, 가사없이 그냥 목소리로만 연주하는
 그 애절한 선율이 마치 겨울나무를 연상케 해준다. 특히 소
 프라노 '안나 모포'의 목소리와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가
 지휘하는 America Symphony Orchestra의 연주는 눈보
 라 속에도 고고히 그 자태를 지키고 외로이 서 있는 겨울나
 무가 눈앞에 그려지는 듯 하다.

또한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와 함께 러시아 민요 '나홀
 로 길을 가네'라는 곡을 들으면 아무리 추운 겨울도 나뭇 행
 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NEWS

찾아가는 예술단 12월 공연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청중 맞춤형 공연 '찾아가는 예술단' 12월 공연이 확정되었다. 12월에는 국악관현악단의 부산광역시청로비 내사랑 부산 공연을 비롯해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환우를 위한 공연', 꿈나무소망심기공연 등이 펼쳐진다.

12/12(수)	12:30	부산광역시청로비	내사랑 부산 공연	시민들과 함께하는 로비콘서트(출연/국악관현악단)
12/12(수)	19:00	연제고등학교	꿈나무소망심기공연	연제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출연/교향악단)
12/21(금)	14:00	아하브 정신병원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환우를 위한 공연(출연/교향악단)
12/21(금)	16:00	재송어린이도서관	꿈나무소망심기공연	재송어린이도서관 음악회(출연/교향악단)
12/22(토)	14:00	시립미술관	내사랑 부산 공연	시립미술관 토요일라이브 공연(출연/합창단)

문의_ 부산문화회관(607-6046)



2012년도 시민합창교실 모집

부산시립합창단에서는 2012년 12월 시민합창교실 <합창의 맛과 멋>에 참여할 합창에 관심이 있는 단체 및 개인 수강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및 내용

행사명	모집부문	비고
2012 시민합창교실 <합창의 맛과 멋>	노래에 관심 있는 합창애호가	신청서

■ 강의일정

2012년 12월 11일(화)~12월 13일(목), 11:00~13:00

■ 참가신청 및 참가비용

- 참가신청 접수 : 2012년 11월 21일(수)~12월 7일(금)
- ▶ 13일간(토, 일 제외)
- 참가비용 : 균일 10,000원(교재비 포함)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접수처 : 부산시립합창단 사무실 (607-3141~4)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함)
-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참가비
- ※ 접수인원이 많을 시 선착순으로 선정

부산시립무용단 무용교실 수강생 모집

■ 제39기 시민무용교실

- 강습기간 : 2012. 1. 7(월) ~ 1. 11(금) (5일간)
- 강습장소 : 국제회의장(부산문화회관 소극장 2층)
- 대 상 : 일반 시민 및 교사(각 반 30명 내외)
- 수 강 료 : 20,000원 ※방문 접수만 가능

■ 제28기 어린이한국춤교실

- 강습기간 : 2012. 1. 7(월) ~ 1. 11(금) (5일간)
- 강습장소 : 국제회의장(부산문화회관 소극장 2층)
- 대 상 : 초등학생 어린이(각 반 20명 내외)
- 수 강 료 : 10,000원 ※전화 접수 가능

· 접수기간 : 2012. 12. 10(월)~12. 13(목) (4일간) (평일 10:00~18:00) · 문의 : 부산시립무용단(051-607-3131~2)
 ※선착순 마감 (마감 후 5일 이내 환불 가능/ 수수료 공제)



지 / 난 / 호 / 정 / 답

장	사	의	수	학	능	력	시	험
영			필	수				
주	경	야	독	베	버	리	힐	즈
	복	도	마	들		링		
후	궁		술			정		
크	첼	피	노	키	오			주
	영	도	다	리	메			홍
오	원			트	라	이	앵	글
광	해	쿠	레	윤				씨
대		바	이	킹	택	견		

11월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초대권 성용호(해운대구 우2동)
안현수(사하구 다대로)
윤나경(사하구 당리동)
이경희(수영구 남천1동)
황선영(북구 만덕3동)

나랏소 식사권 김기영(연제구 거제1동)
김말선(사상구 덕포2동)
김아름(서구 부용동1가)
이경희(동래구 온천2동)
최남이(사상구 괘법동)

조은극장 초대권 강지민(부산진구 전포동)
김미은(서구 아미동)
박정수(양산시 북부동)
백지은(사하구 하단1동)
황미숙(연제구 연산8동)

큰집 식사권 김병목(남구 용호1동)
김용건(해운대구 좌동)
김현숙(남구 대연2동)
서유리(수영구 금련로)
윤인영(해운대구 재송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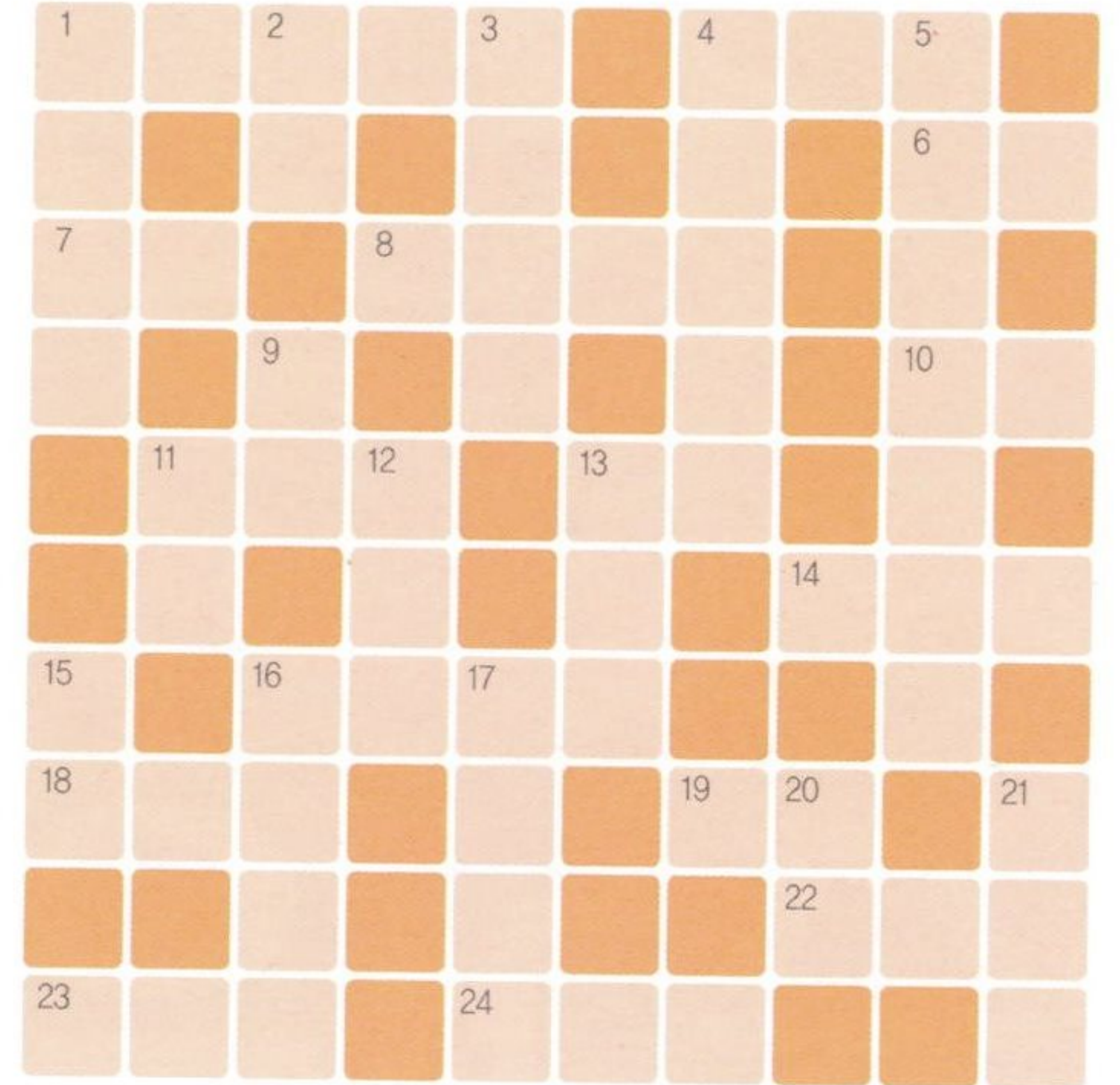
공간소극장 | 051-611-8518
나랏소 | 051-628-8814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정답을 보내주세요!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2년 11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가로열쇠]

- 1 부산문화회관이 매년 12월 31일 새해를 앞두고 마련하는 특별한 음악회. 올해는 제주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이동호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 소프라노 한혜진, 테너 김지호가 출연한다.
- 4 1920년대 범죄가 만연했던 시카고를 배경으로 인기와 명성을 쫓는 두 여죄수의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
- 6 야구에서, 주자가 타자의 안타나 수비자의 실책에 의하지 않고 수비수의 허술함을 틈타 다음 루(壘)로 가는 일.
- 7 주로 동판 따위의 금속판에 밑그림을 그리고 산으로 부식시켜 판화를 만드는 기법. 색채와 명암의 표현이 쉬운 반면 대량인쇄가 어렵다.
- 8 2004년 출간되어 3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고혜정의 수필집. 모녀시간의 애절한 정을 그린 작품으로 연극, 뮤지컬, 영화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다.
- 10 안드레스 세고비아, 지미 헨드릭스, 에릭 클립턴, 이병우가 연주했던 악기.
- 11 오페라, 칸타타, 오라토리오에서 기악 반주가 있는 독창곡.
- 13 196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일본 소설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장편소설.

- 14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의 하나. 기본 장단은 세마치이나 지방에 따라 가사와 곡조가 약간씩 다르다.
- 16 199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포르투갈의 작가로, 그의 작품인 '눈먼 자들의 도시'는 2008년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 18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부에서부터 시베리아 북부, 알래스카 및 캐나다 북부에 걸쳐 북극해 연안에 분포하는 넓은 벌판. 연중 대부분은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으나 짧은 여름동안에 지표의 일부가 녹아서 선태류와 지의류가 자라며, 순록의 유목이 행해진다.
- 19 최근 '강남스타일'이 유튜브 동영상상을 통해 세계로 퍼지면서 빌보드차트 2위에까지 오른 가수.
- 22 한말의 독립운동가로 삼흥학교(三興學校)를 세우는 등 인재양성에 힘썼으며, 만주 하얼빈에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사형되었다.
- 23 악보에서, 느리게 연주하라는 말. 모데라토와 아다지오의 중간 속도로, 걷는 정도의 속도이다.
- 24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소속의 야구선수.

[세로열쇠]

- 1 샬롯 브론테의 대표작.
- 2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
- 3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다는 뜻으로, 인생의 무상(無常)함을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이별(離別)의 아쉬움을 일컫는 말.
- 4 영화를 좋아하는 한 소년과 늙은 영상기사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이탈리아 감독 주제페 토르나토레의 자전적 영화.
- 5 아일랜드 출신의 프랑스 작가 S.베케트의 2막 희곡. 1969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작으로, 현대 전위극의 고전으로 평가받는다.
- 9 중국 원난성에 있는 시(市). 서쪽의 덴창산(點蒼山)은 세계적인 대리석 산지로, 석재로서의 대리석이라는 명칭은 이 곳의 지명에서 유래되었다.
- 11 1970~80년대 세계적인 선풍을 끌었던 스웨덴 출신의 팝그룹으로, 그들의 음악으로 뮤지컬 '맘미아'가 탄생되었다.
- 12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에서 시민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하는 집회장으로 쓰인 야외 공간.

- 13 일어서서 어깨에 걸쳐 메고 치는 장구.
- 15 인터넷을 매개로 배포하는 만화.
- 16 스페인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 대표작으로 '치고 이네르바이젠' '스페인 무곡집' 등 명바이올린곡이 많다.
- 17 페루 남부 쿠스코시(市)의 북서쪽 우루밤바 계곡에 있는 잉카 유적. '나이 든 봉우리'라는 뜻으로, 산자락에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공중도시'라고도 불린다.
- 20 대만의 영화감독. 영화 '결혼피로연'으로 베를린영화제 금곰상을 수상했으며, '브로크백 마운틴'으로 2005년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 2006년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했다. 최근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 개봉에 맞춰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 21 1985년 공포의 대명사로 불리던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벌어진 22일간의 잔인한 기록을 담은 정지영 감독의 영화 '남영동 1985'는 고(故) 000 의원의 자전적 수기를 바탕으로 영화화한 작품이다.

2012 송년음악회 제137회 정기연주회



지휘 전 상 철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즐거운 크리스마스



작곡가 신진수



소프라노 김경희



베이스 김정대



지휘 박성환



부산베데스다합창단

- 한국작곡가 시리즈 Ⅱ 작곡가 신진수 · 가을달밤 · 라일락꽃 · 윙윙윙 뽕뽕뽕 · 독도잠자리
- 특별출연 소프라노 김경희 피아노 원영아 · O holy night · 오페라 La sonnambula 중 Comr per me sereno
- 특별출연 베이스 김정대 피아노 원영아 · 눈 · 오페라 카르멘 중 Couplets Du Toreador
- 특별출연 이종창 소프라노 김경희, 베이스 김정대 피아노 원영아 · 오페라 돈조반니 중 La ci darem la mano
- 견우와 직녀 · 견우 직녀 · 이별 · 칠석요
- 특별출연 부산베데스다합창단 지휘 박성환 · 크리스마스 메들리 ·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 Highter
- Christmas Medley · Have Yourself A Merry Christmas · 울면 안돼 · 루돌프 사슴고 · 창밖을 보라 · 겨울밤 ·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2012. 12. 22(토)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BUSAN CULTURAL CENTER MAIN HALL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61~2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초대권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사무실(607-3161~2)
배부처 문화악기사(625-7275), 평강음악사(626-7900)

초대

초대권 소지자에 한 하여 우선 입장

2012년 12월 공연일정

2012
December
12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야외공연장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2/30	12/31	전시일정				01
<p>☞ 뉴보잉보잉 14:00, 17:00 3만 5천원 · 2만 5천원/동그라미그리기(1566-9786)</p> <p>☞ 프리모 색소폰 앙상블 제3회 정기연주회 18:00 균일 2만 5천원/김승모(010-9271-0626)</p>	<p>☞ 부산문화회관 '2012 제아음악회' 22:30 3만원 · 2만원 · 1만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문화회관(607-6057)</p>	<p>제32회 부산미술제-대 · 중전시실 12월 3일(월)~12월 8일(토) 부산미술협회(632-2400)</p> <p>제30회 대한민국미술대상전-대 · 중전시실 12월 13일(목)~12월 16일(일) 문인화, 서예 12월 18일(화)~12월 22일(토) 회화, 공예 정태정(010-5488-3375)</p>		<p>제8회 부경서도대전-대 · 중전시실 12월 23일(일)~12월 26일(수) 한국서도협회 부산경남지회(010-8501-8181)</p> <p>제5회 대한서화예술대전-대 · 중전시실 12월 29일(토)~12월 31일(일) (새대한국서화예술협회(011-878-5478)</p>	<p>☞ 탈북자 및 다문화가정 돌기 자선음악회 18:00 2만원/부산기독교장로총연합회(512-8118)</p> <p>☞ 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 제16회 정기연주회 19:00 초대/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 (010-4842-6688)</p> <p>☞ 토요일상설무대-줄리아댄스컴퍼니 16:00 무료(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p>	
02	03	04	05	06	07	08
<p>☞ 개그 더 코미디쇼 in 부산 2012[크리스마스 특집] 13:00, 16:00, 19:00 8만 8천원 · 6만 6천원 5만 5천원 · 4만 4천원 · 3만 3천원 코코엔터테인먼트(1644-8246)</p> <p>☞ 루마니아 바카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8:00 균일 2만원(주프라이트(02-585-2934)</p>	<p>☞ 2012 부산솔리스트앙상블 19:30 균일 3만원/부산일보(461-4436~8)</p> <p>☞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기악과 합창단 제34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고신대학교 음악학과(990-2231)</p> <p>☞ 제9회 글로벌콰이어 가족음악회 19:30 초대/글로벌콰이어(010-8544-4702)</p>	<p>☞ 제4회 센텀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초대/센텀합창단(744-4747, 010-3136-7798)</p> <p>☞ 보여지는 무대 19:30 5천원(현장판매) Mom-burim Dance Project(010-9868-0420)</p>	<p>☞ 제140회 MBC목요음악회 -엘미소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부산원드오케스트라 'The Wind of Love' 19:30 1만원 · 5천원 윤두현(010-5872-8480)</p>	<p>☞ 부산시립교향악단 오페라 in 콘서트 '박쥐' 19:30 2만원 · 1만5천원 · 1만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p> <p>☞ 뮤지컬 '년센스' 20:00 5만원 · 4만원/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p> <p>☞ 부산시립무용단 2012 풍류風流 제6기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춤 빛깔 찾기 19:30 균일 3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p>	<p>☞ 뮤지컬 '년센스' 15:00, 18:30 5만원 · 4만원/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p> <p>☞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합창단 16:00 무료(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p>	
09	10	11	12	13	14	15
<p>☞ 뮤지컬 '년센스' 15:00, 18:30 5만원 · 4만원/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p> <p>☞ 부산덕터스쿨리넛앙상블 제7회 정기연주회 17:00 무료/박강우(010-2553-0737)</p>	<p>☞ U.K.O 정기연주회 '사랑나눔 음악회' 19:30 균일 2만원 U.K.O 오케스트라(626-8084, 011-591-3342)</p> <p>☞ 피아니시모 제5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피아니시모(010-9228-2411)</p>	<p>☞ 시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19:30 14만원 · 12만원 · 9만원 · 7만원/마스트미디어(1599-2535)</p> <p>☞ 제4회 수영전통예술대학 발표공연 19:00 무료/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752-2947)</p> <p>☞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p>	<p>☞ 부산베네스다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무료/부산베네스다합창단(972-2804)</p> <p>☞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p>	<p>☞ 라메르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19:30 2만원 · 1만원/라메르오케스트라(627-5665)</p> <p>☞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p>	<p>☞ 2012 부산시립교향악단 · 부산시립합창단 송년음악회 19:30 2만원 · 1만 5천원 · 1만원 · 5천원 부산문화회관(607-6058),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 U.K-Y-O 유스 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17:00 균일 5천원/이재복(010-5540-1538)</p> <p>☞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16:00 무료(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p>	
16	17	18	19	20	21	22
<p>☞ 부산클라리넷과르넷 제17회 정기연주회 18:00 균일 1만원/부산클라리넷과르넷(010-7543-0883)</p>	<p>☞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부산시립무용단 마당출판 '방귀쟁이 머느리' 11:00 균일 2천원 부산시립무용단(607-6042, 607-3131~2)</p> <p>☞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 유망신예음악회 19:30 초대/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010-3376-2246)</p> <p>☞ 아담스플루트앙상블과 함께하는 임채홍 예술취미 특별연주회 19:30 균일 1만원/장극대(611-7734, 011-582-5189)</p>	<p>☞ 장애인과 함께 하는 부산시립무용단 송년공연 마당출판 '방귀쟁이 머느리' 10:00 무료/부산시립무용단(607-3131~2)</p> <p>☞ 단비울남상앙상블 제10회 정기연주회 '精, 겨울이야기' 19:30 초대/강상철(010-2418-6468)</p> <p>☞ 정안선 첼로로 독주회 19:30 균일 2만원/정안선(010-2545-2291)</p>	<p>☞ 일로이시오 오케스트라 제22회 자선음악회 19:30 균일 1만원/일로이시오오케스트라(250-5273)</p> <p>☞ 바리톤 이종훈 독창회 19:30 초대/이종훈(010-2666-2515)</p>	<p>☞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스포르노 조수미 'La Luce' 19:30 13만원 · 11만원 · 8만원 · 6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8)</p> <p>☞ 김민정 피아노 독주회 19:30 2만원/김민정(010-6531-0307)</p> <p>☞ 2012 부산지역장애인예술제 '제7회 늘푸른 합창단 정기연주회' 18:30 균일 1만원/부산시립장애인복지협회(506-5024)</p>	<p>☞ 최은주 클래스 피아노연주회 '젊은 비루투오조의 비상' 19:30 무료/최은주(010-3592-5697)</p>	<p>☞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37회 정기연주회 및 2012 송년음악회 '즐거운 크리스마스' 17:00 무료/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p> <p>☞ 뉴보잉보잉 16:00, 19:00 3만 5천원 · 2만 5천원/동그라미그리기(1566-9786)</p> <p>☞ 토요일상설무대-남산놀이마당 16:00 무료(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p>
23	24	25	26	27	28	29
<p>☞ 뉴보잉보잉 14:00, 17:00 3만 5천원 · 2만 5천원/동그라미그리기(1566-9786)</p>	<p>☞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연인과 함께하는 특별한 이브의 밤 7080 콘서트 20:00 5만원 · 3만원 · 2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p> <p>☞ 뉴보잉보잉 17:00, 20:00 3만 5천원 · 2만 5천원/동그라미그리기(1566-9786)</p>	<p>☞ 뉴보잉보잉 14:00, 17:00, 20:00 3만 5천원 · 2만 5천원/동그라미그리기(1566-9786)</p>	<p>☞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2 송년음악회' 19:30 균일 2천원(자유석)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 뉴보잉보잉 20:00 3만 5천원 · 2만 5천원/동그라미그리기(1566-9786)</p>	<p>☞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65회 정기연주회 '2012 송년음악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3)</p> <p>☞ 뉴보잉보잉 20:00 3만 5천원 · 2만 5천원/동그라미그리기(1566-9786)</p>	<p>☞ 아이무스 오페라단 2012 송년 오페라 콘서트 '라보엠' 19:30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 (사이자무스오페라단(070-7522-4649)</p> <p>☞ 뉴보잉보잉 20:00 3만 5천원 · 2만 5천원/동그라미그리기(1566-9786)</p>	<p>☞ 뉴보잉보잉 16:00, 19:00 3만 5천원 · 2만 5천원/동그라미그리기(1566-9786)</p> <p>☞ 토요일상설무대-국악그룹 아비오 16:00 무료(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p>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을 클릭하세요.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바랍니다.

December 2012 Program Guide

2012
December
12

● Grand theater
 ▼ Medium theater
 ● Small theater
 ○ Outdoor Amphitheater
B.P.O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B.M.T.O**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B.M.D.C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 **B.M.C** Busan Metropolitan Chorus
B.M.T Busan Metropolitan Theater / **B.M.J.C** Busan Metropolitan Junior Chorus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12/30</p> <p>▼ 'New Boeing Boeing' 14:00, 17:00 35,000/25,000/ Dong-gramy(1566-9786)</p> <p>● The 3rd Regular Concert of Primo Saxophone Ensemble 18:00 25,000 Primo Saxophone Ensemble(010-9271-0626)</p>	<p>12/31</p> <p>● Busan Culture Center New Year's Eve Concert 22:30 30,000/20,000/10,000/B.P.O(607-3111-3)</p>	<p>Exhibition Hall</p> <p>The 32nd Busan Arts Festival -Main, Middle Exhibition Hall 12.31(Mon.)-9(Sat.) Busan Fine Arts Association(632-2400)</p> <p>The 30th Korea Arts Competition -Main, Middle Exhibition Hall 12.13(Thu.)-16(Sun.), 12.18(Tue)-22(Sat) Jung Tae-jung(010-5488-3375)</p>	<p>The 8th Bukyung Calligraphy - Art competition Main, Middle Exhibition Hall 12.23(Sun.)-26(Wed.) Busan -Kyungnam Branch of Korea Calligraphy Art Association (010-8501-8181)</p> <p>Korea Calligraphy - Art Exhibition -Main, Middle Exhibition Hall 12.29(Sat.)-31(Mon.) Korea Calligraphy art Association(011-878-5478)</p>			<p>01</p> <p>● The Benefit Concert for North Korean defector and Multi-cultural families 18:00 Busan Christian Association(512-8118)</p> <p>▼ The 16th Regular Concert of Incorean Academic Orchestra 19:00 Invitation /I.A.O(010-4842-6688)</p> <p>● Saturday Regular Stage- July Dance Company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B.C.C(607-6056)</p>
<p>02</p> <p>● Gag the Comedy Show in Busan 2012 13:00, 16:00, 19:00 88,000/66,000/55,000/44,000/33,000/ Coco Ent.(1644-8246)</p> <p>▼ Wachau Philharmonic Orchestra of Bacau 18:00 20,000/ Pro Art(02-585-2934)</p>	03	<p>04</p> <p>● 2012 The Regular Concert of Busan Solist Ensemble 19:30 30,000/ Busan Daily News(461-4436)</p> <p>▼ The 34th Regular Concert of Kosin University Choir 19:30 Invitation/ Kosin Uni.(010-8249-0018)</p> <p>● The 9th Family Concert of Glory Choir 19:30 Invitation/ Glory Choir(010-8544-4702)</p>	<p>05</p> <p>▼ The 4th Regular Concert of Centum Choir 19:30 Invitation/ Centum Choir(744-4747)</p> <p>● Mom-burim Dance Project Dance Performance 19:30 5,000 Mom-burim Dance Project(010-9868-0420)</p>	<p>06</p> <p>▼ The 1140th MBC Thursday Concert 'Love Concert' of Elmiso Orchestra and Busan Wind Orchestra 19:30 10,000/5000/ Moonhwadosi Network(760-1494)</p>	<p>07</p> <p>●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Opera in Concert 'Die Fledermaus' 19:30 20,000/15,000/10,000/5000/ B.P.O(607-3111-3)</p> <p>▼ Musical 'Nonsense' 20:00 50,000/40,000 Busan Bank JoEun Theater(1588-2757)</p> <p>● 2012 Pung Ryu 風流-The 6th Finding Our Dancing Characteristics with Citizen 19:30 3,000/B.M.D.C(607-3131-2)</p>	<p>08</p> <p>▼ Musical 'Nonsense' 15:00, 18:30 50,000/40,000 Busan Bank JoEun Theater(1588-2757)</p> <p>● Saturday Regular Stage- Busan Metropolitan Chorus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B.C.C(607-6056)</p>
<p>09</p> <p>▼ Musical 'Nonsense' 15:00, 18:30 50,000/40,000 Busan Bank JoEun Theater(1588-2757)</p> <p>● The 7th Regular Concert of Busan Doctors Clarinet Ensemble 17:00 Free/B.D.C.E(010-2553-0737)</p>	<p>10</p> <p>● The Regular Concert of U.K.O 19:30 20,000 U.K.O Orchestra(626-8084, 011-591-3342)</p> <p>▼ The 5th Regular Concert of Pianissimo 19:30 10,000/Pianissimo(581-5133, 010-9238-2411)</p>	<p>11</p> <p>● Sarah Chang Violin Recital 19:30 140,000/120,000/90,000/70,000 Master Medial(1599-2535)</p> <p>▼ Suyeong Folklore Conservation Association's Academy Performance 19:00 Free/S.F.C.A(752-2947)</p> <p>● The Special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Theater 'When the smoke gets in eyes' 19:30 10,000/B.M.T(607-3151)</p>	<p>12</p> <p>▼ The Regular Concert Busan Bethesda Choir 19:30 Free/ Busan Bethesda Choir(972-2804)</p> <p>● The Special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Theater 'When the smoke gets in eyes' 19:30 10,000/B.M.T(607-3151)</p>	<p>13</p> <p>▼ The 3rd Regular Concert of Lamer Orchestra 19:30 20,000/10,000/ Lamer Orchestra(627-5665)</p> <p>● The Special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Theater 'When the smoke gets in eyes' 19:30 10,000/B.M.T(607-3151)</p>	<p>14</p> <p>● The Farewell Concert of Busan Cultural Center 20:00/15,000/10,000/5000 B.C.C(607-6058), B.P.O(607-3111-3)</p>	<p>15</p> <p>● The Christian Music Concert of CTS 17:00 Invitation/ CTS(784-9988)</p> <p>▼ The 5th Regular Concert of U-K-Y-O 17:00 5,000/ U-K-Y-O(607-3116, 010-5540-1538)</p> <p>● Saturday Regular Stage-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p>
<p>16</p> <p>● The 17th Regular Concert of Busan Clarinet Quartet 18:00 10,000/Busan Clarinet Quartet(010-7543-0883)</p>	<p>17</p> <p>●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Speical Performance for teenager 'Farting Lady' 11:00 2,000/B.M.D.C(607-6042, 607-3131-2)</p> <p>▼ The 18th Regular Concert of Busan Festival Orchestra 19:30 Invitation Busan Festival Orchestra(010-3376-2246)</p> <p>● Im Chae-hung's Artistic Whistle Concert 19:30 10,000/Jang Guk-tae(611-7734, 011-582-5189)</p>	<p>18</p> <p>●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farewell Performance for handicapped 'Farting Lady' 10:00 Free/ B.M.D.C(607-6042, 607-3131-2)</p> <p>▼ The 10th Regular Concert of Danbiol Male Ensemble 19:30 Invitation/ D.M.E(010-2418-6468)</p> <p>● Jung An-seon's Cembalo Recital 19:30 20,000/Jung An-seon(010-2545-2291)</p>	<p>19</p> <p>● The Benefit Concert of Aloysius Symphony Orchestra 19:30 10,000/ Aloysius Orchestra(250-5273)</p> <p>● The 6th Recital of Baritone Lee Jong-hoon 19:30 Invitation/ Lee Joung-hoon(010-2666-2515)</p>	<p>20</p> <p>● Soprano Su-mi Jo 'La Luce' 19:30 130,000/110,000/80,000/60,000/B.C.C(607-6058)</p> <p>▼ Kim Min Jung Piano Recital 19:30 20,000/ Kim Min Jung(010-6531-0307)</p> <p>● The 7th Regular Concert of Evergreen Chorus 18:30 10,000/ Busan Association for the Mentally Retarded(506-5024)</p>	<p>21</p> <p>● Choi Eun-ju's Class Concert 19:30 Free/ Choi Eun-ju(010-3592-5697)</p>	<p>22</p> <p>● The 137th Regular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Junior Chorus 17:00 Free/ B.M.J.C(607-3161-2)</p> <p>▼ Romantic Comedy Play 'New Boeing Boeing' 16:00, 19:00 35,000/25,000/ Dong-gramy(1566-9786)</p> <p>● Saturday Regular Stage-Nam-san Norimadang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B.C.C(607-6056)</p>
<p>23</p> <p>▼ 'New Boeing Boeing' 14:00, 17:00 35,000/25,000/ Dong-gramy(1566-9786)</p>	<p>24</p> <p>● '7080' Concert 20:00 50,000/30,000/20,000/ B.C.C(607-6057)</p> <p>▼ 'New Boeing Boeing' 17:00, 20:00 35,000/25,000/ Dong-gramy(1566-9786)</p>	<p>25</p> <p>▼ 'New Boeing Boeing' 14:00, 17:00, 20:00 35,000/25,000/ Dong-gramy(1566-9786)</p>	<p>26</p> <p>● The Special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2012 Farewell Concert' 19:30 2,000/B.P.Y.O(607-3111-3)</p>	<p>27</p> <p>● The 165th Regular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19:30 10,000/7,000/5,000/B.M.T.O(607-3121-3)</p> <p>▼ 'New Boeing Boeing' 20:00 35,000/25,000/ Dong-gramy(1566-9786)</p>	<p>28</p> <p>● 2012 Farewell Variety Concert 19:30 100,000/70,000/50,000/30,000 Ajimus Oprea Company(070-7522-4649)</p> <p>▼ 'New Boeing Boeing' 20:00 35,000/25,000/ Dong-gramy(1566-9786)</p>	<p>29</p> <p>▼ 'New Boeing Boeing' 16:00, 19:00 Dong-gramy(1566-9786)</p> <p>● Saturday Regular Stage- Abio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B.C.C(607-6056)</p>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




원작 쓰쓰미 야스유키(堤 泰之)

번안·연출 김순영

예술감독 문석봉


이돈희 황창기 이현주 주은실 박호석 염지선 남승화 윤준기 박준서 박규한 차승현 전지은 이수아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극단

입장권 **균일 10,000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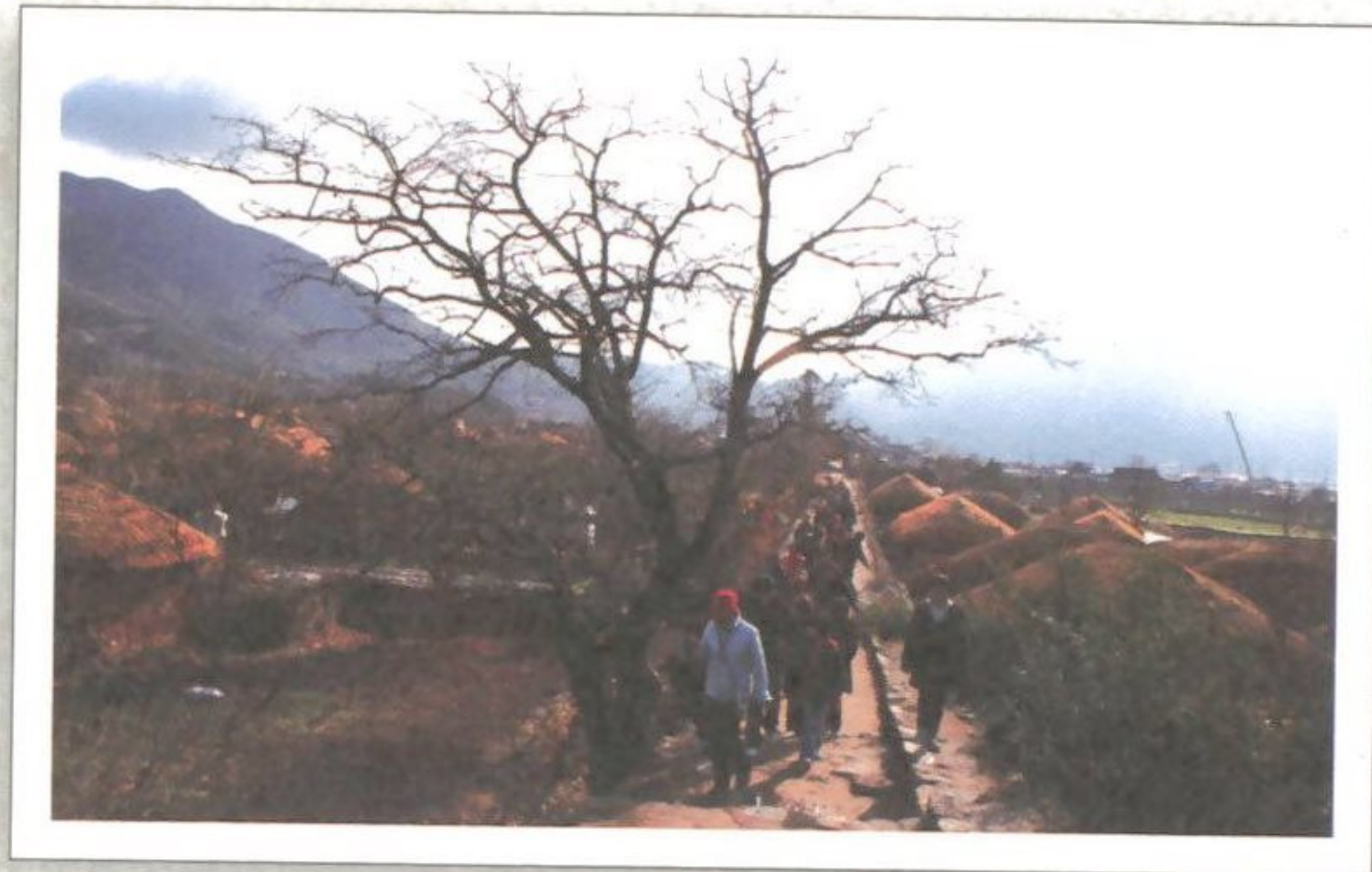
2012.12.11(화)~13(목) 19: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부산시립극단 607-3151

예매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부산은행전지점 **티켓링크** 서틀버스은행 대연역 5번출구 (유엔로터리 방향, 7번가 피자 앞) 오후 7시 출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생태 도시 순천

2013년 1월 11일(금)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생태도시 순천으로 떠나는 겨울여행. 일상생활에 지친 현대인에게 편안한 휴식을 전해주는 순천전통야생차 체험관을 시작으로 태고총림 선암사, 조선시대 서민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낙안읍성을 둘러본다.

- 07:3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10:00 순천 전통야생차 체험관 도착, 다도체험
- 12:30 중식
- 13:00 선암사, 낙안읍성 답사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7:00 부산으로 출발



밀양 겨울 여행

2013년 2월 15일(금)

봄을 기다리는 움츠린 사람들에게 건강과 활력을 선사할 밀양 힐링투어. 밀양의 정신문화를 상징하는 영남루를 시작으로 예림서원, 추원재, 표충비각과 허브향 가득한 꽃새미 마을에서 봄의 기운을 느껴본다.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09:30 밀양도착, 아랑각, 예림서원, 추원재 답사
- 12:30 꽃새미마을 도착, 중식, 허브 체험
- 14: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5:00 사명대사 유적지, 표충비각 답사
- 16:30 부산으로 출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체험비는 회원 부담)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culture.busan.go.kr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2. December Vol.252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154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154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센텀점

Today

Restaurant

Since 1985

20%

Discount



10%

Discount

MOZART



10%

Discou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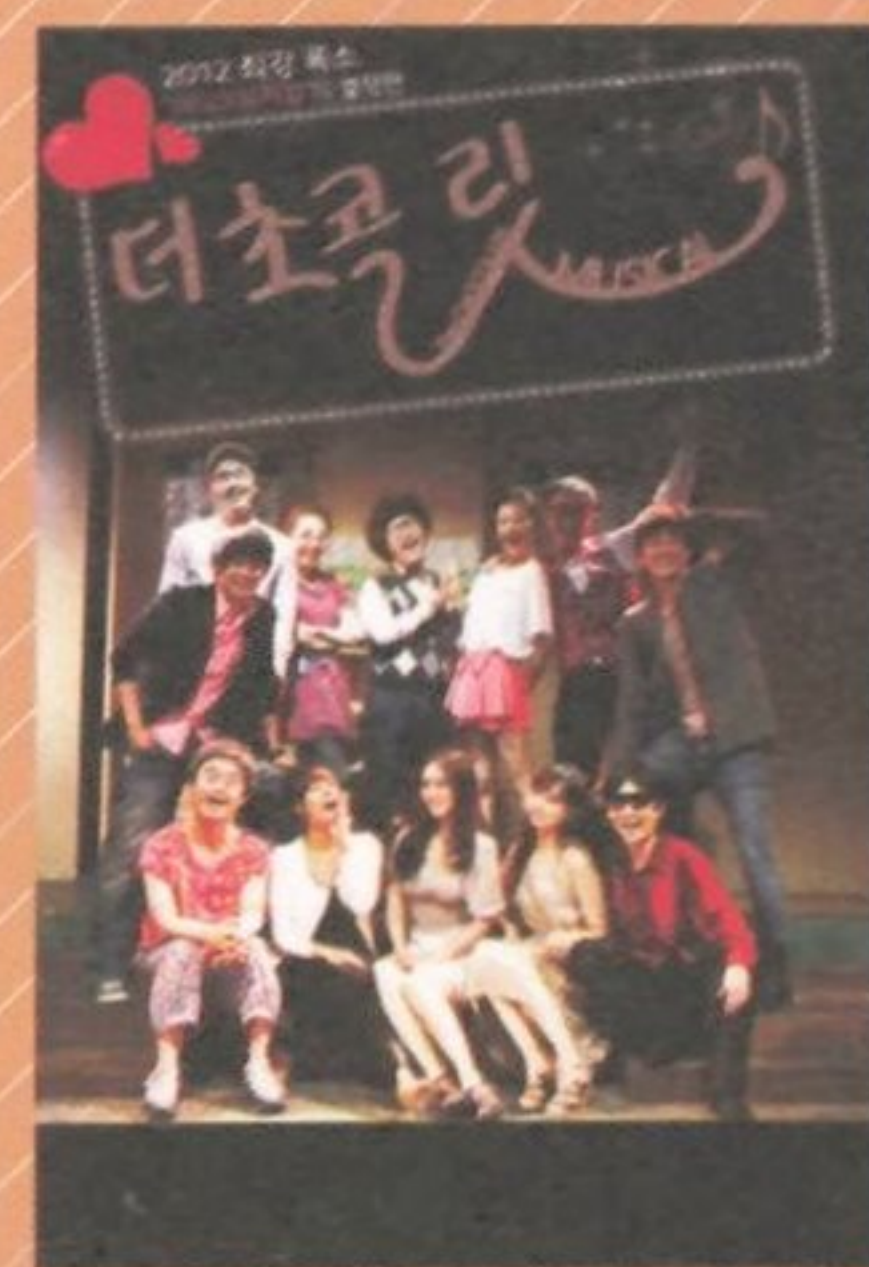
센텀점
하늬동기스



10%

Discount

Since 1981
philharmony



20%

Discount

주크박스 뮤지컬
더 초콜릿



20%

Discount

극단 사계
사랑 툽툽툽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 II -Yesterday

2012.12.24. MON. PM 8: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50,000 · S석 30,000 · A석 2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문화회관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문의 : 051.607.6058



토다이 센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평일 점심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 임페리얼 타워 5층
예약 : 051)731-70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행사는 토다이 센텀점에 한합니다.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051)626-1456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돈가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H밸리 210호
051)747-8244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051)626-2592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크박스 뮤지컬 '더 초콜릿'

2012.11.23(금)-2013.1.1(화)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3시, 6시
(12/24일, 12/31일 오후 5시, 8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균일 3만 5천원 장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문의 및 예매 : 1588-2757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로맨틱 코미디극 '사랑 특특'

2012.12.1(토)-12.31(월)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4시, 7시, 일·공휴일 오후 3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균일 2만 5천원 장소 : 공간소극장
문의 및 예매 : 611-8518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13년 1월 응모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 회원명

• 연락처 [자택]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독자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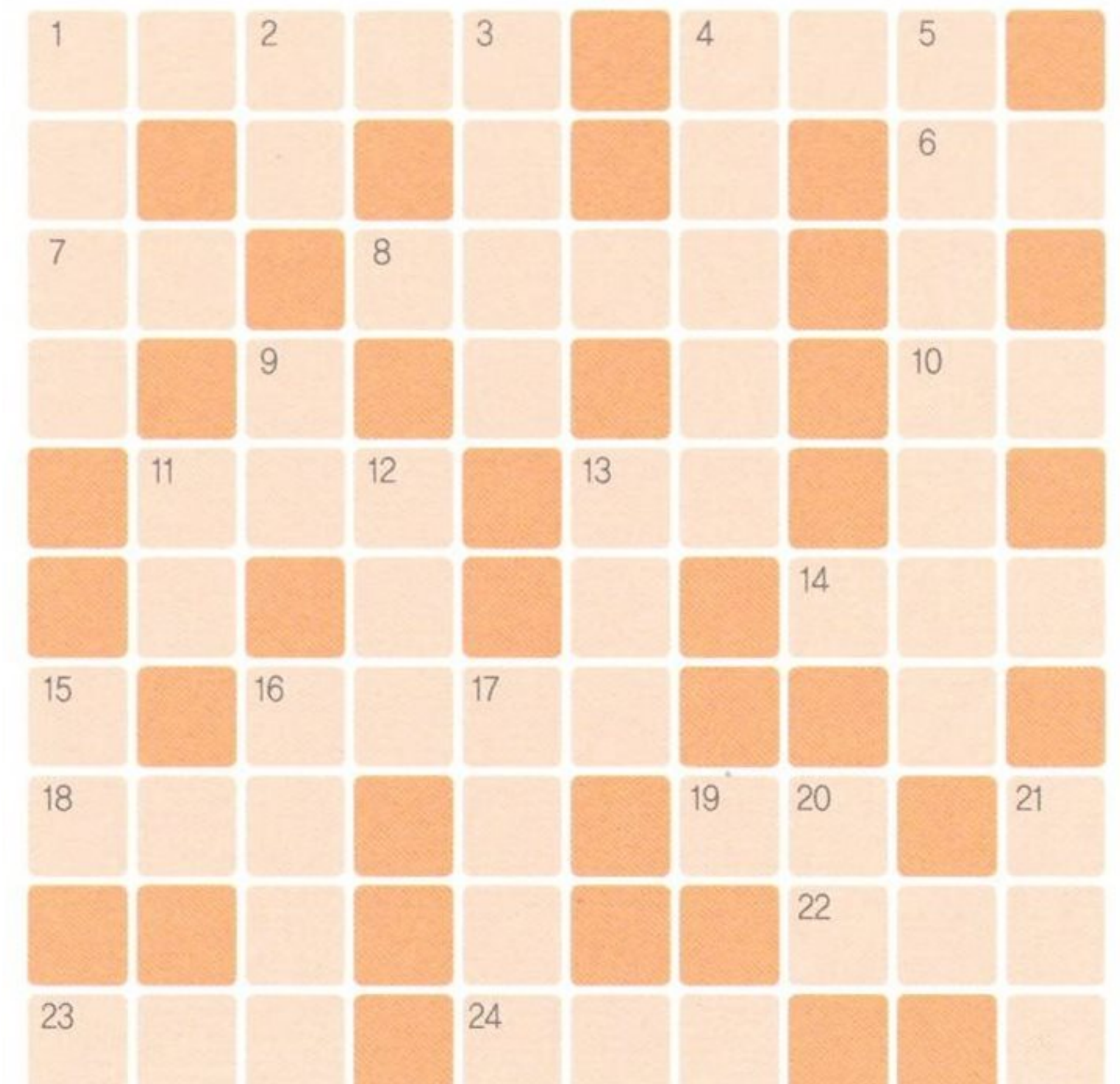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 퍼즐정답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빛 값는다
?!

광고하나로 천냥 빛 값는다!!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비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The new Audi A6 2.0 TDI

디젤세단의 새로운 영향력



Audi TDI의 효율성과 파워로부터, 새로운 영향력은 시작된다

더 좋은 디젤엔진만으론, 세상의 고정관념은 바뀌지 않는다.
르망24시간레이스 6회 우승을 기록한 아우디 TDI가 선보이는, 압도적인 파워와 효율성.
한층 더 견고해지고 가벼워진 알루미늄 하이브리드 바디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정교한 드라이빙 감각.
그리고 멈춰있을 때조차 다이내믹한 스타일이 드러나는 The new Audi A6만의 디자인까지.
아우디 TDI 모델로 더 완벽해진 The new Audi A6로부터, 세상을 움직이는 새로운 영향력이 시작된다.

www.ucaro.co.kr

The new Audi A6 2.0 TDI Dynamic 스페셜 금융프로그램

- 선택1. 저금리 유예 금융리스 / 할부금융 : 월 325,190원 (36개월, 선납금 30% 상환유예원금 65%)
- 선택2. 저금리 3.46% 운용리스 (36개월, 보증금 30%, 잔존가치 30%)
- 선택3. 저금리 36개월 할부금융 (선수금 30% 기준) 또는 취득세 지원

■ 상기 프로그램 이용 기간 중 신차 교환 프로그램 적용

* 상기 프로그램은 Audi A6 2.0 TDI mu, Dynamic 모델기준이며 기타 모델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아우디 전시장으로 문의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은 Audi Financial Service 이용 시 적용되며, 조기마감 및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및 공채 부대비용 별도 부담 조건

전시장

- 부산 남 천 051-611-3844
- 부산 해운대 051-740-5566
- 창원 055-245-2233

Service Namcheon



Service Millak



Service Changwon



서비스센터

- 부산 남 천 051-628-0056
- 부산 민 락 051-626-0056
- 창원 055-245-0999
- 울산 QSC 052-227-2255

아우디공식딜러
유카로오토모빌(주)

중형세단의
상식을 벗어난

크기



정통 중형세단의 모범답안
월 257,502원으로 만나십시오.

앞서가는 기술만이 새로운 공간을 창조한다 _ The new Passat

공간이 넓어질수록 연비는 떨어진다는 상식조차
누군가는 극복해야 했기에 오리지널 독일 세단
파사트가 상식을 초월한 공간으로 당신을 찾아가합니다
이제 당신의 프리미엄에 공간을 더하십시오

The Original German. Volkswagen

월 257,502원으로
독일 프리미엄 정통 중형세단 파사트의 오너가 되십시오!

*유예할부 / 금융리스 월납입금 36개월 선수금 30% 상환유예 65%
본 프로모션은 기간 경과 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The new Passat 올인클루시브 패키지

- 혜택1. 나에게 딱 맞는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
- 혜택2. 신차교환프로그램 적용
- 혜택3. 4~5년차 소모성 정비 서비스 쿠폰 지급



Volkswagen. Das Auto.

Your Volkswagen Partner
유카로오토모빌(주)
www.ucaro.co.kr

[부산 전시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52-32
Tel. 051-611-5500

[창원 전시장]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1가 45-3
Tel. 055-245-7788

[울산 Office]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13
Tel. 052-257-3443

[부산 서비스 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12-9
Tel. 051-628-5533

[창원 서비스 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1가 45-3
Tel. 055-245-8383

[차량 및 표준 연비] Passat 2.0 TDI (전장/전폭/전고 4870/1835/1485 6단 DSG, 1968cc, 1563kg, CO₂ 135g/km, 복합연비 14.6km/l (도시 12.9km/l 고속도로 17.9km/l), 2등급, 최고출력(ps/rpm) 140/4200, 최대토크(kg.m/rpm) 32.6/1750~2500)
*이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